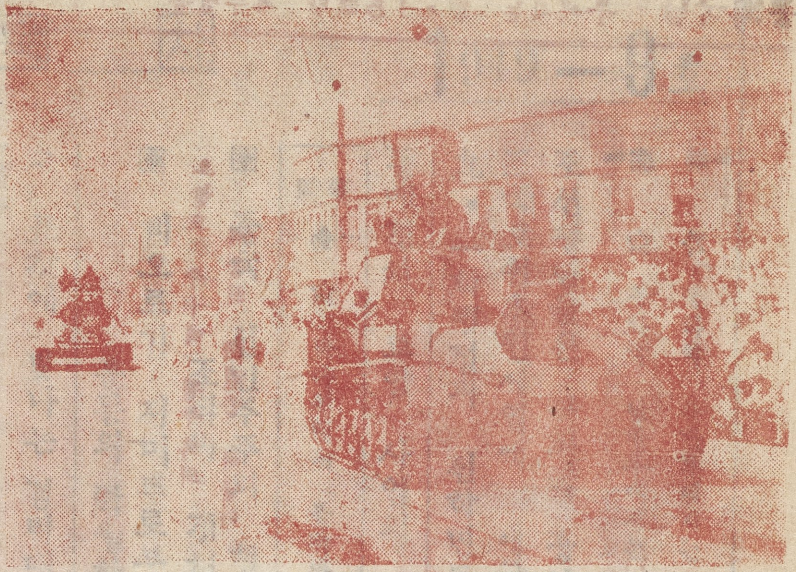
청년생활



19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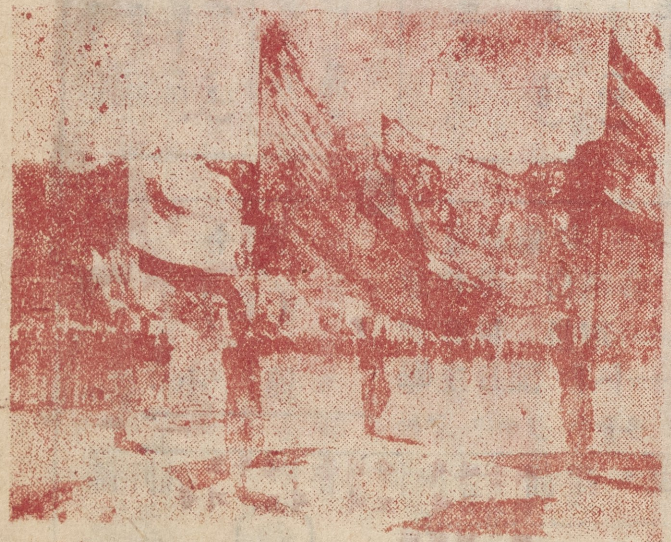
◁ 여성청년들의
씩씩한 행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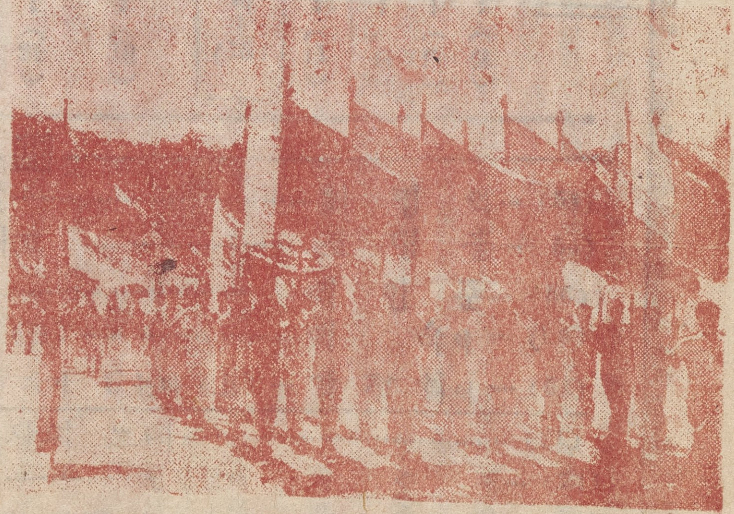


◁하늘땅을 진감하며 전진하는 땅크부대 ▷



◁ 발랄한 소녀도 수레자기— ▷





◁ 8·15해방 4주년기념 체육 축전의 첫아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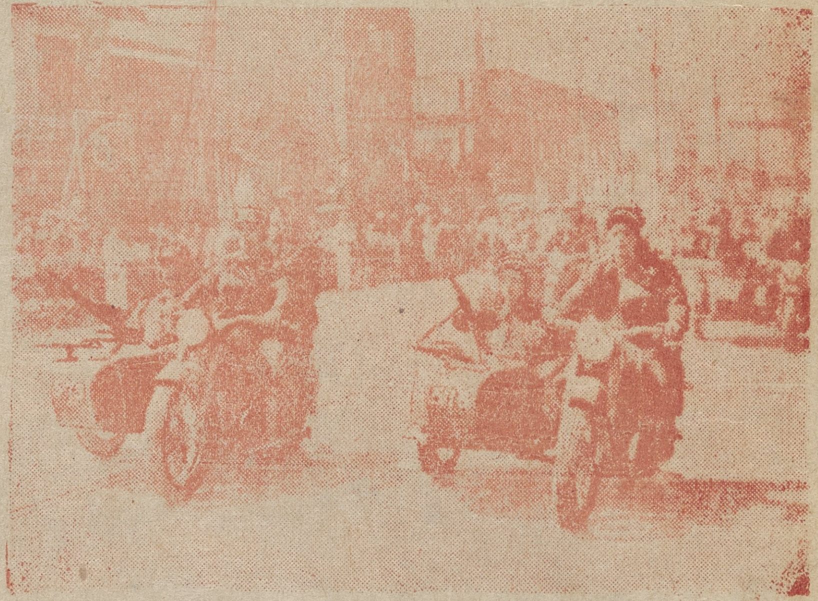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8·15해방 4주년을 승리의 환희와 새 결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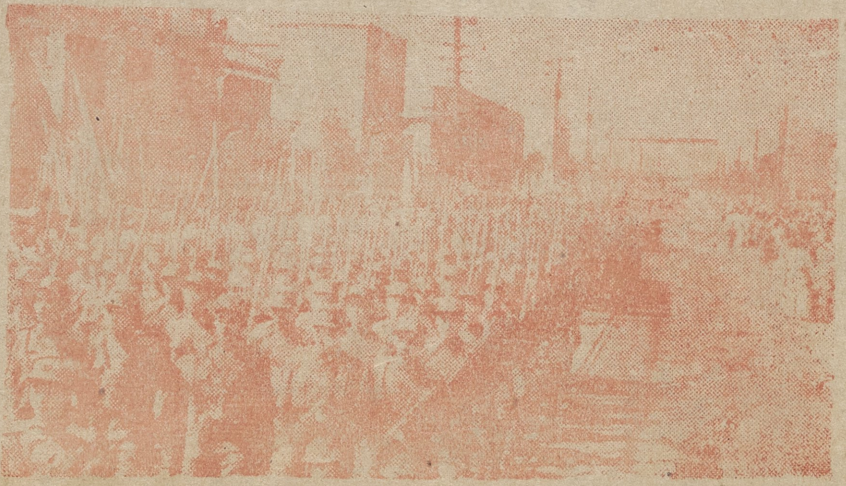
◁ 조국보위의 초소에 설을 청년들은 고상한 열의로 시작한다 ▷



◁ 砲台위의 늠름한 모습 ▷



◁ 쓰딸린 거리를 행진하는 오토바이 부대 ▷



◁ 행군도 당당한 모습들 ▷

청년생활 목차 1949—9호

報=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승리와 환희와 세결의로!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八·一五해방 四주년을 원수와의 투쟁으로 맞이하였다

조선청년들은 공화국 중앙정부를 높이 받들고 나아간다…유 충 록…(2)
조국보위후원사업에 애국적 헌신성을 바치자…지 창 익…(5)
九·一 학생절과 신학년도를 맞는 학생 청년들…강 북…(9)
동맹정치 교양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리 두 진…(11)

時事◈…
☆바다위에서 불작란질하는 자들…(15)
☆멸망에 직면한 리승만의 광태…(15)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단의 조직과 정치교양사업에 대하여…장 서 진…(18)
◈게오르기 저미뜨로브는 국제 로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김 만 규…(21)
☆표창에 빛나는 경비대동무들과의 좌담회…편 집 부…(24)

동맹생활란
※초급단체 지도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원산시 민청 고 룡 우…(28)
※청년군중들에 대한 문화사업을 이렇게 지도 하였다…학성군 민청 김 황 석…(31)

참고자료 ※청년들의 과학적 창조에 대하여…유·쥐다노브…(33)

현지보고
※谷山 광산 청년작업반원들…김 향 식…(38)
※풍성해 가는 마을…(강동군 승호면을 찾아)…송 철…(41)

☆자라나는 민주학원(6) 평양 제一녀자 고급중학교…정 숙…(43)
八·一五해방 四주년 기념 종합전람회 참관기…리 련…(51)
쏘련映畫「열바강의 상봉」을 보고…리 영 준…(46)
「내고향」관필역과 나…유 원 준…(49)

文 藝
수필 人民軍隊와 꽃다발…최 명 익…(53)
(詩) 한자루 白墨을 쥐고…조 령 출…(54)
勝利의 進軍…백 인 준…(56)
小說 學生日記에서…(2)…백 숙 역…(58)
가장 우수한 사람은 잊혀 지지 않는다(上)…강 정 희 역…(64)

新刊評 직장문학써클 詩集 "로동자의 노래"…(71)
군중문화 (詩) 영예…인민군대 김 승 걸…(71)
나는 나섰다…인민군대 황 주 찬…(74)
◈조선어문 통속강좌◈ 틀리기쉬운 말데(四)…박 송 주…(75)

공화국남반부에서는 8·15해방 4주년을 원수와의 투쟁으로써 맞이하였다



원수에 대한 적개심에 가슴 더 끓는다



오늘도 수十명 원수와의 싸움의 血路를 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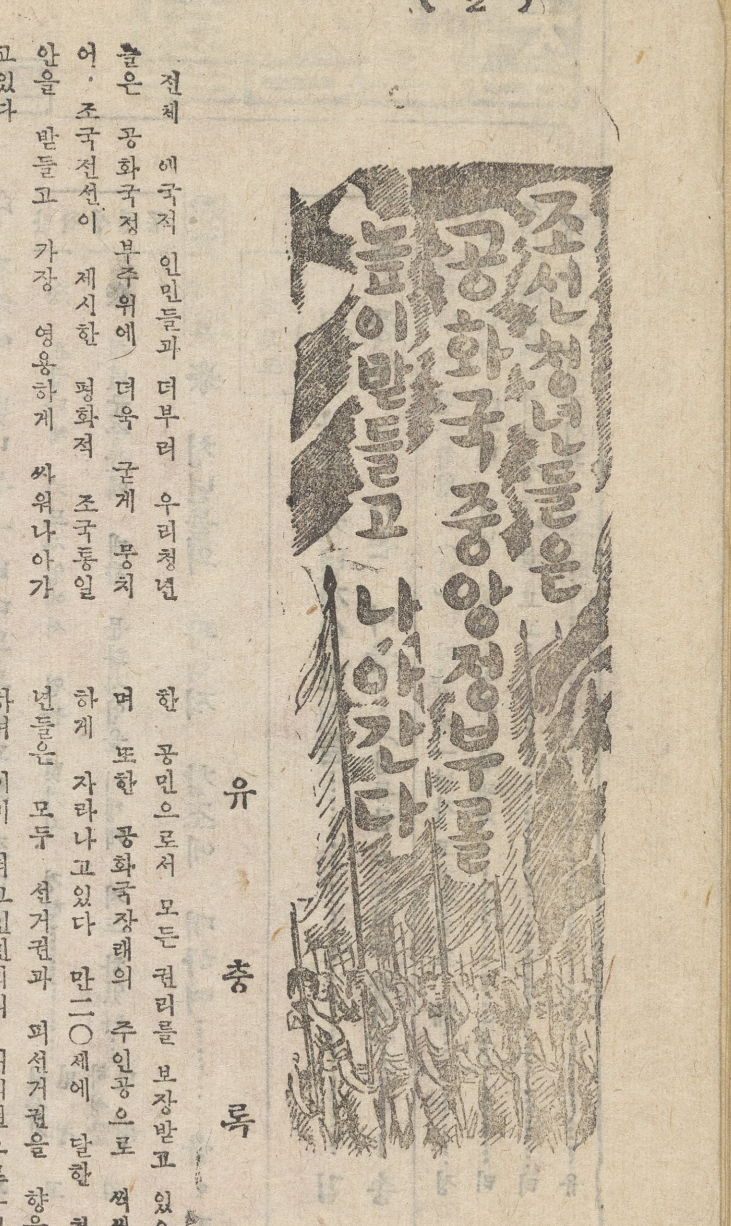


원수의 심장에 총을 겨눈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한자리에 모여 서로 기쁨에 넘쳤다



유 축 록

전체 애국적 인민들과 더부러 우리청년들은 공화국정부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어, 조국전선이 제시한 평화적 조국통일안을 받들고 가장 영용하게 싸워나아가고있다

북반부의 민주건설에서와 남반부의 인민유격전에서 청년들은 항상 전인민의 사랑과 찬양을 받아왔으며 이제 조국통일을위한 거족적 투쟁에서 우리청년에게대한 인민의 신임과 기개는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크다

이는 우리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고수하는데서 언제든지 충직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위한 투쟁에서 항상 용감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청년들의 이와같은 영예는 해방후 四년간 우리 청년들이 억센 민주역군으로 잘 교양훈련되었으며 또한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의 주구인 반동매국도당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련 장성되어온데 기인하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청년들은 떳떳한 공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또한 공화국장래의 주인공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만二〇세에 달한 청년들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여 이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부터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회 위원에 이르기까지 정권기관에 직접 참가하고 있음은 물론 기타 모든 국가기관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기관에서도 청년간부들이 다수 복무하고있다 특히 경제건설과 인민교육부문에서는 로동청년들을 선두로 우리청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의 가장 주동적 역할을 놀고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하는 중책은 전적으로 우리청년들에게 맡겨져있는 것으로 인민군대및 경비대에 복무함은 청년들의 가장 큰 영예로 되고있다

전체청년들은 인민정권의 비호하에 자가조직체인 민청에 망라되어 철저한 민주애국사상으로 교양훈련되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행복된 조건하에서 특히 로동청년들은 새로운 기술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으며 이미 각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운 로력방식인 청년작업반들이 고도의 생산률을 올리고있다 ―

토지의 주인공이된 농민청년들은 경지면적을 확장하며 토양을 개량하며 새로운 영농방식과 농사기술로써 해마다 수확고를 높이며 자기의 생활들을 개선 향상하고있다 또 민주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청년들은 아무런 불편도없이 완비된 시설밑에 선진과학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인재로서 준비되면서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우리청년들이 이렇게 ― 슬기로이 장성발전 할수있는 조건은 어디있는가? 그것은 두말할것도없이 인민정권이 수립되어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청년들에게 모든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준데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찬란한 북반부의 민주성과는 다만 북반부인민들과 청년들의 행복의 담보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공화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적 민주발전의 기초를 축성한것으로 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위대한 쏘련군대가 우리민족을 해방해주고 원조해주는 유리한 조건밑에 우리민족의 영웅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장군께서 우리인민들과 청년들을 옳바루 령도해주시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장군의 령도하에 북반부인민들은 토지개혁과 로동법령등 민주개혁을 실시한우에 인민경제부흥발전을위한 두번의

국가계획을 초과완수하고 다시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키위한 장엄한 증산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여기에서 이미 얻은 모든 민주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앞으로 조국의 통일발전의 기본을 밝혀놓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은 채택되었으며 이헌법에 기초한 八・二五총선거로써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전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열광적 환호지지로써 김일성장군을 내각수상으로 모신 공화국중앙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조선인민의 민족적 숙망이었던 이 력사적 승리는 이미 김일성장군의 二十개조정강에 명시되었던 민주조국창건의 대강을 전인민이 열성적으로 받들어 이를 충실히 리행한데서 달성된 것이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써 총화결속되었고 또한 공화국정부는 이를 공화국 남반부에까지 급속히 구현시킬것을 자기의 정강에 밝히고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공화국중앙정부는 전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의 절대한 지지를 받을뿐만아니라 이미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여러민주국가들로부터 승인을받고 그들과의 외교및 경제적 호상원조관계를 맺아 국제무대에 당당히 진출하고있다 이 사실은 또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리승만매국괴뢰도당들을 반대투쟁하는 남반부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지와 신심의 원천으로되며 승리의 고무자로 되고있는 것이다

정부정강이 발표되자 남반부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되어갔으며 조선인민의 승리의 신심은 더욱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남반부에 주둔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인 리승만매국도당들은 그발악적 흉책을 더욱 로골화해왔으며 강화해왔다

처음부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군사기지로 삼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원쑤인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을 자기의 주구로 삼아가지고 모쓰크바三상회의의 결정을 파탄시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두번의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쏘련의 공정한 제안인 량국군대동시철거를 거부하고 쏘련군대가 이미 철거하고 하등의 남아있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남반부에 계속주둔하고있는 것이다 놈들은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쏘련과 기타 민주국가들의 반대와 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절무시하고 비법적인 결정을 날조하여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의 원조하에 망국단선을 감행하여 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해내였다

오늘날까지 四년동안 그들은 남조선에서 군사적 경찰테로제도를 수립해놓고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의 자유권리를 박탈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파괴말살하여 인민을 기아와 공포속에 몰아넣고 이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인사들과 청년들을 무조건 검거 투옥 학살함으로써 남조선을 피비린내 풍기는 생지옥으로 만들고있는것이다

남반부에서 청년들의 처지는 더우기나 억울하다 모든 애국적 민주정당사회단체와 더부러 민주주의적 청년단체들은 강제해산당하고 모든 애국인민들과함께 애국청년들은 가장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단한가지 조건으로 인민이라는 말을하였다는 단 한가지리유로 청년들은 피살당하며 총살당하고있다

로동청년들은 공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방황하고 근로인민의 자제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학도들은 학교에서 쫓겨나 배움의길을 잃고 심지어는 나어린 소년들까지 공장과 학교에서 감옥으로 몰려가는 참담한 현실을 빚어내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청년들을 강제로 징발동원하여 미국무기로써 무장시켜 더욱 광포한 인민학살을 꾀하고있는 한편 三八선접경에 불의침공을 감행케함으로써 동족상잔의 내란까지를 도발하려고 흉책하고있다

미제와 그의주구인 매국역도들의 이와같은 만행과 망국책동은 날이갈수록 더욱 로골화되어가며 비렬해가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어떠한 발악과 흉책도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배격을 막지못할것이며 그들의 만행이 심해갈수록 인민의 적개심은 더욱 높아져 드디어 전면적 인민항쟁을 궐기시켰던것이니 원쑤들의 비렬한 테로에대하여 인민들은 정의의 테로로써 대항하여나섰다

오직 평화적인 파업과 시위만으로 원쑤들을 규탄하던 남반부인민들은 十월인민항쟁이후 제주도 무장봉기를 계기로하

여 직접 손에다 무기를 들고 원쑤 타도의 불길을 올렸던 것이다

인민유격전의 불길은 다시 며수 순천으로 번지어 오늘에는 벌써 남반부 전역에서 료원의 불길같이 확대되어 원쑤들의 멸망을 재촉하고있다

여기에 있어서 남반부 청년들은 인민의 지지를 힘의 원천으로 삼고 공화국북반부를 승리의 담보로 삼으면서 싸우는 인민들의 첫대렬에 나서서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상과같이 북반부에서는 조국의 통일적민주발전의 토대가 완성되었으며 남반부에서는 인민유격대들이 승리의 고함소리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강토는 여전히 광명과 암흑 발전과 파멸의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공화국의 통일적발전에 장해를 주며 조국의 자주독립에 위협을 조성하고있으니 미군철거와 리승만괴뢰정부타도는 전민족앞에 제기된 최대의 긴급 구국대책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국토완정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도를 내놓은 조국전선에는 정견과 신앙과 립장을 달리하는 전체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의 전구성원들과 전인민이 결속단합되어 그 강령과 선언서를 실천하기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전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국전선의 강령가운데는 공화국정부를 절대지지하며 정부의 시책에 협조할것이 명기되어있다 또 김일성수상의 연명으로 천명된바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를 접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이평화적 통일방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온갖 협조를 다하여』 주고있다

조선인민이 오늘 평화적방법으로써 능히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할수있는 토대를 이루어놓은것은 오직 공화국중앙정부가 있기때문이며 또한 이 거족적 구국대책이 능히 조선인민의 힘만으로써 실현될수있는것도 역시 중앙정부가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인민이 조국통일을 달성해나아가는길에서 이를 방해하는 자들을 능히 소탕할수있는것도 역시 김일성장군을 수반으로 모신 공화국 중앙정부가 엄존하기때문인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조선인민들과 애국청년들은 조국전선이 제시한 평화적 조국통일안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조국의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인민들을 항상 옳게 지도하며 외래침략자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공화국중앙정부를 더욱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전체조선인민들과 우리청년들은 우리민족의 민족적영웅이시며 공화국내각수상이시며 우리청년들에게 행복과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주신 김일성장군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서 나아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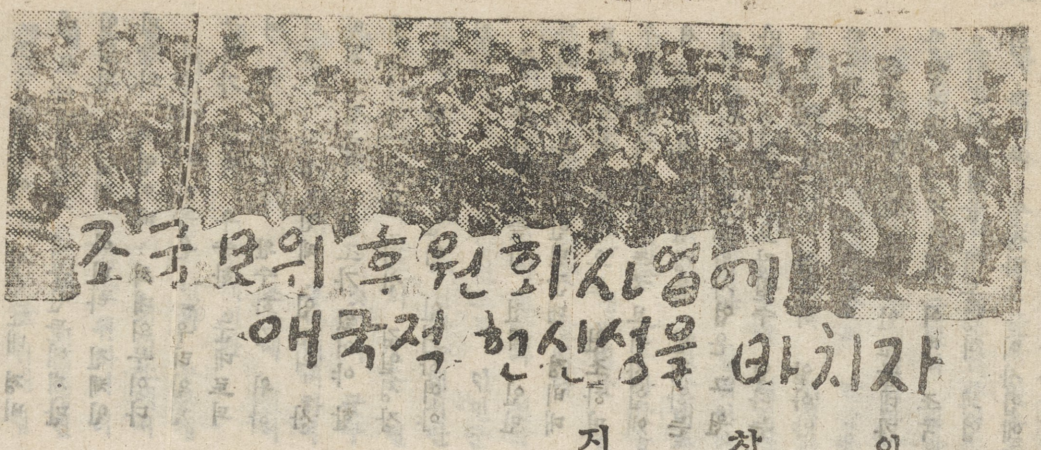
조국의 통일독립의 날은 닥아왔다 전체청년들은 다시한번 투지를 다지어 공화국중앙정부를 견결히 받들고 싸워나아가자

북반부에서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하여 보다 힘찬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남반부에서는 미군을 철거시키며 리승만괴뢰도당을 격멸하기위하여 더욱 영용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조국수호의 초소에선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원청년들은 북반부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민주건설의 성과들을 더욱 엄격히 고수하며 적들의 온갖 야수적 침해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더욱 견결히 수호하자!

최후 승리의 날은 닥아온다 조국의 통일독립완성을 위하여 모든 애국정열과 모든 충성심과 그리고 단결된 청년들의 민주위력을 총집중 총발동하자!

× × ×



조국보위후원회사업에 애국적 헌신성을 바치자

지 창 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토를 보위하며 인민들이 축성한 민주건설의 성과를 보위하기 위하여 후방원호사업을 강화하며 조국보위 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것을 그 목적으로하는 조국보위후원회는 지난 七월十五일 그 준비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전체인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속에서 이미 자기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인민적 사회단체인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은 오늘 우리조국이 처하여있는 정치정세하에서 가장 시기에 적절한 조직적 대책이다 그러기에 우리동맹원들은 물론 전체청년들은 다갈이 열성적으로 후원회회원으로 입회하였으며 입회하고있다

오늘 우리조국의 세력배치는 대립되는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고 있다

그 첫째는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분활예속화정책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주진영이며

그 둘째는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여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 반동진영이다

이 두진영간의 투쟁은 민주진영이 강화되고 승리하며 반동진영이 약화되고 패망하는 것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가 제시한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을 절대지지하여 이 방책의 실현을 위하여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반부 청년들은 북반부에 축성된 정치 경제적 토대를 일층 견고히 하는 투쟁에 애국적 열성을 다하고 있다

남반부 청년들은 파업 군중시위 무장투쟁등 각종방법으로 리승만 매국도당들을 타도하기 위한 더욱 치렬한 투쟁으로 영웅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이며 조선인민들의 반역자이며 매국역도인 리승만 도당들은 인민들과 청년들의 거센 력량이 장성되고 구국투쟁이 치렬하면 할수록 조국통일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며 내전도발과 동족상쟁도발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리승만 도배들은 인민들과 청년들을 발광적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남반부 각지역에 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구국투쟁을 진압하려고 한다 그들은 또한 귀중한 조선의 아들딸들을 인민학살 도구로 만들기 위한 소위 『병역법』이란 강제징병제를 조작하기에 광분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무기원조를 애걸복걸하고 있으며 북대서양동맹과같은 침략적 소위 『태평양동맹』조직에 광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리승만 도배들은 계획적으로 三八연선에서 도발사건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위 『호림부대』와 같은 테로집단을 북반부에 침입시켜 북반부 경제문화시설을 파괴하며 중요간부암살및 방화 독약산포등 흉악한 범죄를 진행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하고있다 매국도배들의 이러한 흉책은 항상 수치스러운 실패를 당하였나 그러나 놈들의 이러한 발광은 그들이 완전히 박멸당하는날까지 계속되리라는것을 우리청년들은 잠시도 망각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우리청년들앞에는 인민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고수하며 인민들의 창조적

모범을 보호하며 우리 조국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보위하여야할 과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엄숙하게 제기된다

조국보위사업은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원들과 내무원들에게만 일임된 과업이 아니라 전체인민들의 과업이며 최대의무이다 더우기 우리들은 「우리인민군대가 더욱 우수한 군대로되며 자기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전체 인민의 사랑과 적극적 방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라고 하신 김일성장군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우리청년들이 전체 인민들과 더부러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을 백방으로 원조하며 우리청년자신이 조국보위사업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는데서만이 조국보위사업은 그 원만한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우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 동맹원들은 인민군대가 창설되던 당시부터 이미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전동맹적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사업에 우리동맹원들이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전체 동맹원들은 이사업을 열성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동맹의 허다한 맹원들이 앞을 다투어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에 참가하였으며 적과의 전투에서 용감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국기훈장과 군공메달 및 우리동맹 모범맹원휘장을 수여받은 허다한 맹원들이 있다

또한 오늘 우리 동맹원들은 인민군대와 경비대에게 식량과 피복 일용품 기타 군수품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증강운동에서 거대한 역활을 하고있으며 로력협조 위안사업등 각종 방식으로써 군무자가족 후원사업도 광범히 전개하였으며 전개하고 있다

또 이뿐만아니라 우리동맹원들은 파괴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경각성으로써 놈들과의 투쟁을 견결하게 전개하였으며 인민군대 및 경비대들을 적극 협조하였다

七월三○일 내무성 보도에도 지적된 바와같이 강원도 린제군 三八경계선 청년들은 인민들과 더부러 리승만 매국도당들이 파견한 소위 「호림부대」를 적발소멸하는 투쟁에서 공화국 경비대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성원하여 거대한 공로를 세웠다

이외에도 우리동맹원들과 전체청년들은 공장 기업소 학교 기타 국가기관들을 원수들의 파괴방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주야로 분투하고있다

그러나 반동이 최후발악을하며 계속 고집하여 조국통일을 방해하고있는 오늘의 시세에서 우리청년들은 조국보위사업에서 이때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할수는없다

반동이 멸망할때에 온순하게 자기자리를 인민대중에게 넘겨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수없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멸망에 직면한 반동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멈추지않고 우리들에게 해독을 주려고 갖은 시도와 발악을 다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여야하며 이에대한 우리의 태세를 원만히 갖추어야 할것이다

즉 우리청년들은 조국보위사업과 특히 조국보위 후원사업에 온갖 열성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인민군대와 경비대를 더욱 강화하는 일은 반동도배들이 기도하는 민족분렬과 동족상쟁을 미연에 방지할뿐만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며 조국통일에 있어서의 결정적 력량을 강화하는 일로된다

그러기때문에 조국보위사업에 우리동맹원들이 열성적으로 참가하는것은 조국의 통일과 완전자주독립을위한 투쟁의 중요한 한 부분인것이다

「조국보위 후원회사업을 협조하라」는 전동맹적 구호의 중대한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동맹원들은 항상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조하여야 할것이다 즉 인민군대와 경비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직접 참가할것이며 또는 후방을 튼튼히 고수하는 사업에서 모든 열성과 온갖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조국보위는 후방이 반석같이 견고하고 인민군대와 경비대가 질적 량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야하며 우수한 무기로써 충분히 장비되어 있어야만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동맹원들은 첫째로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조선인민군대와 경비대의 강화사업에 물심량면으로 백방의 후원을 하여야 할것이다 물질적 후원이란 인민군대와 경비대에서 필요한 모든 군

수품들을 제때에 더 많이 확보해주는것을 말한다

「로동자들은 군인에게 훌륭한 병기와 군수품 군복 일용품들을 제때에 많이 제공해주어야 할것이며 농민들은 군인의 식량을 확보해 주어야 할것입니다」라고 하신 김일성장군의 말씀을 우리청년들은 철저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 말씀을 전심전력으로써 실천하여야 할것이다

정신적 후원이란 인민군대와 경비대에 복무하는 군무자들을 존경하며 군대와 경비대를 열렬히 사랑하는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우리청년들과 전체 인민들이 물심량면으로 인민군대와 경비대를 후원하는데서만이 군대와 인민들의 굳은 련계는 더욱 강화될것이며 군무자들은 견고한 후방에 대하여 마음놓고 자기의 초소에 전력을 경주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청년과 농촌청년들은 공장에서 기업소에서 농촌에서 생산증강을 위하여 더 일층 분투하여야하며 전체청년들은 군무자 가족들을 위해 협조하는 각종사업들을 더 광범하게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조국보위의 초소와 후방을 더 일층 굳게 련결시켜야 한다는것을 특히 강조한다

둘째로 우리동맹 맹원들은 조국보위를 위하여 인민군대와 경비대에 복무하는것을 고상한 영예로 알고 자각적으로 인민군대와 경비대 및 보안대에 복무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서 우리청년들은 과거 왜놈의 군대와 경찰에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식방법으로 우리의 인민군대및 경비대 보안대를 인식하는 경향을 일소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조국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보위하는 인민들의 무력인것이다 진정한 인민의정권만이 우리청년들에게 온갖 권리와 자유를 확고부동하게 보장하여주고 있으며 우리청년들의 창조적 로력을 보장하여주며 행복한 처지를 보장하여준다

어떤 다른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오늘 우리와 같은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차지할수없다

그러기때문에 우리청년들은 자기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무한히 사랑하는것이다

그러나 인민의 군대가 없다면 누가 이 조국을 보위하겠는가?

인민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서는 사랑하는 자기조국과 인민들을 원쑤들로부터 수호하며 그들을 방어하고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청년들이 사랑하는 자기조국을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는것이야말로 백번도 정당한 일이며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우리청년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인민군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온갖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호하며 우리청년들의 모든 창조적 로력을 보호하며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인민의 무장력인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이와같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민군대에 우리청년들이 참가하는것은 공화국 공민으로서 또 공화국의 청년으로서 최대의 영예인 것이다

공화국 헌법 제二八조에는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인 동시에 최대 영예다」라고 뚜렷이 기입되어 있다

전체청년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인민군대 경비대 및 보안대에 복무하여야 할것이다

세째로 우리청년들은 선진적 군사지식을 열성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조국보위사업이 인민군대 경비대에게만 일임된 과업이아니고 전인민적 사업인만큼 군사지식 습득도 또한 전체 인민들과 특히 우리청년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선진군사지식은 강력한 군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군사지식에대한 초보적 인식도 없이는 인민군대 경비대를 원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초래하게 될뿐만아니라 어느때 어느곳에서든지 인민군대와 경비대에 복무할수있도록 원만히 준비될수 없는것이다

우리청년들이 습득하려는 군사지식은 반동도배들의 동족상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들이 축성한 건설을 수호하는데 복무하는 그런 군사의 지식이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교에서 가두에서 우리청년들은 생산과 교양을 위하여 발휘한 그와같은 노력을 군사지식 습득에 바처야 할것이다

네째로 우리청년들은 조선인

민군대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지식과 새로운 발명으로써 공헌하여야 한다 선진적 과학지식과 새로운 발명은 우리의 인민군강화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수하고도 위력있는 무기는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하는 유력한 조건의 하나이다

위대한 조국전쟁시 쓰딸린그라―드격전에서 쏘련의 최신무기『까츄―샤』포가 악독한 독일파시스트군대를 전멸시키는데 거대한 공훈을 세웠다는것만 생각하여 보아도 조국보위사업에서 과학지식과 새로운 발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비할수없이 큰것이다

우수한 무기는 새로운 과학발명에 의거하는것이며 새로운 과학발명은 전체인민들이 특히 우리청년들이 선진적 과학지식을 더많이 더 심오하게 습득하는데서만이 달성되는것이다

특히 항공과학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청년들의 역활이 빛나게 전개되어야 할것이다

다섯째로 우리청년들은 온갖 반동분자들의 파괴음모로부터 직장 및 농촌과 학교와 국가재산을 방위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정치적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견결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쓸어져가는 반동진영은 각종 형태로써 민주진영을 파괴약화시키려고 발광한다는데 대하여 우리들의 경각성을 더욱 날카롭게 돌려야 한다 반동들은 단지 정면으로만 우리민주진영에 대항하는것이 아니라 후방교란공작을 항상 시도하고있는것이다

반동도당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나날이 공고화하여가는 정치경제적 토대가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쓰러넣는 무진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려고 각종 비렬한 수단을 사양하지 않는다

해주테로단사건 「호림부대」사건 혹은 최근에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최원복일당의 파괴음모사건들은 쓸어져가는 반동진영이 로골적으로 최후발광하고 있다는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여준다 그들은 이와같은 파괴음모로써 민심을 소란스럽게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토대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없이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반동들의 이러한 음모가 한뽐도 실현되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三八선연선지대에 있는 동맹원들과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 내무원들을 협조하여 반동들이 파견하는 파괴음모단이 한놈도 북반부에 기어들지못하도록 철벽같은 방비진을 쌓아놓아야 할것이다

또한 로동청년들은 자기가 일하는 공장을 농촌청년들은 수로와 양수장과 현물세창고를 학생청년들은 자기의 학교를 놈들의 파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자위대들을 조직하고 더욱 열성적으로 높은 경각성과 책임감으로써 국가재산보위운동을 조직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청년들은 고귀한 우리의 국가재산들을 반동들이 털끝만치도 다치지 못하도록 수호하는 투쟁의 모범부대가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청년들은 어느때 어느곳에서든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 일거일동을 복종시켜야 할것이다

조국보위는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에대한 우리청년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가장 고상한 영예이다 우리청년들은 영예로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조국에대한 최대의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할수 있도록 항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생명이 요구되는때에는 생명이라도 서슴치않고 바치는 용감하고도 애국적인 투사로서 준비되어 있어야한다

우리청년들은 인민들이 승리하고 반동이 멸망하는 시기에 살고있으며 조국통일이 목전에 절박한 가장 엄중한 시기에 처하여 있다

인민들의 힘이 강대할때만이 우리들은 원쑤들을 철저히 박멸할수 있으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권리 자유 행복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수 있는것이다

우리인민들의 힘은 강대하다 그러나 이 힘을 더욱 강화할것을 오늘의 조국정세는 요구하고 있다

공장과 농촌에서 학교와 과학연구실에서 어데서든지 우리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위한 우리들의 힘을 가일층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층 분투하여야한다

이리하여 승리의 자신심을 더욱 튼튼히 가지고 우리민족의 령도자이시며 항일무장투쟁의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주위에 철벽같이 단결하여 하루속히 우리조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치하에 통일시키기위한 투쟁에 용감히 전진하자

―끝―

九·一학생절과 신학년도를 맞이하는 학생청년들



강 북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전체학생청년들은 한층 새롭고도 드높은 기개와 감격속에 창조적인 건설과 투쟁의 생활을 이룩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로서 공화국의 젊은 애국자로서 언제나 빛날 우리조국의 앞날에대한 무한한 희망과 함께 조국에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성으로 충만된 학생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이 부과한 영예롭고도 고상한 임무의 수행에 끓어넘치는 애국적 열성을 다바치고있다 더우기 해방후 四주년이되는 오늘 지난학년도의 빛나는 제성과를 총화한 토대위에서 새학년도와 학생절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고조된 감격과 환희에 넘치는 열정은 비길데 없이 고귀하고도 아름다우며 그속에 힘있게 맥박치고있는 견인한 투쟁적 의욕과 창조적 로력에대한 무한한 동경심은 젊은세대의 믿음직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해방후 네번째로 학생절과 새학년도를 맞이하는 오늘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는 그어느때보다도 첨예화하고도 엄숙하다 국토를 완정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인민들과 청년들의 열화같은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남북을 막론하고 전체인민들은 공화국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 전선산하에 철옹성같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리승만 반역도배들의 온갖 흉책을 과감히 뭇찌르면서 장엄한 전진을 계속하고있다 우리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이미 건설하여놓은 위대한 민주승리의 튼튼한 기초위에 인민교육 문화부면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전체청년들에게 과학의 전당에로의 광활한 진로를 개척하여주었으며 행복한 학생생활을 보장하여 주고있다

오늘 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는 전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배움에대한 한없이 큰 희망을 마음껏 충족시켜주고있다 최고학부로부터 전문 고중 초중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학교망과 一九五○년도 부터의 초등 의무교육제실시는 우리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달성한 교육문화의 거대한 장성발전을 증명하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각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에서는 조국과 인민에게 애국적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로운 인재들을 육성하고있다 그들은 오늘 우리공화국의 각급학교에서 참된 주인공으로서 힘있게 육성되고 있으며 인류가 축적한 고귀한 문화적 유산을 계통적으로 교육교양 받고있다 이와같이 행복하고도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마음껏 선진과학 리론과 기술습득에 매진하고있는 북반부 학생청년들의 생활은 해방된 민족의 새생활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으로된다

전체학생들은 조국과 인민이 부과한 영예롭고도 고상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 심오하고도 건전한 과학을위한 투쟁에서 학생들이 발휘하고있는 영용성은 학생청년들의 조국과 인민에게대한 헌신성과 고상한 감정을 말하여주는것이며 생기있고 명랑하며 문화적 소양이 그득한 학생청년들의 일상 생활과 정치적 사상적 긴장성의 제고를위한 완강하고도 견인한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제반성과들은 해방후 四년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뜨거운 부름에 호응할 정치사상적 준비성이 얼마나 견실한가를 증시하여주는것이다

북반부의 전체학생들은 창조적 로력의 과정에서 더우기 오늘 조국의 엄중하고도 찬란한 력사적인 전변의 위대한 시기에 자기들의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고있다 九월一일 학생절은 북반부 전체학생들의 가장크고도 영예로운 전통적인

명절이다 학생들은 一九四六년 이래 해마다 이날을 가장 큰 명절로서 기념하여 왔으며 이 날을 영광스로운 승리와 투쟁의 날로서 맞이하였다

새학년도는 九월一일부터 시작된다 새학년도는 一九四八년도의 빛나는 성과들을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공화국의 교육문화사업에서 더한층 찬란한 개화 발전을 힘있게 예견하는 학년도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체학생들의 새학년도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승리와 투쟁을 약속하는날로서 맞이하고 있으며 더욱 억센 우리조국의 양양한 앞길과 불가분리로 련결된 학생들의 넓고도 자유로운 앞날에대한 원대한 희망과 무한한 감격으로써 맞이하고있는 것이다

금년도 九•一 학생절과 새학년도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로 전체학생들이 오늘 조국에 조성되고있는 첨예하고도 엄숙한 정치정세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인식하여야할 것이며 공화국에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과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 복무할 투쟁적 결의를 더욱 백배로 제고하여야할 것이다 일찌기 동맹 제三차 대회에서 김일성 장군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하기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할 것이다 우리조국은 통일독립사상 그어느때보다도 가장 장엄한 력사적 순간에 처하여있는 것이다 전체청년들과 학생들앞에는 더욱 무겁고 어려운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독립과 우리공화국의 영원한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장래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이 부를때 승리에대한 확고한 신심밑에 전체 학생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견결한 투쟁성, 영웅성, 백절불굴의 의지력을 남김없이 발양하게끔 정치사상적으로 준비하고도 무장하여야할 것이다

둘째로 학생청년들의 고상하고도 영예로운 국가적 동맹적 임무는 과학탐구의 길에서의 창조적 성과를 달성하는 문제이다 온갖 분야의 과학을 성과있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열성으로써 견실하게 학습하여야한다 과학탐구의길은 결코 평탄한 대로가 아니다 『과학을 소유하기위하여서는 완강하고 인내성있게 배워야한다』 (쓰딸린) 우리공화국에서 오늘 과학이 수행하고있는 고상한 역할과 금후 우리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과학이 담당할 임무와 및 그에따른 과학탐구자들의 영예롭고도 고상한 책임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인식하여 본신임무인 학업을 위한 투쟁에서 온갖 열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할 것이다

조국과 인민을위한 과학탐구의 투쟁은 그것이 곧 조국을위한 투쟁과 련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애국주의사상의 표현으로 되는 것이며 선전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길로 되는 것이다 새학년도는 학습을위한 투쟁에서 더욱 무겁고 커다란 과업을 학생청년들에게 제시하여주고있다 그러기때문에 전체 학생들은 더욱 끓어넘치는 열성으로써 과학탐구의길에서 학과생산의 더 높은 제고를위하여 견인하고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할 것이다

셋째로 학교내 동맹사업은 학교 교육사업과 불가분리의 관계로 되어있다 학교내 동맹사업에는 아직 적지않은 결함들이있다 새학년도와 九•一절은 전체 학생청년들에게 학교내 동맹사업에서 더높은 발전을 위한 새롭고도 완강한 투쟁을 요구하고있다 새학년도 학교내 동맹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력히 제기되는 중심방향은 학생청년들의 사상적 긴장성을 철저히 제고하며 또한 학업성적을 높이며 학교내 동맹단체에 가장 혹심하게 존재하고있던 관료주의적이며 기계적인 사업작풍을 근절하며 학생들의 동맹사업과 동맹생활에대한 자각적 열성과 동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의 고상한 감정을 배양하여 동맹사업의 주인으로서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는데 중심을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학교내 동맹사업의 개선 강화 발전을 위한 완강하고도 견인한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함은 새학년도에 특히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업인 것이다

네째로 우리조국의 해방자이며 자주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방조자인 위대한 쏘련과 쏘련인민과 그의 천재적 수령이시며 전세계 청년학생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고있는 위대한 쓰딸린 대원수에 대하여 끓어넘치는 감사의뜻을 제고하여야할 것이다 전세계 민주청년들과 특히 그선봉에 서있는 위대한 쏘련학생 청년들과의 친선을 더한층 강화하며 자유와 평화의 성스러운 깃발아래 원쑤들의 온갖 흉책을 타도 분쇄하는 투쟁에서 그 혈연적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학생들이 오늘의 행복한 새생활에대하여 더욱 철저히 인식하며 공화국 내각수상이시고 민족적 영웅이시며 청년학생들을 항상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인도하여주시는 김일성장군 주위에 더한층 튼튼히 단결하여 원쑤들을 타도분쇄하며 조국통일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의 마당으로 더욱 영용하게 나가야 할것이다 학생절은 학생들의 가장 크고도 자랑스러운 전투적 명절이다 학생절은 승리의 명절로서 새로운 힘찬 투쟁의 명절로서 기념되어야 할것이다 새학년도는 학생절과함께 시작된다 새학년도는 학생청년들앞에 더욱 무겁고도 어려운 동시에 영광스러운 국가적 동맹적 새과업들을 엄숙히 제시하고있다

전체학생청년들이여! 영광스러운 이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더한층 용감하게 앞으로!

전체인민들과 청년들의 조국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장엄하고도 엄숙한 투쟁대변에서 힘차게 앞으로

동맹 정치교양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리 두 진

오늘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위한 전체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이 결정적단계에 들어선 환경하에서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선진과학리론으로 무장한 용감한 투사로 육성하기위한 우리동맹정치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위한 문제는 동맹의 가장 중요한 전투적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우리의 투쟁환경이 복잡하여지면 질수록 우리청년들의 투쟁과업이 증대하여지면 질수록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투쟁마당에로 고무추동하기위한 동맹정치교양사업의 의의는 더욱 심대하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교양사업에서의 질적제고 문제가 더욱 더 간절하게 요구되는것이다

실로 청년들을 선진적 과학리론으로 무장시키며 조국에 대한 헌신성과 충성의 정신으로 교양함이없이는 그들을 원쑤타도를위한 투쟁과 인민경제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에 성과있게 조직동원하지못할것이며 동맹이 조국앞에서 맡은바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없다

일찌기 우리민족의 절세의애국자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 수상께서는 우리동맹 제三차대회 석상에서 민청의 기본과업은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위한 정치교양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교양사업에 대한 중심방향을 동맹에 지시하시였던것이다

그러나 얼마전 자강도민청단체들에 대한 검열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동맹원들에대한 교양사업을 부분적단체들에서 아직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는것이 발로되었다

오늘 우리동맹사업에서 일시적 어떤 깜파니아사업과 기타의 구실들로써 동맹원들에대한 정치교양사업에 동맹적중심력량을 경주하지않거나 또는 그를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것처럼 동맹사업의 기본정신과 모순되는 것은 없다

동맹정치교양사업은 항상 그것이 동맹의 정치경제적 기타 모든 과업수행을위한 기본적고리로서 강력하게 진행되어야하며 형식적이며 깜파니아식으로서가 아니라 높은 질적수준에서 계통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청년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추동하며 제반 동맹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할수있다

지난 二월에 진행된 우리동맹 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는 동맹정치교양사업에서 존재하고있는 결점들을 시정하고 교양사업의 질을 개선강화할데대한 구체적 과업들을 결정하였다

그후 동맹중앙상무위원회는 교양체계를 개선하며 학습회의 수준별 조직에대한 방법과 유일한 제강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함과 함께 지방동맹단체들의 적지않은 노력의 결과로 오늘 동맹교양체계가 기본적으로는 동맹원들의 요구와 그들의 의식수준에 적합하게 조직정비되었다

동맹간부들의 리론 및 사업상 지도수준을 제고하기위한 중앙 및 도 단기강습회와 초급단체학습회 강사들을 위한 시 군강사강습회가 조직운영되며 동맹원들의 의식수준에 의하여 상 하반별로 조직된 초급단체학습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맹강연사업 군중문화사업등 각종형식으로되는 교양사업이 초보적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동맹정치교양사업에서 적지않은 전진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동맹정치교양사업은 이러한 체계와 회수등 그형식만으로써 평가될것이 아니라 그질적 수준여하로써 평가되어야하며 이와같은 견지에서 볼때 우리동맹정치교양사업은 동맹이 요구하는바 수준과는 심히 그거리가 아직 멀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동맹교양사업에서의 새로운 질적앙양을위한 문제에있어서 우선 지적하여야할것은 동맹원들에대한 교양에서 그 기본적 체계로 되고있는 초급단체 학습회 사업에대한 문제이다

오늘 동맹내 부분적 단체들에서는 초급단체학습회의 상 하반조직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있으며 학습회조차 농번기 기타 각종 구실로써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지않고 있는 사실과 학습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매월 제강을 二、三일간씩 계속돌격식으로 취급하여 형식적으로 학습회 회수만 채우려는 경향과 또는 초정의 제강을 취급하지않는등 사실들이 있다

이것은 해당동맹단체들의 지도상 엄중한 결함과 아울려 또한 부분적 초급단체위원장들이 학습회 사업을 학습회강사에게만 일임할뿐 그에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등 사실로부터 출발되는 결함으로서 이와같은 엄중한 현상들에대하여는 제때에 강력한 시정대책이 나서야할것은 두말할것도없다

나음으로 초급단체학습회 사업에있어서 가장중요한 기본결점의 하나는 학습회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구체적 설명이없고 다만 난해한 문구로써 필기전달(그나마 불충분하게)에만 그치는것으로서 동맹원들의 요구에 수응하지못하며 현실적 투쟁과업과 결부시키기는커녕 학습회에 참가하여도 무엇을 들었는지 맹원들이 알지못하는데있으며 이결점은 또 학습회 참석들이 낮은 원인으로되고있다

학습회제강이 충분히 검토된 조건하에서는 이와같은 결함들은 주로 초급단체학습회강사의 정확한 선택및 교양이 부족한데 그 기본원인이있다

부분적 시 군민청단체들에서는 학습회강사를 전혀 정치적 준비가없고 열성이 부족한동무로써 배치하거나 학습회강사 강습회조직을 면급단체에 일임함으로써 심중한 준비가없이 그리고 그내용이 극히 빈약하게 형식적으로 조직하는 실례들이 적지않게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동맹각급단체들에서는 학습회강사의 선정배치와 그교양과 지도사업에 예리한 주목을 돌려야한다

강사강습회는 반드시 시 군민청단체들의 일정한 상무위원회계획에 의하여 시 군위원장을 비롯한 시 군전임강사 또는 유능한 지도원들의 직접적 지도하에 면과 생산직장등 현지에서 학습회 상 하반강사별과 지역상거리관계를 참작하여 세분하여 조직함으로써 전체 학습회강사들을 망라시킬것이며 여기에서는 해당제강에대한 구체적 해설을줌은 물론 학습회지도시에 학습제강에대한 보충적 설명이 어떤것으로 되어야하며 청강자들과의 질의문답과 토의정도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며 현실 제투쟁과업과는 어떻게 결부시켜야하며 또 학습회뿐만아니라 일상적으로 동맹원들의 학습을 어떻게 방조하여야하며 기타 강의방법상 경험들이 충분히 토론되여야한다

동시에 시 군민청단체들은 한번강습회를 조직만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항상 학습회강사들에대하여 리론적및 방법적원조를 강연사업 기타 각종기회를통하여 주어야하며 매시기에 제기되는 정책문제와 투쟁과업들을 제때에 학습회사업에 결부시킬데대한 지도를 주어야한다

우리동맹정치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동맹강연사업 문화사업 출판물十독사업 초급단체총회에서의 정치시사보고등을 학습회사업과 옳게 련결시켜 진행하는데있다 그것은 一개월에 二회씩박에 조직되지않는 학습회만으로써 동맹원들에대한 교양사업을 도저히 원만하게 감당할수 없기때문이다

동맹강연사업은 동맹원들에대한 교양에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오늘 부분적 단체들에서는 강사반조직은 형식뿐이며 또는 동맹간부들이 강연에 출연하지않는등으로써 동맹강연사업을 전혀 진행하지않거나 또는 구체적계획과 준비없이 형식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서 진행하고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동맹중앙이 제시하는 재료에 근거한 동맹강연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그질적개선을위한 과업이 각급 단체들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이며 이에 결부하여 총회에서의 정치시사보고의 수준제고문제가 역시 중요하게 제기된다

오늘 문화사업 선동사업도 그지도체계가 확립되고있지못한데로부터 역시 극히 락후상태에 처하여있음으로써 이부면에 있어서도 각급단체들의 심각한 주목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특히 지적하여야 할것은 오늘 대부분 시 군민청단체들이 동맹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에대한 무관심성이다 그것은 평남 양덕군민청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청년생활』과 『민주청년』등 동맹출판물들을 동맹원들이 구독하게하는 사업을 전혀 조직하지않는 사실로써 설명된다

오늘 동맹중앙은 동맹출판물사업에대하여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그것은 출판물이 동맹원들에대한 교양사업에서 거대한 방조적역활을 놀기때문이다 그러기때문에 각급동맹단체들에서는 모든 동맹출판물이 제때에 동맹원들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사업을 조직하여야하며 그것을 매개 동맹원들이 일상적으로 열람하여 학습에 방조가되도록하는 사업에 보다 심각한 주의를 돌려야한다

오늘 동맹출판물이 부분적으로 동맹원들의 요구에 민첩히 수응하지 못하고있는것도 사실이니만큼 이에대한 시정대책도 동맹중앙의 지도하에 관계일군들로부터 강구되고있으며 앞으로 더욱 완강하게 강구되어야할것이다

동맹교양사업의 질적제고문제에서 또한 지적하여야할것은 이상과같은 각종형식의 교양사업체계가 잡히고 그내용이 초보적으로 제고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동맹교양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말할수없는것이다 왜냐하면 동맹교양사업은 그형식과 회수나 또는 명제를 다만 「교리」처럼 외계하는데 그본질이있는것이 아니라 교양사업의 중심문제는 우리가 진행하는 동맹원들에대한 교양사업의 정치사상성에 달려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문제와 결부되며 청년들을 어떻게 투쟁에로 추동하는가하는데 달려있기때문이다

동맹교양사업은 그것이 현실적 동맹투쟁과업과 련결되며 그투쟁의 산 무기로 되지않고 단순한 「교리」나 「말공부」로써 그친다면 동맹교양사업의 근본적의의를 망각하는것으로된다

오늘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세는 심히 복잡 첨예하며 미군완전철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력량앞에 「인간백정」으로 화하고있는 리승만도당들의 최후심판을 받을날도 박두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동맹정치교양사업은 오늘의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에대한 충성의 정신으로 원쑤들에대한 고도의 경각성과 증오의 정신으로 위대한 쏘련을 수위로하는 전세계 자유애호국가 인민들과 청년들과의 굳은친선의 정신으로 우리의 인민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리고 승리에대한 확신성으로 교양함으로써 청년들을 김일성수상과 공화국수위에 강철같이 결속시켜 인민경제전설과 원쑤타도를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고무하며 조국의 통일독립을위한 위업에서 젊은 애국자의 역활을 다하도록함에 그중심을 두어야하며 동맹교양사업의 성과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평가되어야한다

동맹정치교양사업에서 각계층청년들에대한 구체적 지도사업과 그지도력량배치문제가 그질적제고문제에있어서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 기타 각계층청년들의 년령과 감정과 의식수준과 실지생활및 투쟁환경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모든것을 고려하여 그에알맞게 동맹교양사업은 지도되어야한다 동시에 지도력량배치에있어서 오늘 적지않은 단체들이 녀성청년과 학생청년및 특히 로동청년들에대한 교양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고있는 결점을 시정하여야할것이다

농민청년들과 기타 모든 청년들에게도 그러하지만 객관적 모든 조건으로 보아、특별히 로동청년들에대한 교양사업에있어서 학습회 기타를 통한 교

양사업과합께 로력과 건설에서 교양하는 사업에 더욱 심각한 동맹적 주목을 돌릴 필요가있다 로동을 사랑하며 로력과 건설을 통해서 검열됨으로써만 청년들은 학습한 제반 진리를 완전히 자기것으로 소화할수있으며 애국적 투사로서의 자기자체를 원만히 준비할수있다

청년들을 로력과 건설에서 교양하다 함은 청년들로 하여금 로동을 사랑하도록하며 기계와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줄알며 생산능률을 비상히제고하며 원가를 저하시키며 물자를 애호할줄아는 훌륭한 건설자로 교양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은 선진적 작업방법과 과학기술을 습득시키기위한 기술교양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것은 동맹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위한 이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는 동맹강사들과 간부들이 현실투쟁과업과 결부시켜 맑쓰레닌주의를 부단히 연구하며 정치리론수준과 사업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그것이다

우리동맹간부들이 맑쓰—레닌주의로 무장하지못한다면 동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며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있게 완수할수없을것은 두말할필요도없다 위대한신 쓰딸린대원수께서는 일찌기 간부들에대한 교양사업을 강조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모든 사업부문의 인재를 사상적으로 준비시키었고 국내및 국제환경에대하여 그들이 자유로 방향을 정하기에 능숙하도록 정치적으로 단련시키었다면 만일 우리가 그들로하여금 국가령도문제에있어서 심오한 파오가없이 해결하기능한 완전히 성숙한 맑쓰—레닌주의자로 만들었다면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의 十분지九는 해결되었다고 인정할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게되었으리라는것을 자신있게 말할수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동맹간부들에대한 이러한 교양사업에있어서 비록 단시일간이지만 중앙및 도 단기강습회가 중요한의의를 가지는것인만큼 그질을 제고하기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할것은 물론이다 오늘 동맹간부들이 맑쓰—레닌주의로 무장함에있어서 가장 기본적 방법은 중앙위원회제三차회의결정에 지적된바와같이 무엇보다도 자체학습인바 그것은 비상한 노력과 또한 서적을 계통적으로 완강하게 연구할것을 요구한다 쓰딸린대원수께서는 『건설하기위하여서는 알아야하며 과학을 소유하여야할것이니 알자면 배워야한다 공부는 완강하고도 참을성있게 해야한다』하고 말씀하시었던 것이다

동맹강사들과 간부들은 자체가 습득한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실지투쟁과업에 적용시켜 정치교양사업에대한 계통적인 지도검열사업과 원조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집행함으로써 동맹정치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 보장하여야한다 계통적이며 고상한 지도검열이없이는 동맹교양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시킬수없는 것이다

동맹정치교양의 질적제고를위한 이상 모든 문제들은 그것이 련관성있게 추진됨으로써만 소기의성과를 거둘수가 였는것이다

각급단체들은 동맹정치교양사업에 보다 큰력량을 집중하며 동맹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위한 동맹적 요구에 수응하도록 왕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할것이다

북조선 인민들의 성과는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독립국가가 어떻게 급속히 발전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모범으로 된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결성대회 선언서에서)

시사해설

바다우에서 불작란질 하려는 자들

소위 "태평양동맹" 조작에 대하여

물에서는 어미 발붙일곳도 없이 쪼들린자가 바다에서 활로를 구해보려함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어류(魚類)에 속하지않고 륙서동물(陸棲動物)에 속하는이상 물에서 자기생명을 구해낼수는 없다 더우기나 그들이 동족상잔의 내란과 새전쟁의 도발을 일삼는 불작란군들이며 이제 그 불작란질을 태평양우에서 떠놓으려는데서 그들의 운명은 파멸로 락인되어있다

이와같이 락인받은 운명의 소지자가 다름아닌 장개석이며 리승만이며 또 그들의 동족인 퀴리노같은 미제의 주구배들이다

이들은 똑같은 매국노이며 똑같은 미제의 주구로서 각각 인민의 준엄한 단죄앞에 끓어져가는 자기 목숨들을 건져보려고 드디어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태평양동맹이란것을 조작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동맹이 『주구동맹』이며 『패망자동맹』이라고 불리우는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장개석—퀴노리회담으로 이동맹조작이 구체화됨을 기뻐 맞이하는 리승만이가 『우리들의 공동의 적은 공산주의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큰 산화(山火)가 되기전에 이를 방지하려면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산림속에 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이 모든 투쟁에 참가하여야 할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위협하는 불뎅이로 인하여 타버리고 말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린데서도 잘 증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동맹의 조작과정은 몹시 까다로운것이 있다

이 동맹의 조작을 제일 먼저 서둘은자는 리승만이다 다가치 미국주인에게 二十년씩 길리워온 중에서도 직접 주인의 턱밑에 붙어서 자란 리승만이가 고작 먼저 이것을 제의하였다는 것은 과연 재낭스러운일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즉 미제의 충견이요 조선인민의 원쑤로서 전인민의 거족적 배격아래 멸망이 박두한 로구 리승만은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주인에게 구원을 애걸하면서 미제가 지도하는 대서양동맹과같은 태평양동맹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하였던것이나 이것은 인민의 배격앞에 멸망하면서있는 미제앞잡이들의 공통한 욕망이었으며 일치한 심사이었다

그러나 미제의 쇠사슬에 얽매어 『산화』

멸망에 직면한 리승만의 광태

매국과 인민학살로써 미국주인앞에 꼬리치며 날뛰는 리승만은 이제 조국전선 선언서를 받들고 『미군철거』『리승만 괴뢰정부 타도』를 웨치며 일어난 전체인민의 마지막 단죄의 불길앞에서 렴종의 발버둥을 치고있다

평화적 조국통일이 시간문제로 된 오늘 그는 미국주인으로부터 다시 一억五천만딸라의 돈과 四十만명을 무장시킬 무기를 청구하여 남반부에서 인민도살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三八선에다 무력을 증강함으로써 동족상잔의 내란을 도발하는 불법침공행위를 자행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남반부에서의 인민유격대가 날로 승세하여가고 三八선지역에서의 치명적타격이 거듭된 결과에 자기발판이 문어져나감을 보게된 리승만은 드디어 『병역법』을 날조하고 『동원령』을 발표하여 청년들을 동족상살의 죽음터에 몰아냄으로써 인민들을 피의 바다에 잠그려고 날뛴다

그러나 또한 소위 『국군』내부에서 폭동과 의거를 감행하여 인민의편으로 넘어와 매국역도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는일이 속출하게되니 리승만은 또다시 『헌병령』이라는것을 날조하여 자기군대내에

보다도 더 무서운 구국투쟁의 불길속에 포위되어있는 리승만이보다 미국주인과 더부터 중국대륙에서 쫓겨난 패망매국노 장개석이가 더욱 배따메 무대 전면에 나타난것은 또한 당연한 순서이다 또 그들이 륙지우에서는 발붙일곳 조차 없어진 오늘 태평양 한복판에있는 비률빈을 무대로 삼은것 그리고 이 비률빈이야말로 벌써 五十년전에 미국의 목장(牧場)으로 되어 퀴리노같은 반역자가 대통령으로 자기선배들의 매국전통을 고수하고있는 곳이니만큼 가장 적당한 장소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한 장개석이는 이 「서글픈 희극」의 주인공으로 자격이 충분했지만 이미 태평양상의 류랑객으로 전락된 신세이라 「여는 제二차대전을 통하여 한편이되어 싸운 비률빈의 옛친구이다 그리고 독립된 비률빈공화국을 미국에 이어 승인한것은 중국이다」 라고 호통은 쳤으나 퀴리노대통령이 「만약 장개석총통이 비률빈에 망명지를 구한다면 우리는 거절할수없다」 고한 퀴리노를 자기보다 웃자리에 앉히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중공군이 대만을 석권할 경우에 국민정부를 비률빈으로 이동」 하지 않으면 안될판이니 리승만이가 말한대로 이 동맹조작에서는 「비률빈이 주동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지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동맹의 조작은 결코 이미 멸당해버린자와 현재 멸망하면서있는 자와 또 앞으로 반드시 멸망하지않으면 안될 저주된 운명의 소지자들의 자기위로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가 미제의 주구인데서도 알수있지만 그보다도 그들이 이 조작행정에서 자기 졸도들을 시켜 「태평양동맹 조약의 성부(成否)여하는 미국이 관심을 이에 두는가 안두는가에 달리었다」(비률빈 국방장관 캉크레온의 말)고 하며 태평양동맹은 최초에는 국민당중국 남한 및 비률빈의 三개국이 진행시킬것이며 이 三개국지도자들은 극동의 제국가가 미국의 정신적 및 물질적 원조를 기대하려면 우선 이국가들자신이 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비률빈 외교차관 네리)고 서둘으게한데서도 잘알수있다

결국 이동맹조작의 원흉은 미제국주의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아세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야망밑에 자기의 주구인 이 매국노들을 총동원하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제인민들을 피의바다에 잠그며 또한 세계평화인민의 성벽인 쏘련을 진공할 목적으로 반쏘 반공 「군사동맹」인 이 태평양동맹을 조작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위협」을 떠들어대며 쏘련을 비방하는 반동의 목소리 평화와 자유와 독립을 웨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 우렁차며 내란과 인민학살을 피하는 반동의 힘보다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타도분쇄하기위하여 궐기한 인민의 힘이 더욱 강대해진 오늘 더우기나 아세아에있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결정적 승리와 월남 인도네시아 마라야 비루마등 인민의 영용한 투쟁 그리고 우리조선인민의 승리적투쟁에 겁을 먹은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서양동맹을 조작해내 더 그술책보다는 조금 다른 수법으로 이동맹을 조작하고 있는

까지 테로경찰제도를 내세워 「국군」이라는 명목밑에 수다한 장교 병사들을 투옥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편으로 리승만은 일제의 「치안유지법」보다도 몇배나 더 악랄한 소위 「국가보안법」이란것을 꾸며내어 모든 애국인사들과 인민들을 검거 투옥 고문 학살해온 끝에 조국전선의 평화적 통일안이 나오자 아무리 이를 엄폐해보려고 애썼으나 드디어 리승만 괴뢰정부 배하의 관공청과 기타 모든 사무기관에까지 이 제안이 침투되게되자 황겁히 조작해낸것이 소위 「공무원법」이다 이 「공무원법」에 의하여 리승만은 자기밑에서 동요 리탈되려는 일체 관공리 사무원들까지 사지를 결박해놓고 투옥 학살의 위협으로써 그들을 쳐부리려고하나 그것은 도리어 그들의 증오와 리탈을 촉진하고 있을따름이다

로파시스트 리승만의 발악은 여기에 그치지않는다

자기가 친일과 민족반역자의 두목이요 미제의 주구요 매국노라는것을 인민들앞에서 감추어볼까하여 꾸며내었던 소위 「반민족법안」이 실시된지 몇날이 못가서 그 본질을 자체폭로하였을뿐더러 필경은 자기의 졸도들과 더부러 자기자신을 묶는 필연적인 쇠사슬로 되어버리자 또한 절겁하여 이 「법안」을 폐기하는 일방 이 「법」을 행사하라고 자기스스로 임명하였던 소위 「반민특위」원들을 체포구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것이다 즉 대체로 보아 그조작절차와 순서는 같으면서두 전자에있어서는 처음부터 직접 표면에 나타나 실례인데신에 이번에는 시침이를 뚝떼고 있다가 맨나중에 나타나 이를 직접지휘할 푸로그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선전기관을 통하여 「미정부당국자들은 반공 극동동맹에관한 제안에대하여 비교적 랭담하다」(유、피통신) 느니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동맹은 시기상조라는 그의 지론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에이·에프·피통신) 느니 또한 동통신으로서 「투루맨대통령도 이에대하여는 소극적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느니하는 떼마고기들을 늘어놓게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정체가 도저히 감출수없으며 또한 그보다도 자기태도를 이 이상 더 모호하게 꾸미다가는 도리어 자기주구들에게 실망이나 주지않을까 념려하여 일방으로는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 콘더ㅣ와 위원 젝드의 목을 빌어 「만일 대서양동맹이 존재의 리유가 있다면 극동에있어서의 동일한 기구도 또한 요망되지 않을리없다:」 우리는 금번 발표를 매우 거쁘게 생각하는바이다:」 우리는 미국이 투쟁을 계속할 용의를 가짐 이들과 결탁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라고 자기의사를 대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엄중한 사실은 우리가 예기했던대로 미제에 의하여 재무장되면서있는 일제가 이동맹의 실제의 주역으로 등장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동맹조작의 주역으로 자처하고있는 퀴리노는 말하기를 「일본은 그 지리적조건으로 보아 당연히 태평양동맹내에있고 일본의 공업력과 경제력은 반공운동의 토대가 된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리승만이 또한 소위 「한일진해회담」에서 일제와의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일방 공동성명형식으로 일제의 태평양동맹가입을 공포케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미제의 태평양동맹조작흉모는 착착 그 푸로그람대로 진행되고있는데 그들이 아직 이동맹의 조작자이며 지도자로서 표면에 나서지않고 배후에서만 책동하고 있는것은 다만 아세아인민들의 격렬한 증오와 분노를 두려워하는 때문이며 그래서 우선 자기의 주구들인 반동매국노들끼리 야합시켜 예비적 「결합제」를 조작케한후 그것으로하여금 미국에 「령도」를 요청케하는 기만적 방식을 취하자는 뱃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권없는 패망자이며 인민원쑤인 매국노들끼리로서만 동맹을 조작한댓자 아무런 효과도 없을것은 뻔하다 그러나 또한 그런줄 뻔히 알면서도 태평양동맹을 끝내 조작해내려고 하는데서 우리는 미제의 아세아 침략에대한 야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알수있는 것이다 당장에 목줄이 끊어져가는 인민의 원쑤들인 매국노들도 한 어떻게 하여서든지 자기 목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며 또 이동맹이 조금이라도 실지 효력을 가진것으로 되게해보려는 목적밑에 과거 자기들의 적이었으며 전아세아 인민의 원쑤인 일본제국주의자들까지를 내세워 끝까지 이동맹을 만들어내려고 날뛰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세아인민의 증오와 배격을 더욱 격발시키며 자기들의 잔명을 더욱 단축시킬뿐 아무 효과도 없을것은 더말할 필요조차없다 그리하여 이동맹이 침략적군사동맹인 동시에 자멸적 매국노동맹으로 저주된 운명을 가지고있는것은 스스로 명백하다 결국 태평양동맹이란 인민에게 고립되고 인민에게 배격받아 물에서는 발붙일곳 조차없는 한줌도못되는 반동매국노들이 조작하는 태평양우에서의 어리석은 불작란질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끝—

더 참옥한것은 자기의 팔다리인 소위 「국회」위원들까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평을하거나 또는 자기의 매국매족의 죄악과 더부러 사기 횡령 음탕 외도등 새절을 입에 담는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비위에 맞지않는자라고 해여서까지 되는대로 체포 투옥하고있다

조국전선 선언서가 발표되자 어떻게하면 살구멍을 찾을까하여 불시로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위 「국회」가 열린끝에는 반드시 「위원」몇사람씩을 검거하는것이 상례로 되어 벌써 지난 十七일까지에만 六차에 걸쳐 十九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그리고 이 검거사건은 차차 더 찾아가며 뿔어간다 필연코 멀지않아 소위 六十八명 「반대파」를 모주리 체포하고 말것이다

이와같이 매국노 리승만은 인민의 단죄의 목소리가 높아가면 갈수록 따라서 자기멸망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그 발악의 도수와 차수는 그와 정비례하여 높아가고 있으며 찾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역도 리승만과 그 졸도들의 풍전등화같은 잔명은 그들로하여금 더욱 광포스러이 발버둥을 치게하며 더욱 많은 악법들을 날조케할것이다

그러나 벌써 어떠한 발광도 어떠한 악법조작도 멸망에 직면한 그들의 여명을 구하지못할것이며 연장도 못할것이다

—끝—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의 조직과 정치교양사업에 대하여

장 서 진

중국신민주의 청년단 조직준비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나는 동맹중앙의 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동 청년단 제一차전국대회를 참관하였던바 오늘 본 전국대회에서 진술된 보고와 대표들의 토론들에 근거하여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의 조직과 정치교양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간단히 기록하려한다.

×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 제一차전국대회는 장개석을 괴수로하는 국민당 반동통치가 이미 기본적으로 영용한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하여 격파되고 미제국주의의 어떠한 책동과 원조라도 멸망하는 그들의 운명을 연장시킬수 없으며 전국적 승리에로 전진하는 중국인민의 장엄한 진군을 가로막을수없는 새중국건설의 위대한 력사적 시기에 소집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중국청년들은 제국주의적 외래 침략과 봉건적 압박을 반대하는 중국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완고한 투쟁속에서 성장하였으며 특히 八년간의 항일전쟁시기에서와 일제가 항복한후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국민당 반동통치를 반대하는 三년간의 가혹한 인민해방전쟁에서 단련되었으며 정치적 각성이 보편적으로 비상하게 제고되었다

이럼으로써 항일전쟁시기의 "청년구국회" "청년봉대" 와같은 조직과 활동으로서는 벌써 정치적각성이 제고된 선진적 열성청년들의 적극적 활동을 만족스렵게 보장하여 발전시키기에 곤난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에 비추어 중국청년운동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一九四六년 十월에 열성적 선진청년조직으로서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을 조직할데대한 제의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각지방에서 시험적으로 집행하였던바 동북, 화동, 화북, 서북등 각해방구에 조직된 신민주주의 청년단들은 모두 청년군중들과 인민들로부터 애호를 받으며 광범한 청년군중을 단결시키며 지도하여 참군 참전 생산발전 토지개혁 및 민주건설과 문화사업에 있어서 전취한 거대한 공적들과 실제적 경험은 신민주주의 청년단을 전중국적으로 조직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실히 증명하였다

이리하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중국청년들을 더욱 단결하여 교육하며 인민해방전쟁과 신민주주의국가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적극적역활과 창조적 로력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시 금년 一월 一일에 신민주주의 청년단을 전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조직할것을 결정하였다

실로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 조직은 모택동주석이 령도하시는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령도밑에 전중국인민과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지난 四월十一일 북평에서 창립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에는 인민해방전쟁에서 영웅적 공적을 남긴 젊은 전투영웅 젊은로동자 학생 농민 녀성등 三四〇여명의 대표들이 참집하였다

이제 중국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 탄생하게된 중국신청단의 조직과 정치교양사업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신청단의 기본임무는 무엇인가

"신민주주의 청년단은 중국에서 신민주주의의 완진한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 중국통치를 타도하며 신민주주의적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며 전체인민들과 전체청년들과 전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것이 중국신청단의 강령인바 이 고상한 투쟁적목적은 신청단의 조직적 성격과 단의 임무에대한 정치적 기초로된다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신민주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며 전체인민들과 전체인류해방을 자기의 근본적 강령으로하는 신청단은 자기의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계급이나 또는 소자산계급의 령도를 받는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선봉대인 공산당의 령도를 받게된다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이 중국공산당을 자기의 정치적 령도자로 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담보하여 주었으며 전세계의 가장 혁명적 과학인 맑쓰!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있는 당이며 혁명에서 가장 견결하고 철저한 로동계급을 중심으로하는 근로계급의 전위적 부대인 까닭으로 이당만이 진실로 선진청년조직을 령도할수 있으며 신청단의 강령실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신청단은 어디까지나 비당적 군중조직이며 따라서 조직성에 있어서는 응당 자기의 독립적 조직체계를 보전한다 신청단은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견결히 옹호하며 신민주주의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분투하기를 원하며 근로계급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복무하려는 선진적 청년남녀들을 광범히 단원으로 흡수함으로써 단의 군중성을 확대한다

그러나 신청단은 일반적인 청년단체가 아니라 청년로동자 농민등 일반근로청년층에서 열성분자와 혁명적 청년지식분자들을 망라한다

오직 중국청년군중속에 적극적열성분자를 자기의 공고한 핵심으로 가짐으로써 중국의 광범한 청년군중을 집결하며 교육할수 있기때문인것이다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위원장 풍문빈동무는 단의 임무와 공작에 대한 자기보고에서 『신민주주의청년단의 기본임무는 맑쓰—레닌주의를 계통적으로 학습하며 혁명과정에서 부단히 자기 단원과 청년대중을 교육하는 동시에 마땅히 맑쓰—레닌주의의정신으로써 광범한 청년대중을 조직하여 중국공산당과 인민민주정부가 호소하는 각종운동에 적극참가하는데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중국에 있어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는 이미 기본적으로 전복되었으며 신민주주의중국이 곧 건립되려고한다 따라서 구사회를 격파하고 새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오늘 중국혁명에서 중국청년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기때문에 신민주주의중국건설에 청년들을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 청년군중을 맑쓰—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사상 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정치 문화교양사업은 신청단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무로된다

그러면 신청단은 무엇을 학습하는가

그들은 위선 맑쓰—레닌주의를 학습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상방법을 학습하며 이로써 혁명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세우게함으로써 단은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학습하며 복무할것인가를 똑똑히 가르쳐주는데있다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알아야 하며 과학을 소유하여야 할것이니 알자면 배워야 한다」 라는 쓰딸린대원수가 일찌기 쏘베트청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정신을 잘아는바와같이 모든 과학지식을 학습하는것은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며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위하여 복무하는데만이 의의가 있는것으로 신청단의 정치교양사업에서 맑쓰—레닌주의는 결코 추상적 교조가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신청단은 맑쓰—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이 다만 리론을 위한 리론에 그칠것이아니라 맑쓰—레닌주의를 중국혁명에 구체화한 모택동사상을 배우며 실제적 공작과 결부시킬데 대하여 크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잘 경험한바와 같이 새사회를 건설하려면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생산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우리가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할수 없는것이다

생산을 발전시켜나가려면 위선 선진적 과학지식과 생산기술과 생산관리법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오늘 신중국건설에서 신청단은 중국청년들에게 현대적과학지식과 생산기술을 습득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장 광산 철도에서 생산기술을 배우며 농촌에서 과학적 영농방법을 부단히 학습하라고 매개단원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신민주주의중국건설을 위하여 생산투쟁의 지식을 습득시킬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지식을 배워야할

것을 강조하고있다 적과의 투쟁에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각종투쟁을 배워가지고 무기를 든 적과 싸워이길뿐만아니라 총을 들지않은 숨어있은 적과도 전승하여야 한다 즉 도시에있어서는 자본의 전제 무역통제의 정책을 배우며 잔여반동세력을 여하히 반격숙청할것인가에 대해서와 농촌에있어서는 어떻게 감조감식(減租減息)로지개혁을 집행하며 봉건세력을 분쇄할것인가에 대한 각종 신 민주주의적 정치 및 경제정책을 습득시킨다.

신청단의 이상과같은 학습내용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교양하는가

중국신청단에서의 교양은 학습과 투쟁,─ 학습과 공작, 학습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된다고 말한다

풍문빈동무는 대회의 자기보고에서 "청년단의 학습은 교실과 실험실에 가만이 앉아서 학습하는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것은 투쟁중에서 공작중에서 생산중에서 학습하여야 하는것이다 만약 실천이 리론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인 실천이 되며 만약 리론과 실천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헛된 빈리론이되며 빈리론과 맹목적인 실천속에서는 우리는 투쟁 공작 생산에 도움이되는것을 배울수없으며 맑쓰ㅡ레닌주의를 배울수없다 청년단은 맑쓰ㅡ레닌주의와 혁명실천의 결합에서만 학습할것이 아니라 이학습에서 얻은 주 맑쓰ㅡ레닌주의정신으로써 또는 허심히 군중에게서 배우는 태도로써 혁명실천 즉 투쟁과 공작과 생산에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단원들과 청년들을 학습시키며 교육함으로써만이 신민주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각종 공작에서 유력한 조수가되며 믿음성있는 후비군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청년단은 항상 학습하며 충실히 진리를 탐구하며 인민과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영용하고 적에 대하여 두려움이없이 완강하게 투쟁하는 작풍을 그의 고상한 작풍으로 삼고있다

단내 생활은 비판과 자아비판을 충분히 발휘하며 진실하고 소박하며 형식주의와 랑비를 반대하여야하며 신청단은 반드시 대중과 밀접히 련계를 가지며 인민대중과 청년들의 정확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신청단과 단원은 군중을 선전교육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다

신청단의 단원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서 공작에 노력하며 근로인민에게 충실하며 지식이있고 용감하고 간난과 고통을 무서워함이없이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멈추지않는 견결하고 견인불굴한 정신과 견고한 성격을 가져야하며 반드시 교만하지 말아야하며 조급한 작풍이 없도록 함에 특히 주의를 돌리고있다

×

중국인민해방군은 전투적 승리가 날로 가까워 옴에따라 장개석 반동매국도당들의 멸망이 점점 박두되고 있으며 오늘 전세계인구의 四분지一에 해당하는 四억七천만인구가 살고있는 중국은 과거 一○○년이래의 영국 일본 미국등 제국주의국가들의 침략과 착취와 압박의 반식민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벌써 인민들이 자기운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선진하는 전망과 희망에 가득찬 새나라로 되고있다

오늘 전중국의 광대한 구역을 차지하는 해방구에서는 진정한 인민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인민정권은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주며 로지개혁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력사적 전변을 가져오는 중국의 정치정세는 오늘 용감무쌍한 중국청년들에게 새력사를 창조하여야할 력사적 임무의 담당을 요구하게되므로 광대한 중국청년군중을 선진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과학기술을 습득시키기위한 신청단의 정치교양사업에서의 투쟁은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며 장래중국의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약속하는것이다

─끝─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는 국제로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김 만 규



최근 세계각국 출판물들은 국제로동계급운동과 반파시스트적 인민전선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인 불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게오르기 지미뜨로브의 서거에대하여 쏘련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제국의 전체근로자들과 또한 자본주의 제국의 진보적 사회계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있다는것을 전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안전의 옹호와 국제로동운동에 전생애를 바쳐온 그의 영웅적 투쟁을 소개하며 국제로동계급운동과 인민민주의 불가리아건설에 있어서의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있다

이제 우리들도 그의 고귀한 전생애를 더듬어가면서 그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회고코자한다

×

一九二九년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세계자본주의사회의 지반을 뒤흔들었다 파국(破局)에 직면한 세계금융자본가들은 몰락의 무덤속에서 이위기를 타개하기위하여 단말마적으로 발악하였다 파시즘의 대두는 몰락과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최후발악적 형태였다

一九三三년 一월 독일에서는 파시스트 히틀러도당이 테로리즘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다 농업공황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파국에 처하였던 반식민지적 발깐제국에서도 금융자본가들은 파시즘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하이렌트」에 진주한 구련합국으로부터 하등의 반격(反敷)을받지 않은 나찌스 독일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자기앞에 열어준 반쏘적 길에서 구라파의 그리고 세계의 제패를위한 새략탈전쟁준비에 광분하였다

또 한편 극동에있어서 군국주의 일본은 一九三一년 동북(滿만주)을 강점하고 중국의 식민지예속화의 야망을 실현하기위하여 미칠듯이 한정없는 군비확장에 날뛰고있다

이리하여 동서양의 파시스트 거두들은 눈가리운 광마(狂馬)와같이 일로 새로운 략탈적 팽창주의의 길로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의 길로 막진하였으니 세계는 광폭한 파시즘의 선풍에 휩쓸렸다

바로 이같은 정세밑에서 一九三五년여름 제三국제당 제七차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제三국제당 서기장이였던 지미뜨로브는 파시즘을 증오하며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 로동계급과 평화애호인민들앞에 그의 이름과 함께 잊지못할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인민전선」에 관한 력사적인 보고를 하였다

「파시즘은 인민의 모든 민주주의적 전취를 박탈하며 암흑의 왕국을 수립하며 문화를 박멸하며 또 략탈적 전쟁을 방화할 목적으로 인종차별론을 내세우며 인간의 호상증오론을 설교한다……

민주의 모든 진실한 지지자들은 구라파의 반파시스트적 민주주의의 운명이 로동계급의 운명및 인민전선의 결성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어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제국주의전쟁의 흉악한 위협이 세계위에 떠도는 현하에있어서는 다만 로동계급의 력량을 부렬시키는것을 용허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민의 유일전선을 결성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는것도

용허할수 없는것이며 죄악인 것이다…… 한나라의 범위나 또는 국제적 범위에 있어서 파시즘의 앞에서 퇴각하는 정책은 파시즘의 물방아에 물을 대어주는 것이며 인민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파시스트적 야수는 막 내려눌러야한다 그놈에게는 인민전선의 굳센 조직적 주먹으로써 맞대 세워야한다 그놈에게는 쇠굴레를 씌워야한다 그놈을 때려야한다 인민의 민주주의적 전취를 구원하고 평화를 옹호할수있도록 또한 그놈을 아주 죽도록 때려야한다……」

그가 한 인민전선운동에관한 보고는 이미 혁명서반아와 불란서에서 결석된 반파시스트적 인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전세계 평화애호인민앞에 명시하였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을 반파시스트적 인민전선 주위에 굳게 집결시키어 히틀러와 뭇소리니 및 일본군국주의자 도당들의 세계제패의 야망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고무지도하는 강력한 계기를 지어주었다

「파시즘의 대두는 곧 전쟁의 봉화이다」라고 지적한 지미뜨로브는 「공산당은 파시스트들의 독재에 대항하여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모든 민주주의자들을 결속통일하여 강력한 인민전선을 형성할것이 필요하다」는 신념밑에 끊임없이 인민전선로선의 승리를위하여 투쟁하였으나 한때는 불가리아국내에서 사회민주당의 분렬 또는 뿌띠까보넷쯔광산의 파업에있어서 로동자들을 기회주의적 사회민주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하여 과감히 투쟁한 지미뜨로브의 혁명적인 비타협성은 어떤면에서 제二국제당의 완고한 지도자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인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실현을 완강히 관철시키고야 말았다

一九三五년 九월 에치오피아에대한 파시스트이태리의 침략전쟁에있어서도 다음해 서반아의 내란에있어서도 제三국제당은 제二국제당에대하여 통일전선로선을 취할것을 수차 제의하였으나 개량주의자들은 역시 자기네의 지위를 상실할까 두려워 그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一九三七년 독일해군이 아르메리아를 포격하게되자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일치한 반파시스트 지향은 드디어 제二국제당 지도자들로하여금 인민전선로선을 접수하고 동년七월 파리회의로 하여금「회의는 제二 제三국제당이 금후 가능한 모든 장소에 있어서 파시즘을 반대하여 [illegible] 인민의 통일전선을 결성할것을 [illegible]」라는 콤뮤니케를 발표케하였다 이승리는 중국의 구국통일전선을 [illegible] 국제당을 배척하면서까지도 파시즘을 반대하려는 전세계민주역량을 [illegible] 타도하는 반파시스트적 인민전선에 [illegible] 있게한 또 하나의 계기를 지어주었다

당시 지미뜨로브는 五十二세 혁명의 풍파들을 겪고난 전세계로동운동과 인민전선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의 혁명적경력은 매우 이르게 시작되였으니 그는 十五세의 소년시대부터 이미 로동운동에 참가하였다

一八八二년 六월 [illegible] 무뜨의는 불가리아수도 소피아근방의 라도미라에서 몰락하는 한 수공업자의 아들로 탄생한 그는 가세의 빈곤화로 말미암아 一八九四년 十二세때에 실습학교 二학년에서 중퇴하고 이미 로동자로 전락한 부친과 더부러 혹은 인쇄공으로 로동을 개시하였다 이 같은 사정은 그로하여금 당시 불가리아에 조직되었던 사회민주당과 개개분산적인 로동조합들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로부터 그자신도 비록 十五세의 어린 소년이기는 하였으나 자기가 속한 소피아인쇄공조합을 통하여 혁명적인 로동운동에 참가하였다 그의 불타는 혁명적 열정과 적극성과 사업에대한 헌신성과 용감성은 인쇄공조합에서의 그의 지도력을 현저히 높였으며 이에따라 十八세때에는 이미 동조합의 서기로 피선되였다

그는 혁명적 로동운동의 드높은 발전을 위하여 불가리아전체인쇄공로동조합의 련합에 착수하는동시에 一九〇三년에는 불가리아사회민주당의 혁명적인 활동분자로서 동당내의 기회주의적 수정파들의 개량주의적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면서 진정한 맑쓰주의당의 건설을위하여 활동하였다 이같은 진정적 투쟁은 불가리아로동자들과 사회민주당내에 그의 위신을 확고부동하게 뿌리박았다 그리하여 그는 一九〇四년부터 一九二三년까지 불가리아로동조합련맹회의의 서기로 또 一九〇九년부터는 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 피선되어 불가리아로동운동을 혁명적 맑쓰주의 로선으로 지도고무하였다

一九一三년 제一차대전전야의 불가리아는 그와 그의 동지들의 지도밑에 로동운동의 가일층의 앙양을 보았으며 그는 동년 불가리아국회의원 및 쏘피아대의원으로 피선되어 그후 一九二三년까지 국회내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위하여 투쟁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불가리아로동계급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로씨야의 혁명으로부터 승리에대한 힘과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불가리아에 있어서의 진정한 맑쓰—레닌주의당으로서 불가리아공산당을 창건하게 되었다 一九二三년九월 불가리아공산당은 불가리아의 자본가 지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로동자 농민의 무장봉기를 조직지도하였다 당시 지미뜨로브는 불가리아공산당지도부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가로서 이를 고무지도하였다

그러나 봉기는 적과 객관적 정세에 대한 랭정한 분석에 있어서 또 주체력량의 옳은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한 전략전술에 있어서 아직 적지않은 부족점과 미숙한점이 있었기때문에 실패되고 말았다 그결과 불가리아공산당은 지하로 들어가게되었으며 이에따라 지미뜨로브의 곤난하고도 풍랑많은 망명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곤난한 망명의 찬 풍설도 결코 그의 혁명적 의기를 꺾지는 못하였다 망명당시의 그의 혁명가적 진면목을 전해주는 에피쏘드를 우리는 허다히 전해듣고있다 이제 그 하나를 소개하자

一九三三년가을 광폭한 나찌스지배하의 「라이프찌히」 시의 법정이었다 「재판장 당신은 나의 질문이 두려운 모양이군요」 피고자 지미뜨로브는 무게있는 음성으로 침착히 비수를 내던졌다 법정은 그순간 말도 표정도 숨까지도 딱 얼어붙어 긴장 되었고 심판자인 프로시아수상 게링그의 거만한 얼굴이 생기를 잃어 창백해졌다

나찌스의 지도자들은 소위 공판의 이름으로써 자기들이 꾸며낸 백림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의 죄를 독일공산당에게 전가시키고 마침내는 독일에 망명중이던 지미뜨로브에게까지 무도한 사형(私刑)을 가하려고 이날 공판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미뜨로브의 예리한 리론과 혁명가로서의 높은 품성은 놈들의 발악적인 음모를 분쇄하고 파시스트의 재판을 수포에 돌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 만국의 로동자들의 분격의 폭모에 둘러싸여 파시스트의 재판소는 지미뜨로브와 그의 동지들을 석방하지 않을수없었다

당시 지미뜨로브는 五十二세 곤난한 망명생활가운데서도 혁명의 풍파를 겪어난 전세계로동운동의 강력한 지도자였다 수차에 걸친 투옥과 二차에 걸친 사형선고도 그의 혁명적 열정을 억제할수 없었으며 그를 로동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킬수는 없었다 왕제(王制)불가리아의 지배계급은 그를 눈위의 혹과같이 증오하여 그를 투옥학살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으나 그는 도리어 그러한 역경속에서 부단히 세계적인 로동운동의 또는 인민전선운동의 지도자로 억세게 단련되고 장성하였다

제三국제당이 발전적으로 해산한 후에도 국제로동운동과 반파시스트적 민주전선에서 투쟁하던 지미뜨로브는 영용한 쏘베트군대에의하여 불가리아가 해방되자 즉시로 조국에 돌아왔다 그의 지도밑에 조직된 불가리아 조국전선은 불가리아전국의 조국전선위원회를 기초로 인민민주주의불가리아 창건의 위업을 추진시켰다 그가령도한 불가리아공산당은 불가리아 전근로인민의 신뢰에 싸여서 二차에 결친 총선거에 있어서 九〇%이상의 압도적 대승리를 전취하였다 왕제폐기(王制廢棄)가 결정된 一九四六년九월九일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인민에게 호소한 지미뜨로브수상의 연설은 불가리아인민들의 한결같은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

「일반투표를 통하여 인민공화국제에 찬성한 불가리아는 쏘베트공화국으로되는것이 아니며 또한 독재정권을 수립하는것도 아니라 바야흐로 근로인민을 핵심으로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인민적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六十七세 로쇠를 모르던 영원한 청년혁명가 지미뜨로브는 지난 四년간 신생 불가리아의 선두에 서서 전세계평화애호인민의 성벽인 쏘련과 인민적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굳건한 친선을 맺고 세계의 견고한 평화와 민주의 승리를 위하여 믿음직하게 전투하여왔다

×

국제로동운동의 빛나는 승리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위하여 헌신하여온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는 지난七월二일을 일기(一期)로 그의 고귀한 영웅적 생애를 끝마쳤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상을 구현하는데 전 생애를바친 게오르기 지미뜨로브의 빛나는 모습은 근로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사라지지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미뜨로브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가는 오직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로동계급의 단체들이 존재하고있는곳 진보적 동력이 활동하고있는곳 수천만인민들이 보다 좋은 장래를위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곳에서는 어디서나 게오르기 지미뜨로브의서거를 애도하는 조기들이 나부끼고있다」

뿐만아니라 그의 서거는 제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여 평화와 사회주의를위하여 싸우는 투쟁에있어서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투지를 북돋아 주는것이다

표창에 빛나는 경비대대원들과의 좌담회



◁ 유린병 동무 ▷



◁ 변익두 동무 ▷

지난 八월十七일 본사에서는 八・一五해방 四주년에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三八선지구에서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기위한 불민불휴의 헌신적 투쟁속에서 영웅성을 발휘하여 三급 국기훈장 및 군공메달을 수여받은 내무성 경비대동무들을 초대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기자—오늘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는 전투에서 영웅성을 발휘한 동무들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이같이 동무들을 초대하게 된것은 동무들의 그 영웅적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을 널리 우리 동맹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보위에 나서는 영예를 다시한번 굳게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믿어서입니다

동무들이 영예스런 내무성 경비대에 입대하여 처음군복을 몸에 지니게 되던때의 감상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린병—저는 본래 로동자의 자식으로 태여나 왜정때에는 배움의문은 고사하고 그날그날의 살림이 곤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주권이 수립된 해방후에는 저는 곧 내무성경비대로 입대할것을 지원했습니다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 영예스런 군복을 입게되던 날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별안간 이제까지 보지못하던 저를 똑똑히 본것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은 곧 제게 맡겨진 중대하고도 영예스러운 조국과 인민이 주는 과업을 어깨에 걸머지게 된것을 스스로 느껴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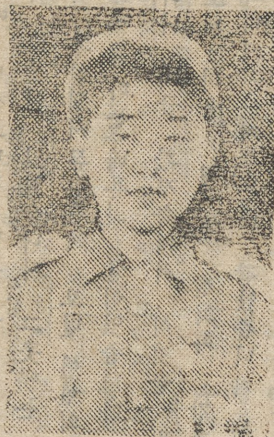
강보연—저는 녀자의 몸으로써 군복을 입게되니 참말 무엇에도 비길데없는 비상한 결의로써 전신이 일시에 가다듬는 그런 감을 가졌어요 이런수록 더욱 저의 결의는 굳어만지는것 같았습니다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구…

김룡택—저는 왜정때 일본제국주의군대의 가혹한 대내생활을 간간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제가 입대한 경비대는 그야말로 사상적으로 통일된 군대라는것을 군복을 입던 그때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로하여금 자발적 규률을 준수하며 나아가서는 정치학습과 선진군사기술을 하루바삐 습득해야 할것을 결심케 해주었습니다

△참 가 자▽ (출신지)
변익두(三급국기훈장)…평북 태천
유린병(〃 〃)…자강도 후창군
박근섭(군공메달)……함남 리원군
김룡택(〃 〃)……함남 의원군



◁ 박근섭 동무 ▷



◁ 강보연 동무 ▷



◁ 김룡택 동무 ▷

변익두—그렇게 부럽던 군복을 입고나니 우리의 민주건설을 파괴하려는 리승만 망국도당들의 흉악한 시도를 처물리치고야 말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박근섭—저는 일제때에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해방후 곧 북조선민주청년동맹에 가맹하여 여기서 저는 조직생활을 통하여 훈련되고 단련되였습니다 그후 저는 나의 숙망이었던 경비대에 입대하여 새로운 군복으로 갈아입던 날 항상 나의 가슴에서 떠나본적이 없던 민청마크를 새로운 군복을 입은 나의 가슴에 옮겨 붙이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대내에서의 민청생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나에게 맡겨진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투쟁에 더욱 영용할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기자…그럼 이같이 새로운 결의를 품고 군복을 몸에 지니게 된 이후 드디어 三八초소에 나서게 되던때의 동무들의 결의는 어떠하였는지?

강보연—맨처음은 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던것이 상부에 몇번이나 제의한 결과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 三八초소에 나서게 되니 그저 불법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원쑤들을 결사적으로 뭇찌르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변익두—저는 一번가까이 훈련을 거듭하고난뒤 상부의 명령으로 황해도 三八선지구 ○○부대로 편입되였습니다 그때당시는 남조선에 유엔신조선위원단이 들어와 미군장기주둔을 피하는 리승만망국도당들이 번번히 三八연선 이북지역을 불법침입하여 닭과 소를 잡아가고 또는 농민을 랍취하며 농가에 불도 지르는 그때였습니다 이런때 척 三八선 초소에 나서니 나는 다시한번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국과 인민을위해 싸운다는 그것입니다 이럴수록 내께 맡겨질 과업을 목숨으로 바꾸는 한이있더라도 기어이 완수하고야 말것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수웠던것은 제가 처음 三八초소에 나서니 이남경찰대놈들이 멀리서 저를 보고 던지는 말이 「어—이 빨갱이!」라고 하는것이겠지요 (웃음)

유린병—제가 국경선에 있을때 三八선 소식을 많이 듣고 또 항상 三八선으로 나갈것을 루차 상부에 제의했었습니다 어느날 내뜻하대로 三八선으로 떠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때 나는 막 어린애같이 날뛰었습니

강보연(〃 〃)……평양시
△본사측▽
김련호 유충록 리배형
김학연 박웅호

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일생의 영예라고 믿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맨처음으로 초소에 나서던날 나는 내게 맡겨진 중대한 과업을 사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룡태—저는 一九四八년 여름에 맨처음으로 三八초소에 나섰습니다 일선초소에 나서보니까 많은 구호며 벽보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후방에서도 흔히 보던 인민의 초소에 섰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니 더욱 새로운 결의와 감격을 저에게 안겨주는것 같았습니다 三八초소에 첫보초로 나서 눈에 띄운것은 웅실거리는 이남 경찰대놈들이었습니다 그 꼬락서니들을 볼때 정말 얄미운 생각이 솟아오르고 놈들의 꼬락서니가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웃음)

기자—그럼 다음으로 대내에서 동맹생활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강보연—우리 부대내 민청초급단체는 五명—六명으로 되는 분조들을 조직하고 여기 분조장이 있어 동무들을 지도하고 과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一五일에 一회씩 검토회를 가져 우수한 분조를 벽보로 소개하며 그들의 교양사업 전투등의 그 모범적 실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익두—대내생활에서 특히 우리가 있는 三八선에서는 검토회를 자주 가집니다 이것은 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전투속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난관과 곤난이 있드라도 사업을 검토하고 능히 새로운 방도를 여럿이 꾸며내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민청회에 있어서도 三〇분이 못걸리는 짧은 시간내로 우리는 몇시간을 걸쳐 토론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박근섭—분조에서는 대개 군사훈련과 전투문제를 내놓고 있으며 어떻게하면 이 적의 침입을 격퇴할수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기자—그럼 교양사업은 어떻게 초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까?

변익두—우리 분조에서는 상부의 명령으로 五명정도로 분조를 조직하여 분조내에서 독보회 책임자를 선출하여 교양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보연—교양사업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투에 관한것과 다음 국제국내정세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투에 나간동무들은 그곳에서 틈을보아 一〇분내지 一五분정도로 좌담으로 교양사업이 전개됩니다

변익두—대개 대내초급단체에는 독보회선전원 교양간사 체육교련들이 있습니다

기자—대내의 오락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유린병—우리 대내 오락사업이라면 아마 일반에서는 좀 보기드문 그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어린애와도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기술을 통틀어 내놓기 때문에 벼라별 진기한 것이 막 터져나옵니다 사이만 조금 생긴다면 참호속에서도 어디서나 벌이집니다 (웃음)

강보연—우리 부대에는 함마조직이라는것이 있는데 우리 초소에서는 소위 국방군에게 교양사업을 멀리서 전개합니다 그때면 자식들은 듣기 싫다고 고함칩니다 (웃음) 그땐 또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 말 들으라」고 다시 소리쳐주면 장교놈들 같은것들은 막 죽겠다구 야단이죠 (웃음) 참말 군대내 오락사업이란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곤했을때는 오락회 이외에 더 필요한것은 없으니까……

유린병—이사 강보연동무의 말도 있었지만 우리가 국방군들에 대해 교양사업을 던질때면 장교자식들은 막총을 놓아 병사들에게 방해를 놓습니다 (웃음)

기자—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三八선접경지에서 남반부땅을 바라보던때의 감상은 어떠한지요?

유린병—우리는 간간히 이런것을 봅니다 그것은 인민들을 강인하여 강제로 참호를 파게하는 그것입니다 그 옆에는 장교놈이 시간을 재어가며 감시하고 있었고 만일 작업을 태만하면 그자리에서 처단하는것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럴때는 막 달려가 그놈들을 소탕해 버릴 충동으로 격동아니될수 없었습니다

변익두—三八접경에 나서기만하면 원통한 일들이 많지요 그중에서도 무연한 붉은 남반부 농토를 볼때면 제가 농민의 자식이어선지 빼아픈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막주먹을 부르쥐고 더욱 불타는 적개심이 전신에 타번지는것 같았습니다

강보연—그런데 이것만 보드래두 이북이남을 분간할수 있어요 그것은 이남쪽산과 들은 벌써 벌거숭이가 되고 심지어는 나무뿌리까지 캐내어연료로 삼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북을 보면 항상 신록이 욱어진 청신한 산과 들입니다

기자—그럼 다음으로 三八선 초소에서 인민들과 맺아진 굳은 련계성는 어떠한지요?

유린병—전투만 개시되면 연선 인민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로 물질적 원조는 부인들이 맡고 이렇게 각기 우리를 협조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것은 지난 七월五일 오후 六시 三〇분경 소위 국방군 제八사단 제十련대 제一대대가 자기의 총병력을 동원하여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점리 영덕리 五二五고지를 불의에 습격하여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다가 우리 경비대동무들한테 소탕된 그 다음날 일입니다 즉 七월五일 또다시 어제의 참패를 복수할 목적으로 침공을 개시한 소위 국방군 제三대대와 제二대대가 병력을 총동원하여 풍암리와 고산봉에 침공하여 왔습니다 이날은 제三대대와 제二대대의 보병전투를 엄호할 목적으로 경비정 二척을 동원하여 기사문리 전방해상에 대치시키고 또 응원부대로 주문진에 있는 경비정 七척을 동원시키고 三八이북지역 촌락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왔습니다 이때 우리 부대에 이를 격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없이 사기왕성한 기세로 떠났습니다 七월六일 아침 양양에 도착하여 본대에서 약三〇분 휴식하고 곧 식사를 개시하려던 그때 다시 전투명령이 내려 물이난 강을 건너 그곳에서 기다리던 자동차로 약二〇분 달린후 드디어 三八선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곧에 도착하니 민청원으로 조직된 자위대원동무들로부터 구체적인 전방지구에 침입한 적의 동향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전투는 개시되었습니다 더우기나 병으로 앓던 부분대장동무의 정확한 정찰로 우리소대는 적대서리 一〇〇〇메터 인대대방공지에 진지를 구축한 국방군을 향하여 전진하였습니다 한五〇〇메터가량 진공하였을때 드디어 발각되어 일제사격을 받았지만 우리 동무들은 웃으면서 보복전진을 해나갔습니다 一〇〇메터를 더 전진하였을 때는 더욱 심한 박격포 기관총사격에 우리소대는 한시간 三〇분동안 전진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대장동무로부터 四분대장인 제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미친듯이 사격하는 적의 포진지를 점령하려는 명령입니다 저는 곧 전사동무 五명을 인솔하여 전호까지 五〇메터 사이를 두고 전진해갔습니다 이때바로 본대에서 부터 우리를 엄호하는 중기의 폭음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적의 포사격놈들은 일시 전투를 금하고 꿩이 매한테 쫓기우는 격으로 (웃음) 머리를 쳐박고 있는 끝을 발견하고 이틈을 타서 저는 전사동무들과 굳은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단신 포진지를 돌격하여 들어갔습니다 손을 들라! 고함치며 진지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몇놈은 손을 들었지만 아직 반항하려는 놈 五명을 살해하고 박격포 一문 카―빙총 一정 M―보총 五정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전체부대가 돌입하여 완전소탕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전투가 끝나고 포로 四〇명을 앞세우고 부락으로 내려오니 어떤 할머니는 자기 한갑용 돼지를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에 뜨거운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기자—그럼 마지막으로 동무들이 영예스런 국기훈장과 군공메달을 수여받을 때의 감상과 결의는 어떠했습니까?

유린병—이같이 三급국기훈장을 타게되는 것도 오직 나의 조국과 인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룡태—나는 三八선에서 군공메달이 가슴에 붙여질때 희생당한 동지들의 원쑤를 기어이 복수할것과 하루바삐 남반부에도 북반부와같이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한 과업에 충실할것을 결의했습니다

강보연—이것은 참으로 꿈같애요 이 감격과 영예는 곧 적과의 결정적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보답할것을 더욱 굳게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제집이 평양이어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더욱더 군무에 충실하여 집엣걱정은 조금도 하지말라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변익두—앞으로 더욱 조국과 인민이 준 과업을 훌륭히 완수할 결심이며 더욱 군사기술을 높은수준으로 제고시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

(동맹생활란)



초급단체 지도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원산시 민청 고 룡 우

동맹 제三차 대회는 동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부면에서 동맹의 기초인 초급단체들의 사업을 더 높은 수준에 제고시킬것을 동맹의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 인입함에 있어서 동맹초급단체의 역활은 실로 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 민청단체는 동맹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 결정에 지적된바와 같이 동맹의 조직적 기초인 일부 초급단체가 아직 동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생활성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기때문에 원산시는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의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서 六월二五일부터 특히 생산직장 농촌학교 사무기관 가두등 부문별로써 초급단체 위원장 및 조직위원총회를 지도하는 열성자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결정을 자기실정에 비추어 철저히 연구하였으며 七월十一일 시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소집하여 전체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동맹 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할 대책들을 수립하였다

첫째로 초급단체총회를 초급단체의 최고기관으로써 그 조직적 교양적 역활을 높이기위하여

ㄱ 회의를 제때에 소집하지 않는 엄중한 현상들이 있었으므로 四월一六일 시위원회 四차회의에서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련락밑에 다른 단체회의와 중복됨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총회날을 고정화하였고

ㄴ、시책임간부들을 위시하여 동맹열성자로써 초급단체총회지도에 참가시키었다 총회를 지도한 결과는 월초에 소집되는 생산직장 농촌등 부문별로 열리는 초급단체 위원장회의에서 시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직접 지도아래 총회 지도에서의 경험을 총화하고 새달의 보다높은 향상을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ㄷ、동맹원들의 실생활에 적합한 단위로 초급단체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러므로 대회 당시 二五五개의 초급단체는 현재 三七二개로 장성되었다

이상과같은 사업대책의 결과 조선소 철공 제四초급단체는 동맹원들의 생산작업이 三교대라 하여 회의를 二·三개월이 지나도록 소집하지 않던것으로 부터 시위원회 四차회의 결정을 접수토의하고 교대별로 초급단체 조직을 정비한 결과 五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총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四월이후 장촌리 총회날을 시 부위원장 리초은동무가 항상 지도한 결과에 사업에서의 안일성과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부화한 경향들을 종합 분석한 기초위에서 일정한 사업계획아래 중심있게 총회를 준비하게 방조한 결과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시 민청의 열성자로 되고있는 농촌맹원 박종수동무는 六월부터 사문리 초급단체를 담당하고 지도하였다 박종수동무는 위선 사문리 초급단체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열성청년들을 동맹사업과 분리 시키는 경향과 녀성 청년들의 정당한 의사를 억제하는 등 관료화하는 경향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농촌실정과 동맹의 역활동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기초위에서 회의를 엄밀하게 지도하여온 결과 큰 성과를 보다많이 달성하였다 즉 회의에서 지도기관이 범한 오류에 대하여 분석 비판하고 매개 맹원들의 정치수준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강조하면서 특히 녀성청년들의 사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동

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건전한 의견들을 또한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녀성청년들을 대담하게 지도기관에 등용시켜 그들로 하여금 지도사업을 실시케한 결과 초급단체 사업에서의 결점들을 시정할수있었으며 지도기관의 역활이 제고되고 동맹내 민주주의는 철저히 발양되어 전체동맹원들은 특히 녀성청년들은 동맹사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여 각종 창발적 사업조직들을 합에 이르렀다

지난 七월三一일 총회는 위원들과 반장 및 열성맹원 一八명의 참석아래 충분한 준비를하고 진행하여 인민군대 가족원호사업에대한 구체적 분공들을 조직하였으며 그후 위원회와 반장들로써 지도검열사업을 조직하는등으로 사업은 적극 추진되고 있다.

둘째 초급단체 지도기관의 역활의 부족한 경향을 시정하고 지도기관의 사업수준을 일층 제고하기위한 문제는 적지않은 초급단체 지도기관들이 자기단체가 처해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르는 중심임무를 명확히 모르고 사업을 옳게 조직하지 못하므로 동맹력량배치에서 허다한 결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ㄱ、시 위원회에서는 제四차 및 五차회의를 통하여 이상의 엄중한 경향들에 대하여 준렬히 비판하고 초급단체 지도사업에서 항상 중요임무로써 이를 진행시켰으며 중앙 도 및 시의 중요결정서들에 근거하여 문건 란발하는 경향들을 일소하기위한 구체적인 강습제도를 수립하였고

ㄴ、초급단체 위원장 회의의 역활을 높이는데 주의하였다

즉 생산직장 학교등 부문별로 월초 정기적으로、초급단체 위원장 회의를 조직하여 시위원장 부위원장이 각각 부문별로 날짜를 조정하여 직접 참석 지도하였으며 이회의에서는 초급단체에서 할 새달의 과업들을 중앙 및 도 시결정서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강습하고 어떻게 집행할것인가에 대한 로르 ― 광범히 전개하며 초급단체 위원장들의 사업수준 제고를 위해서 실무적 강습들을 조직한다 그것은 주로 전달 시지도원들과 총회날 지도원들이 지도사업에서 발견한 결점들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토론하게 하였다

ㄷ、초급단체 간부들을 시에서 장악 하고 그 이동규률을 확립하였다

례를 들면 六월二일 적전농촌지구 부문 초급단체위원장 회의는 초급단체 위원장 十二명과 초급단체 열성자 十九명으로써 조직되었는바 시 부위원장동무의 직접 참가 아래 시 지도원 박병도 동무가 지도하였다 또한 농촌민청단체들의 정치문화 교양사업 강화에 대하여 五월중의 사업경험을 박용빈(락수리 一구 초급단체의 군중문화사업 진행에서의 경험) 김치근(용주리 초급단체의 정치교양사업 진행에서의 경험) 동무들이 보고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인민군 및 보안원 가족원호사업 강화와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협조사업강화 및 초급단체내 조직사업 강화등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항상 진행하는 결과는 전체 농촌 초급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활을 담당하며 초급단체 위원장들의 사업수준을 현저히 제고 시키면서 있다

셋째로 전체 동맹초급단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초급단체열성자 양성사업을 정확히 하며 그들의 선도적 역활을 높이는 문제는 중요한것으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경제건설 부문에서 기농자 청년작업반장 및 농촌청년들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열성학생맹원 및 모범교원들로써 학업성적 제고를 위한 사업에 각각 동맹 열성자들을 장악하고 사업의 조직과 총결 혹은 중요 사업토의시에는 이들을 참가시켜 그들의 사업경험과 의견을 파악하고 사업 행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결점을 총화하여 줌으로써 실천적 산 훈련과 교양을 주었다 또한 동맹 각 부문별 사업에서 중요 과업이 제기될시에는 동맹 열성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선도적 역활을 보장하고있다

즉 농촌사업의 락후성과 또한 사업의 중요비중에 비추어 一九四九년 六월四일 농촌청년 열성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그들의 선도적 활동을 보장하였다 八월四일에는 八·一五기념 증산운동 정형을 토의하기위하여 로동청년 열성자회의를 조직하였다 또한 동맹 열성자들

을 학습회 강사 강습회에 참가시켜 그들의 정치 리론수준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같은 사업을 통해서 시 책임일군들이 직접장악하고 그들에게 열성자의 임무를 해석하는 등으로 그 책임성을 높여주고 있다

네째로 매개 단체들의 자기단체가 처한 주위환경을 따라 동맹생활을 생산과 밀접히 련결시켜 생활성있게 활동하도록 동맹 내부 사업과 외부 사업을 련결시켜 진행하도록하는 사업이 중요하였다. 시 산하 三七二개의 초급단체들은 국가건설 사업에서 맡겨진 임무가 각각 상의함으로 가체사업에서 반드시 특성이 제기된다

생산직장 농촌 사무기관 가두 학교등으로 초급단체를 구분하고 책임간부들을 위시하여 지도원들에게 각 부문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도한 것이다

시 상무위원회에서는 과거의 一률천편식 형식적 지도사업을 청산하고 각 부문별의 특수적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부문의 특수성에 적합한 사업을 토의하고 구체적 과업을 제시한다

또한 부문별의 특성을 옳게 살리기 위하여 일체 동맹 사업 토의를 위한 회의는 부문별로 조직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초급단체 위원장 련석회의와 때때로 부문별 열성자회의를 소집하여 해당부문의 특수적 문제를 광범히 집체적으로 토의함으로써 산 대책을 강구하기에 노력하였나

끝으로 초급단체사업의 열쇠로되는 지도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높이기위한 사업에 기본적 주의를 돌리었다

동맹중앙 빛 도의 결정서와 동맹기관지 및 민주주의 정당기관지등에 게재되는 중요론설들은 시 지도원들의 집체적 연구토론을 거쳐 위선 그 내용을 철처히 로해시키는데서부티 출발하였다

지도검열 결과에 대하여 부문별로 분공받은 책임 간부들이 직접 장악하고 그 정형을 검토 비판하여 사업적 훈련을 주로 준다 철도공장 선반초급단체는 동맹내부 사업에서나 생산경쟁에서 가장 뒤떨어졌던 단체이다 새로 등용된 공장지도원 박용준동무는 이 단체의 많은 단체를 수다히 찾아다니나 현저한 개선을 보지못하고 현상을 알려다니는 엄중한 처지에 있으므로 시 책임일군들은 직접 그가 지도하는 단체의 검열사업에 참가하고 그결점과 원인을 심오하게 분석하고 지도검열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보장한 결과 이 단체를 지도하고 간부들을 위시하여 맹원들이 로동청년들로 써 자체립장을 옳게 인식하지못하며 계급적 각성이 없는 락후된 사상경향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하였다 그는 그날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사상정치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고상한 로동관념으로 무장하고 정치적 각성을 높이어 조국창건과 새력사창조에서 그들의 핵심적이며 선진적 역활에 대하여 인식시키며 모범적 추진부대로서 역활을 높이도록 지도하였다

이와같은 지도에 자각한 간부 및 맹원들은 자기사업을 준렬히 비판하면서 자기의 열성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초급단체위원회 역활이 강화되며 맹원들의 자각적 열성은 옳게 추동하였다 결과에 출근성적은 八七%로부터 九〇%로 점차 제고되었으며 생산실적은 겨우 자기책임량을 달성하였다면 지금은 평균 一七五%의 비약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초급단체지도기관들의 역활이 제고되었으며 자기단체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능동성있게 활동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옳게 분공주어 검열독촉사업이 강화되고 자체결정과 상부지시를 충실히 리행하겠끔 되었으며 동맹내 민주주의를 적극 보장하고 동맹사업을 전체맹원들의 창의적 열성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원산시 민청단체에서 중앙위원회제四회의결정을 받고 초급단체 지도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이러하며 아직 원산시 민청단체가 가지고있는 많은 결점들은 우리들의 준렬한 사업비판과 구체적인 사업연구 분석에서만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나

—끝—

청년군중들에게 대한 문화 사업을 이렇게 지도하였다



함북 학성군 민청
김 황 석

동맹 三차대회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학성군 민청단체들에는 다음과같은 결점들이 군중문화 사업지도상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첫째로— 민주선전실운영에 있어서 광범한 군중들을 망라하지 못하였으며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보회는 대부분의 단체들에서 중지상태에 있었으며 다소 운영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저 사상적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준비없는 독보회로 되고 있었다

둘째로— 여러가지 동호회들은 형식적으로 조직은 되어있었으나 대부분의 단체들에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약간 운영된다 하더라도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군중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상무위원회는 이 사업을 결정서만 채택하고 실지 집행여부를 보장하는 사업이 미약하였으며 그는 군중문화지도원만 하는 일인줄만 생각했으며 다른 지도원들은 이 사업에 광범히 동원되지 못했다

결과로 학성군 민청단체들의 동맹 군중문화사업은 동맹중앙에서 요구하는 방향에서 진전되지못했으며 광범한 청년군중들이 동맹생활을 즐길수 없게 하였으며 뿐만아니라 청년군중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못하였다

학성군 동맹단채들에서는 이상과같은 결함들을 퇴치하는것을 군중문화 사업지도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적지않은 노력을 하여왔다 즉 이와같은 결점들을 퇴치하기위하여서

첫째로— 민주선전실 운영사업을 개선하여 그를 전 군중적으로 리용하며 민주선전실 중심으로 되는 독보회를 효과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민주선전실 장치도 잘 되어야 할것이지만 그보다도 선결문제는 동맹사업에 열성적이며 리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동무들로써 타단체와의 긴밀한 토의밑에 민주선전실 선전원으로 배치하며 그 동무들에게 독보회 선전원을 겸하여 책임지도록 하는사업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선전실 선전원은 구체적인 계획밑에 민주선전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있게 되었으며 또 초급단체들에서는 매월 구체적인 자기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동호회들을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운영발표 함으로써 군중들은 일상적으로 민주선전실에 모여오게 되었고 민주선전실 선전원은 시간조직을 옳게하여 이미 준비되었던 재료로써 간단한 시사선전해설 독보회등을 하게 되었다 또 하기중에 들어와서는 매개 초급단체마다 실시되는 석회가 끝난뒤 약간의 시간을 리용하여 간단한 독보회를 하는등 창의적 사업으로서 이것이 일상화되었다

둘째로—각종 동호회를 군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를 실지 운영될수 있는것으로써 조직을 개편한 토대위에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즉 문예동호회내에 연극 一〇개 음악五개 무용十一개와 체육동호회내에 축구三一개 배구五개 륙상三〇개기타 그네 철봉등에 많은 청년들을 망라하고있다 이렇게 조직한 토대위에서 동호회 책임자들에게 동호회를 계통적으로 지도하며 운영하도록 지도 방조하기 위하여 군민청은 二회에 결쳐 충분한 준비밑에 군적으로 동

체육책임자 강습회를 조직하여 동호회 운영방법 운영재료 (악부 극각본) 등을 강습주었다 이 강습회에는 음악 체육 기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동호회 책임자들에게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제시되는 새노래들을 동맹원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하여 군민청에서 매월 二회씩 상무위원회가 끝난후에 군민청 간부 전원과 면 및 면급 위원장들로 조직하는 군 단기강습회에서는 새노래를 필수과목으로서 계획에 포함하여 군민청에서 등사한 노래집을 가지고 소재지 중학 전문교원을 초빙하여 배운다

그리하여 월 一회씩 면에서 소집되는 학습회 강사 강습회에 동호회 책임자들을 반드시 참가시켜 그들에게 군민청에서 등사한 새노래집을 배포하여주고 그 새노래를 배워주고있다 군민청으로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의 각동호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게 되었다

그의 대표적 실례로서 동면 용포 二초급단체에서는 에 동호회에 연극 무용 음악과 체육동호회에 륙상 축구 기타 그네 철봉 평행봉 씨름터등에 있어 이를 매월 사업계획서에는 동호회 연구회와 발표회를 각각 一회씩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초급단체 총회에서 통과 함으로써 동호회 회원들은 정한날에는 모두 민주선전실에 모여와서 동호회책임자의 지도밑에 (동호회 책임자는 자기로 음부등을 불출알며 이 초급단체에는 손풍금 기타등이 있다) 련습을 하며 발표회 날에는 동맹원은 물론 일반 군중 특히 인민군 가족들을 초빙하여 유쾌한 하루저녁을 보내며 또 이러한 집회의 기회를 리용하여 이미 준비하고있는 재료에 의거하여 민주선전실 선전원은 간단한 시사 기타 선전 해설을 군중들에게 인식주고 있으며 또 용포 二초급단체는 매일저녁 실시되는 석회 (훈련반) 에서 새노래를 정상적으로 보급시키고 있을뿐더러 군중 석회가 끝난후에는 동맹원들은 솔밭에 모여서 모닥불 모임을 하여 오락회에서는 시 소설 랑독회등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군중문화사업이 일상적으로 생활화 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 생활에서 군중문화생활을 분리시키지않고 있으며 동맹과 청년군중의 련계를 밀접히하며 청년군중들은 동맹생활에 즐겨 참가할수있게 되었다 군민청에서는 동호회 책임자 강습회시 그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연극 영화 감상회를 종종 조직하고 있으며 또 자라나는 동호회들의 광범한 운영방법과 기술상 경험 교환과 문화사업에대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종 경연대회 발표회 등을수시로 조직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연대회 발표회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연예의 결과를 지도 받은 책임자들을 모여놓고 우단점을 비판하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각면 [illegible] 단체에서는 인민군대에 보안대 경비대 가족위안 연예를 정상적으로 가지어 자기들의 군중문화사업을 인민들 앞에서 전열 심판받고 있다

군민청 상무위원회는 매월 군중문화 지도원에게서 자체 계획서를 접수하며 지도상 나타난 경험 장단점들을 토의하고 군중문화 사업지도는 각면을 담당한 [illegible] 사업공작을 나갈때에 반드시 군중문화사업에 고려를 돌리게 하고있다 또 군간부들의 하급단체에대한 군중문화 사업지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지도간부들의 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며 지식을 풍부히 하는 문제인바 이 사업에 있어서 수시로 영화 연극 감상회를 조직하며 또 군중문화 지도원을 중심으로 「청년생활」 「민주청년」 에 게재되는 「청년강좌」 「군중문화」 란을 집체연구토론하여 그를 실지 사업지도상 적용하고 있으며 보급시키고 있다 —끝—

청년들의 과학적 창조에 대하여

유·쥐다노브

박 일 엽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서 볼수없는바와 같이 과학은 인민의 사랑을 담뿍 받고있다 쏘베트 사람들이 과학에 대하는것보다 더 커다란 존경과 주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창조의 다른 종류는 아마 찾아 볼래야 찾아볼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제기초위에서 새세계를 건설하는 쏘베트인민의 특성을 이루고있다

과학에대한 전인민적 사랑은 과학의 발전과 개화(開花)에관한 당(黨)과 정부의 점장(漸長)하는 고려(考慮)밑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탐욕한 개인소유적 관심을 가지고 과학에 대하고 있으며 이 사회는 과학을 착취자들의 부유의 수단으로서 또 근로대중의 착취와 억압의 수단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위대한 레닌은 자본주의사회의 두목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재산을 가지고있는 모든자들을 방조하여 나서 인류의 위대한 자랑 즉 지식도 로동인민의 착취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현 정책은 레닌의 이 말을 완전히 확인하고있다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지배를 보존할 목적으로 어느 발견 발명이나 모두 자기들의 침략적 제계획의 실천을위하여 새로운 세계전쟁의 도발을 위하여 리용하려고 노력하고있다

쏘베트 나라에서는 과학은 인민에 봉사하여 공산주의 사회건설을위한 그 인민의 위대한 투쟁에 봉사하고있다 우리과학의 이 고귀한 사명은 과학적 창조에있어서의 쏘베트 청년들의 과업들도 결정한다 어떠한 과학지식의 분야에 헌신한다할찌라도 젊은 인간은 언제나 쏘베트과학의 위대한 목적을 몸소 인식해야하며 자기의 모든 력량 지식을 또한 자기의 일체 창조적 정력을 이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하야만 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우리청년들의 과업은 우선 지식과 또한 젊은 학자가 앞으로 자기의 전생명을 걸고 정진(精進)하여 나가야만할 그런 사실적 자료를 습득하는것이다 이러함으로써 연구의 대상에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수있으며 자연 또는 사회의 이와같은 다른 현상을 인식하게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얻게된다

청년은 반드시 자기의 과학령역(科學領域)의 한계를 널리 관찰하게하는 경험의 근원인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직접 한 늙은 세대의 과학자들한테서 열심히 배워야한다

자기의 과학지도자가 축적한 그 지식을 섭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간 여러 세대(世代)의 경험을 부정하는 무모(無謀)한 행위는 언제나 젊은 과학일군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수없으며 과학을 전진시킬수 없기때문이다 물론 이는 낡은 세대의 과학자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야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또한 자기의 스승에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쏘베트의 학자로 되기위하여서는 지식의 수집과 축적 및 직업적 대가(大家)로서는 부족하다 애호가—수집가의 태도를 가지고서 과학에 접근하여서는 안되며 생활에서 격리(隔離)하여 조용한 실험실 연구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창조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떠한 과학사업을 불문하고 모두 인민에 대하여 목적있고 유익하고 필요한 과학으로 되어야만 한다

쏘베트 과학자의 창조는 볼쉐위끼적 당성의 정신으로써 또한 깊은 사상성으로써 관철되어야만 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볼쉐위끼적 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이는 과학을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또한 쏘베트 인민이 수행하는 그 위대한 과업들 또한 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들과 련결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쏘베트 국가의 실천ㅣ이는 수백만명의 창조이며 새로운 사회기구의 창설이며 자연에 대한 목적있고 계획적인 개조이며 또한 자연의 력량과 자원을 인류에 봉사하게 하자는 호소이다 바로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이와같은 리해는 곧 과학자를 그의 부단한 사업에서 고무시키며 과학적 창조의 무한한 한계를 과학자앞에 밝혀주며 그의 개인적 노력들을 사회의 리익들과 합께 결부시키며 공민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토록 고무시킨다

당성은 연구대상을 선택하는데서 벌써 나타나며 과학사업을 위한 테ㅣ마를 선택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과학일군이 아주 현실적인 테ㅣ마들을 회피한다든가 또는 「순전한 과학」을 운운하는 론의를 구실삼아 실생활에서 떠나려고 시도한다면 그리한 과학자는 볼쉐위끼적 당성의 정신이 결여한 학자라고 말할수있다

례를 들자면 인류의 발전법칙들을 리해하는데 필요한 고대세계제국가의 고대사를 연구하는것을 반대한다면 그릇된 일이다 그러나 어떤 력사가들이 수세기전에 삭급하여 앗씨리야 또는 애급(埃及)의 력사만을 과학이라하고 새로운 력사의 연구를 마치 어떤 비과학적인 력사처럼 대한다든가 또는 그들이 공자(孔子)의 원서(原書)를 통독할수는 있으나마 중국의 현대 정치정세를 리해할줄 모른다면 그리한 고대(古代)에대한 열중(熱中)은 벌써 불행으로 되고만다 왜냐하면 이같은 열중은 학자들로 하여금 현대동양의 현실적인 제문제를 연구치 못하게 하기때문이다

만약 실천과의 생기있는 관련을 찾지 않는 학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다음과같이 쓴 위대한 로씨야의 혁명자이며 민주주의자인 체르느이쉡쓰끼ㅣ의 말을 리해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빛나는 발전을 성취하는것은 오직 사회의 제반 요구와 산련관을 가지고있는 그런 방향들 뿐이다 생활이라는 지반속에 뿌리를 가지고있지않고 시들어져 원기없이 남아있다는것은 비단 력사적의의를 띄지않을 뿐만아니라 저절로 사회에대한 작용과 관계도 없이 소용없는것으로 되군한다」

유감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자기 사업을 실제와 련결시킬줄 모르는 과학일군들이 있으며 혹은 좁고 장마시기에 난방(暖房)하기위하여 오이에서 태양의 에네르기를 취하려는 계획에 八년씩이나 정진하다가 스위프트에 의하여 조소당한 학자를 현학적으로 모방하여 자기 사업을 일치시키는 과학일군들도 있다 례를 들면 얼마전에 어면 과학일군은 「침대의 빈대의 생태학(生態學)」(생태학은 ㅣ유기체(有機体)와 매체(媒体)의 호상관계에 관한 과학)이라는 테ㅣ마로 학위론문을 준비한 일도 있다 一견 침대에서 내려오지도않고 연구할수있어 보이는 이 테ㅣ마의 실체적의의라는것은 아주 의심되는 바이다 「자가제소주(自家製燒酒)의 화학적 성분」이라든가 또는 「황소 뿔의 제거(除去)」와 같은 그런 테ㅣ마에 대하여서도 같이 말할수있다

실례의 말이지만 만약 이러한 「과학적모작들」이 학위를 받는데 필자들을 방조하여 준다면 대체 이 학위의 가치과는것은 어떠한 것이며 진정한 과학발전사업에 이바지하는 이 로작들의 공헌이란 어떠한것일까?

때문에 실제와의 련결 사회주의적 건설과의 련결 깊은 력사적 철학적 의의에 있어서 실제에대한 리해ㅣ 이것이 바로 젊은 과학일군들을 그들의 사업에서 고무시켜야만할 그런것이다

과학에 있어서의 당성은 비판과 자아비판에 대하여 날카롭게 발전된 감정을 의미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자아비판은 결코 자기 자신에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자기 력량에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과학적 자아비판은 절대적 상대적 진리의 호상관계를 해부하여주며 또한 무궁한 인식과정에 있어서 대상에대한 보다 완전한 지식이 부분적이며 불완전하고 제약적(制約的) 지식과 학설들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여주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화강암의 토대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이런 또는 다른 테ㅣ마를 연구하며 일정한 결과들을 얻으면서 완전치않고 (절대적이 아니고 다만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만을 즉 그 진리에서 사업이 중단되지않고 다만 그 사업의 일정한 단계가 완성되는 그런 진리만을 획득한다는것을 젊은 과학일군들은 리해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달성된 결과에 대하여서는 비판적으로 대하여야만 한다 왜나하면 오직 이와같은 비판적 태도만이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것을 암시하여주기 때문이다

과학의 력사는 자기사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결여(缺如)는 많은 과학자들의 운명에 또한 과학적 제학설의 운명위에 가장 비통하게 나타났던것을 보여주고있다 전기화학(電氣化學) 학설의 창시자인 서서(瑞西)의 대화학가 베르쩰리우쓰를 례로 인용할수있다 이 학설에 의하면 화학적 결합은 쁘라쓰 마이나쓰로 충전(充電)된 원자(原子)들의 호상인력(互相引力)의 결과로서만 형성된다는것이다 베르쩰리우쓰의 이 학설은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는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학설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과학은 서서(瑞西)의 이 과학자의 학설의 국한성(局限性)과 많은 정형에 있어서 부정확성을 보여준 새로운 사실들을 풍부히 가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베르쩰리우쓰는 사실들이 자기 학설보다 편진화하였다는것 또한 자기학설은 근본적인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것을 리해(理解)할수도 없었으며 리해하려고도 하지않았다 여기서 바로 과학자의 창조에대한 부르죠아 이데오로기의 부패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부르죠아 학자는 자기의 학설을 「신성 불가침」한 소유물로 간주하고 있어 새학설들에 대하여서는 자기학설만큼 소중히 대하지않고 또한 과학발전에 있어서 보다높은 단계에 대하여서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싸워야만할 경쟁의 출현에 대하는것처럼 상대한다 베르쩰리우쓰는 부르죠아세계의 대다수의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이데오로기에 사로잡혀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하였으며 새로운 선진적 학설들의 창조자들을 비방하였으며 이러함으로써 과학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역활을 놀았던 것이다

또하나의 례로서 비르호브와 코호간의 유명한 론쟁(論爭)을 례로 들수있다 비르호브는 소위 세포병리학(細胞病理學)의 필자였다 그의 병리학에 의하면 유기체의 모든 질병(疾病)은 그의 세포활동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것이지 외적 자극자(刺戟者)들에 의하여서 생기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비르호브의 의견들가운데서 정당한 열매가 맺아지기는 하였다 즉 사실에있어 어떤 질병들은 세포작용의 불량(不良)으로서 설명된다 그러나 비르호브는 많은 리병(罹病)의 원인은 특수한 병원적미생물(病源的微生物)들이라는것을 보여준 코호와 기타 연구자들이 인증한 사실들을 알려고 원하지 않았다 비르호브는 다른 학자들의 업적들에대한 부정과 자기의 권위로써 과학계의 여론을 억압하였다 이러함으로써 그는 과학의 발전을 억제(抑制)하였다

이렇듯 자기연구의 제결과에대한 자아비판적 태도의 결여는 개별적 학자들을 과학에있어서 혁명자들의 진영으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진영으로 이끌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 조국의 과학에는 이와 다른 질서를 말하는 수많은 실례들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로씨야 화학가 아·엠·부뜰레로브는 유기화학(有機化學)의 구성(構成)학설의 창조자였다 그는 자기의 학설을 많은 수량의 사실들위에서 기초지었으며 그의 결론을 훌륭하게 확인하여준 수많은 실험(實驗)을 하였다 그러나 부뜰레로브는 동시에 자기의 학설과 일치하지않는 사실들이 수집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실들 가운데는 유기화학의 합법(合法)을 보다 완전히 보다 확신있게 반영하여주는 새로운 학설들의 싹이 있다는것을 인식하였기때문이다 부뜰레로브는 다음과 같이 썼다 즉 「자기의 과학학설의 무결성(無缺性)에 대한 무용(無用)한 확신으로 가득찬 사람은 본질에있어 과학으로부터 맹신(盲信)으로 즉 그가 반대하여 싸우겠다

고 생각하던 그것으로 향하여 복귀(復歸)한다 과학적 제학설의 무결성에 대한 맹진은 무엇으로서도 변명되지 못하는 비과학적 회의(懷疑)주의로 이끌며 때로는 자기가 특히 사랑하는 학설들의 령역외에 있는 새로운 현실적 진리들을 리해치 못하도록 방해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자아비판, 얻어들인 제결과에대한 비판적 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지향, 달성된것에대하는 불만족감, 이것들은 과학의 진정한 혁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젊은 과학일군들의 철회(撤回)할수없는 특징으로 되어야만 한다 쓰딸린동지는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있다 즉「과학은 그가 저물(呪物)을 인정치않으며 낡아빠진 옛것에 대하여 조격(狙擊)하는것을 겁내지않으며 경험과 실제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우리기때문에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과학에 있어서의 당성은 나아가서 서구(西歐) 또한 외국학벌(外國學閥)에 대한 아유(阿諛)와의 불가화해(不可和解)적인 투쟁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자기의 혈연(血緣)을 모르고 조국의 과학사(科學史)를 모르고 그의 광영과 선위(先位)와 그의 위대한 전통들을 높이 평가하지않는 그런 락후한 사람들을 과학자들간에서 만나군한다 로모노쏘브 로바췝쓰끼ー 부뜰레로브 멘델레예브 세체노브 메츠니꼬브 빠블로브 떼미랴제브 체르느이쎕쓰끼ー의 이름들로서 체현(体現)된 로씨야 과학의 이 전통들이야말로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걸어갈 길이라야만할 것이다

로씨야과학의 현저한 특징은 이 과학의 인민성(人民性)이며 민주성(民主性)이다 로씨야의 학자들은 과학을 인민에 대한 자기의 봉사로 보았다 로씨야 과학자들은 이특정을 十九세기의 선진적 사상가들이며 로씨야의 혁명가이며 민주주의자들인 게르쩬 벨린쓰끼ー 도브로류보브 체르느이쎕쓰끼ー 빠싸레브로부터 수용(受容)하였던 것이다 떼미랴제브는 인민과의 긴밀한 련관을 견지하며 인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느끼라고 로씨야 과학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과학에 종사하는 선발자(選拔者)들은 전체인민의 자신을 구성하고있으며 자기들을 선염한 그 보물(寶物)을 보는것처럼 지식을 주시(注視)하여야한다

고전적(古典的)인 로씨야 과학이 가지는 특징적인것은 사실들이 깊은 리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것, 현상들의 본질에 깊이 침투하였다는것, 커다란 근본적 문제들을 설정(設定)하였다는것, 문제해결에 있어서 독창성(獨創性)이 있다는것들이다

로모노쏘브는 문자 그대로 텅텅 비어있던 로씨야에서 과학적 대중심들을 창조하였으며 그의 발견들은 물리 화학 및 기타 여러 과학에 있어서 전일(全一) 시대를 표시하고있다 로바췝쓰끼ー는 유ー크리트 기하학(幾何學)의 추상적 구성을 배척하고 현실적인 물리학적(物理學的) 구성을 가지는 기하학의 기초들을 지었다 부뜰레로브는 유기화학을 막다른 골목에서 끌어내고 조화(調和)적이고 거대한 구성 리론의 건물을 창조하였다 멘델레예브는 자기의 주기(周期) 법칙으로써 자연계에 있는 일체 화학요소(要素)의 련합을 천재(天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다년간에 걸쳐 물리학과 화학의 발선의 길들을 확정하여 주었다 떼미랴제브는 식물의 생활력의 본질속에 깊이 파고 들어갔다 빠블로브는 최초의 과학적이고 유물적인 심리적 제작용의 학설을 창조하였다 베르나드쓰끼는 유일한 관찰로서 지상에 있는 화학요소들 및 광물들의 모든 력사를 망라시켰다 미추린은 수백의 새로운 식물형태를 창조하였다 보라! 그 범위의 넓이를 그 사상의 깊이를 보라! 로씨야과학의 거장(巨匠)들이 가지는 그 창조의 힘을!

커다란 리론적 종합에 대한 지향(志向) 문제설정(設定)에 있어서의 신기(新奇)와 독창성(獨創性) 이는 위대한 로씨야 과학자들한테서 오늘날의 그 계승자들이 배워야만할 그런것이다

로씨야 고전(古典)과학의 특징은 즉 이 과학을 관철(貫徹)하고있으며 또한 로씨야의 자연과학과 우리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선진적 철학과의 우호의 결과이었던 선후적인 유물론적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 쏘베트 과학자들은 그들이 자기의 창조에 있어서 맹목적(盲目的) 유물론에서가 아니라 엄밀히 과학적이고 확고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위에 기초지어지고 있다는 그 무량(無量)한 우월점을 가지고있다 선진적인 과학자가 되려면 변증법적 방법에 완전히 정통(精通)하는것이 필요하다 맑쓰주의ー레닌주의적 변증법은 과학

자에게 확고하고도 과학적인 인식의 기초를 부여한다 변증법적 태도는 학자로 하여금 모든 물체(物体)를 운동가운데서 보게하며 매개 현상 사실 사건으로하여금 자기 고유(固有)의 자리를 찾게하는것을 방조하여준다 변증법은 물체발전에 관한 조화적인 개념을 준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과학연구에 대한 끝없는 전망을 열어주며 인간의 리지(理智)의 힘에 대한 확신을 부식하여주며 신비(神秘) 비관(悲觀)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불신임 또한 일체 비개화주의(非開花主義)에 대한 굴복(屈服)을 내포하는 부르조아 관념론적 철학을 격쇄(擊碎)하며 폭로한다

마치 자기개인의 사업에 대하는것처럼 과학에 대하는 태도는 쏘베트과학자께는 인연(因緣)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은 자기들은 공공(公共)의 자금으로서 세운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쏘베트사람들의 손으로서 창조한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다는것 또 자기들은 인민에게 의무가 있다는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로동으로서 어떻게하면 조국에 리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만한다

저 잘난척하는 과학일군이 사회에대한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안게 될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하여 즉서는 체르느이쎕쓰끼가 가장 명백하게 똑똑히 썼다

「만약 나의 관찰범위내에서 또한 내가 거동(擧動)하는 행동권(行動圈)내에서 공적(公的) 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들과 자극들이 제거된다면 다시말하자면 공민의 리유들이 제거된다면 내가 관찰할것은 무엇이 남아있을까? 무엇에 내가 참가하게될까? 자기 호주머니 자기의 배(腹) 또는 자기의 작난질에 대한 협소한 개인적 로심(勞心)밖에 하지않는 개성(個性)의 귀치않는 번잡(煩雜)이 남는다」

공공의 행복에 대하여서가 아니고 인민에의 봉사에 대하여서가 아니고 과학의 리익에 대하여서가 아니고 다만 어떻게하면 학위를 얻을까 어떻게하면 좀더 안락하게 생활을 건설할까 하는것만 생각하는 속인(俗人)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 과학에있어서 이같은 리기주의자들과는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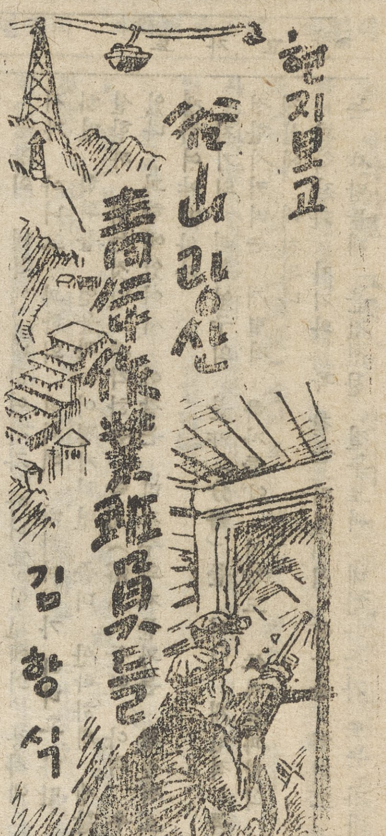
자기의 과학연구의 분야(分野)를 어떤 개인적 독점으로 전환시키려는 개별적 학자들의 지향도 쏘베트과학의 참다운 정신에 배치된다

과학자가 자기와 꼭 같은 령역에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께 불건전한 질투로써 대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과학령역에 있어서 다른 방향들의 발전을 방해하기위하여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리용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과학에 대한 개인소유적 태도는 우리에게 있을수없는 태도이며 또한 있어서는 아니될 태도이다 여기서 곧 우리는 이·브·미추린의 열정적이고 감동을 주는 말을 회상키로하자!「나의 계승자들은 나를 앞서야만하며 나를 대립시켜야만하며 나의 로작을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뒤들어 부시기까지 하야만한다 다만 이같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사업속에서만 진보가 생겨지는 것이다」

과학에서는 여러가지로 창조를 할수있다 기성(既成)학설을 완성하며 어떤 본질적이 아닌 부분을 찾아 보살펴 보려는 기대속에서 이미 천번이나 한것을 천번이나 반복하면서 조금씩 작은 발걸음으로 나아갈수있다 그러나 곤난을 두려워하지않고 대담하고 독창적인 문제의 해결들을 제기하며 새로운 학설들 및 종합을 창조하며 과학의 업적들을 실제에 결정적으로 보급시키는 커다란 과업들을 자기앞에 내세울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날 한시같은 평한 사업을 거부하야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날 한시같은 사업은 그가 커다란 사상과 대담한 학설의 빛으로 빛날때는 류황(硫黃)으로는 되지 안게된다 과학지식에 대한 선전이다 젊은 과학자들은 누구나 다 공산주의적 자각과 인민대중의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당을 방조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인민에게 전수(傳授)하며 각종 미신 편견(偏見)과 완강하게 교모하게 투쟁하려는 지향에 불타올라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제반 고등교육기관내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적 사업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협회(協會) 동호회(同好會)에서 미래의 전문가들은 연구사업에대한 여러 방법들을 배우고 있으며 과학적 활동에 참가하고있다

곤난하나마 명예스러운 과학연구사업의 활동무대위에 처음으로 나서고있는 청년들은 반드시 문제해결에있어서 과감성(果敢性)을 가져야만하며 새로운것을 탐삭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굴한 인내성을 가져야만하며 달성된것에 항상 불만을 가져야만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장래를 지니고있는 청년은ー우리나라 국경밖에서의 과학의 업적들을 따라잡을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앞서 나가」야한다고 쓰딸린동지가 제시(提示)한 과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전력을 경주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현지보고
谷山광산 靑年作業班員들
김 항 식

협주한 百年川의 줄기줄기를 따라서 계곡의 線은 뻗는다

충암절벽은 좌우에서 닥아서고 깎아세운듯한 단애들이 文成嶺을 넘어서부터는 차차로 더 높아만 가고 골짝을 에워싸 병풍을 두른다

이윽고 트럭은 광산촌에 다달았다

×

공화국 중공업 발전에 하나의 초석으로 되는 황해도 곡산광산은 지금 당크스텐 생산에 온갖 힘을 기울어 제二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에로 힘차게 전군한다

곡산광산 전체 로동자들과 민청원들의 들끓는 로력투쟁의 결과로 본광산은 작년도 년간계획을 一〇九、九%로 초과달성하여 산업성 상을 받았던것이며 금년도 一、四분기에는 더욱 고도로되는 생산의욕을 기울어 三월十七일 오후 八시에 전광산 책임량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二、四분기에와서는 一、四분기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맹세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예정숫자를 六월一八일 오후 一시에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곡산광산 전체 로동자들과 민청원들의 애국적 열성의 결과로 一、四분기에는 내각으로부터 영예의 우승기 및 상장을 수여받아 본 광산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쳤던 것이다

×

본 곡산광산 민청위원회에서는 동맹중앙 제四차 상무위원회의 "성진제강소 민청단체들의 청년작업반 사업과 기술습득사업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청년작업반 내부조직과 그 운영에 존재하던 제결점들을 시정하고 청년작업반들에서 높아야할 기본임무를 강력히 침투시키었으므로 청년작업반의 중심문제들이 강력히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으며 전체 민청원들이 청년작업반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곡산광산 민청원들은 광범한 증산경쟁 운동을 련속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왔으며 八·一五 四주년기념 증산경쟁을 二、四분기 사업총결과 동시에 조직 전개하여 그 기세를 고도로 발휘하였다

본광산 전체 민청원들은 동맹 제三차 대회에서 하신 김장군의 말씀을 뼈에 새겨 선진적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능률을 급속도로 제고시킴으로써 증산경쟁운동에 보다 큰 성과를 걷우고 있는 모범적인 청년작업반들을 창조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광범한 로동군중을 증산투쟁에로 고무 궐기시키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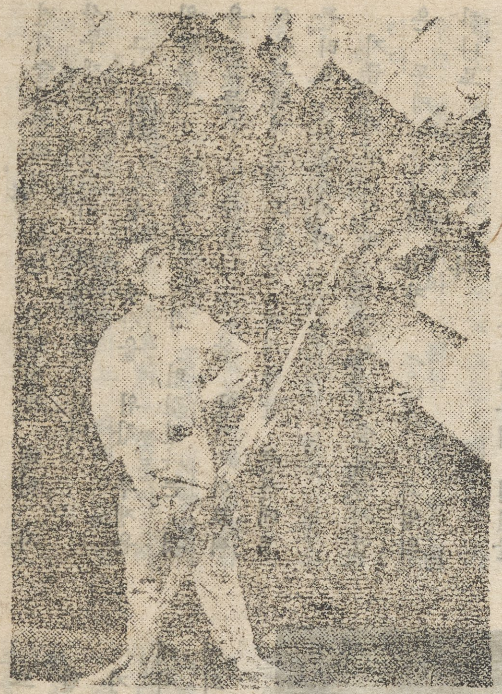
청년작업반내 기능로동자 기술자들은 매반원으로 하여금 매월 기술습득에 대한 자체계획서를 수립하게하고 각각 반원들을 분담하여 작업과정에서 기술전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급단체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토론 비판과 아울러 가강한 지도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작업반원들은 로동규률을 엄수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내세우고 四八〇분 로동시간을 一〇〇% 확보하도록 로력조직을 합리화시키며 출근률을 높이는데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재산을 애호하는 운동에 있어서도 모든 생산도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기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창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투쟁을 그들은 전개하면서 있는것이다

×

선광기계보수(選鑛機械補修)청년작업반에서는 지금 기술전습 사업에 모든 힘을 기울어 광석표본과 二〇〇종의 선광기계부속폐품 七三〇종의 도본을 장치한



연구실을 반원들의 노력으로 설치하고 각종기계를 실지 연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계획공수를 적은 로력과 짧은 시간으로 완수하기 위한 헌신적 로력투쟁을 로동군중속에서 전개하여온 결과 자기 책임량을 평균 一三五%로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선광기계 운전률을 一〇〇%로 보장하고 있어 전광산을 통하여 계획생산량 초과달성의 강유력한 조건의 하나로 손곱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반원들의 창의로 폐품으로 있던 "감속기"四대를 수리복구하여 국가에 五十만여원이라는 리익을 주었으며 쇄광장(碎鑛場)오일뽐부를 개선 수리하는데 폐품을 주어 모아 기계운전에 지장으로 되어오던 오일순환유통을 해결하였으며 쇄광장 기계안전장치를 전에는 목재로 장치하여 불과 반년이 못가 파괴되던것을 반원 박동춘동무의 창의로 철재 "양수루"를 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안전에 만족을 가져왔으며 내구력에 있어서도 비약적 향상을 초래케하였다

철광장 청년작업반에서는 특히 제품의 불합격품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엄격한 검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계획량의 평균 一三〇%의 작업능률을 내고 있다

반원 노준문동무와 강유혁동무는 스라이트 메달 二〇〇대분을 二五일간에 제작할것을 一五일간에 완수하였고 작업반장 홍용구동무를 비롯한 반원들의 창의에 의하여 암페트브르그 一〇〇개 도롬밀 철판 六五매 모타메달 四〇개를 새로 주물 제작하여 생산하는등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동력과 전기부 청년작업반에서도 반장 김윤섭동무를 비롯하여 七명의 작업반원들이 전기부의 가장 사업상 애로로 느껴오던 변전소와 배전소를 단일화하는 변전소 이동공사를 반원 七명의 주동적 역할과 애국적 열성으로 三三공의 로력계획공수를 一六공의 로력으로 완수하여 모든 부문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있다

건설과 기계계 청년작업반은 七월에 조직된 첫날부터 자기들의 사명이 중대함을 자각하고 맡겨진 공사를 계획로력보다 적게 들이며 기일을 단축하여 완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파업까지 초과완수 함으로써 모터부속의 애로를 불타는 애국열로써 타개하고 있으며 원가저하에 커다란 공헌을 끼치면서 있는것이다

채광 단야장 청년작업반은 三교대별로 三개 작업반으로 조직되어 한교대 작업반원 남자 "샤푸나"운전수 三명 녀자 조수 六명으로 三대의 "샤푸나"를 책임지고 자기계획을 넘쳐 실행하고있다

그중 샤푸나조수 신순녀동무는 녀성반원으로서 四개월동안 기술전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지금은 샤푸나 一대를 원만히 운전하며 남자반원 이상의 능률을 올리고 있으며 반내 녀성동무들에게 자기 경험에 대한 기술전습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채광 中切十九井의 청년작업반도 금년 七월에 조직되어 지하채굴 작업에 있어서 자기의 열성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전체 로동군중의 모범이 될만한 강력한 부대로 자라나면서 있다

이밖에 우리 동맹원들은 전체 로동군중속 깊이 침투되어 본곡산광산의 아람찬 생산계획량을 보장하는 실지 원동력으로 되고있어 행정적으로 조직되는 모든 생산부문에서 증산투쟁의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광산민청은 동맹중앙의 제반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동맹정치교양사업과 기술교양사업을 통하여 고상한 로동관념을 주입하며 로력에서의 곤난과 애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견결성과 인내성을 배양하고있으며 기술습득에 대한 무관심과 청

년기술자들에게 있는 안일성에 대한 사상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설과 증산을 위한 투쟁은 원쑤들과의 투쟁과 직접 련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며 이로써 원쑤들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을 증산에로 돌리고 있는것이다

지금 청년작업반 사업과 기술전습사업은 동맹원들앞에 가장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청년들은 또한 보람큰 젊음의 정열을 남김없이 기울여 군중문화사업과 각종형식의 선전사업을 이 사업들에 결부하여 진행시키고 있다

열성맹원을 찬양하고 락후맹원과 사업상 결점들을 폭로 시정하는 벽보공작과 지금까지 [illegible]칠있는 자들끼리 모여 그루빠적으로 존재하던 문예써클들도 민청원의 영향아래서 로동군중의 문화적 위로와 생산에 련결되는 군중적 활동으로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다

×

드르륵— 드르르륵— 탕! 탕! 지금도 채광 단야장(鍛冶場)에서는 가슴을 흔드는 장쾌한 음향이 울린다

청년작업반원들은 〃샤푸나〃앞에서 콕스로에 들어가 뻘겋게 달아 나온 정대를 단조하고 있다

드르릉 드르릉— 쿵! 쿵!

발파하는 폭음이 지층을 흔든다

지금도 中四十九井의 채광 청년작업반에서는 곤난한 카—부 굴진공사를 억세 밤의 투쟁으로 전개하면서 있는것이었고



줄기 줄기 뻗어나간 坑內 곳곳마다에서 아람찬 증산의 함성은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게—지〃는 쉼없이 오르나린다

坑外로…… 선광장으로…… 엔드레스는 광석을 만재하고 달린다

선광장 꼭대기 大割場으로 엔드레스는 철로위를 로푸에 끌리워 올라간다

일산백톤의 광석을 거침없이 소화하는 선광장—

콩그라샤(碎鑛機)의 육중한 만도링카바를 집부르그로 끌어 올리어 수선작업에 여념이 없는 선광기계 보수 청년작업반 동무들의 씩씩한 모습들!

부레끼구라샤는 쉼없이 굵은 광석을 깨물어 부서 트린다

×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가는 그들의 앞에는 패배가 있을수 없다

증산에로—

건설에로—

줄기차게 뻗어 나아가는 길에서 그들은 로력투쟁의 벅찬 성과를 걷우면서 나아간다

공화국 중앙정부의 정확한 시책아래서 동맹조직에 튼튼히 집결하여 동맹중앙의 제반결정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청년작업반조직을 일층 확대강화함으로써 여러차례에 걸친 경쟁운동을 일시적인 돌격식 사업으로 끄치는것이 아니라 이를 생활화한 사업으로 공고 발전시키면서 그들은 나아간다

—끝—



現代報道

풍성해가는 마을

송 철

地熱 뜨거운 八月도 거이 저물었다

감격과 새 결의로 뒤끓던 八·一五 네돐도 지난 그 어느날 기자는 江東郡 승호 광천리 초급단체를 찾았다

勝湖서 도보로 二十里—

기자는 마을 초급단체 위원장 리중근 동무를 찾았다

그는 오늘 어엿한 땅의 임자가 되어 지난날 주린 베를 졸라매고 혹심한 지주놈들의 착취속에서 허덕이던 그런 농민는 이미 아니다 오늘 그는 제밭을 가꾸는 떳떳한 토지의 젊은 주인인 것이다

자기의 밭에서 흙을 애끼며 쓰담으므며 가꾸는것처럼 즐거울데가 어디 있으랴……

기자는 초급단체 사무실로 안내 받았다

바루 그것은 리중근 동무의 사랑방이었다 방안에 위로 주른히 꽃문이 아름다운 의롱이 자리잡히고 벽에 걸린 괘종이 정오를 알린다

×

八월달의 이마을 초급단체 사업의 기본방향은 동맹중앙 제四차 위원회 결정서 집행정형에 관한 중간검토와 아울러 그기간에 있어서의 우결점들을 자체환경속에서 분석해내어 조직사업에 있어서의 개선강화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마을 각 정당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는 청초채취사업을 초급단체에서는 반별 종류별 수량등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를 민족적 명절인 八·一五해방 四주년 기념증산 운동과 결부시키어 위선

첫째—반내의 핵심을 강화하며

둘째로—반파 반사이의 반경쟁 조직문제와

세째로—개인경쟁조직 문제

네째로—청초의 성능과 그의 종류들을 분류하여 적당한 밭과 논에 사용하는문제

다섯째—계획량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계획의 주밀성 등등이며

특히 인민군대 가족 원호사업의 한부분으로서 조국보위의 초소에 영예롭게 나선 인민군대 가족 청초채취사업의 협조에대한 초급단체의 사업계획이 따로이 있다

즉 어느 반에서는 어느 집의 청초채취사업을 담당하며 어떻게 로력들을 제공할 것인가에대한 반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날짜와 분담종류를 각각 분류한 남아지 그 사업의 성과적 보장에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초급단체에서는 청초채취사업이 한창 진행되던때인 七월에서 八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로력으로 위안사업으로 선물증정 조직으로 각각 고상한 애국열들을 보이고 있으며 보리 할곡시와 조기현물세 납부사업에도 전체맹원들이 동원되어 자기들의 책임량을 애국적 헌신성을 다하여 발휘하였을 뿐만아니라 인민군대 가족 협조사업에 헌신적 활동들을 아끼지 않았었다

×

이곳 초급단체에서는 맹원군중들을 초급단체 위원회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 동맹중앙의 지시 결정과 자기환경내에서 발생된 제반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이를 추동하고 검열하며 총화짓는 지도사업들을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총회결정서에 의거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즉 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맹원된 영예를 더욱 북돋아주며 맹원으로서의 자랑과 의무를 철두철미 인식케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제땅을 남달리 더 기름지게 가꾸며 자기앞에 놓인 과업을 제때에 실천할줄 아는 열성맹원으로서 훈련주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즉 지금 맹렬히 벌어지고 있는 청초채취사업 진행과정에서 그들의 반을 더욱 강화하며 동시에 강력한 정치교양사

업과 기술전습사업을 가강히 내세우고 있으며 항상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마을 민주선전실에 동맹원들을 모아 놓고 오락회와 강연회들을 가지는 한편 청년으로서의 고상한 정서를 보다 더 키우기위하여 우리동맹 기관지 「민주청년」 및 「청년생활」 등에 수록된 시 소설 수필들을 탐독하는 등 사업으로서 항상 맹원들을 동맹조직과 자기생활을 동맹생활화시키기 위한 방책들을 세우고 있다

×

다음으로 광천리 농촌초급단체의 정치교양사업을 본다면 위선 언급치 않으면 안될것이 이곳 마을 민청원들의 고도로 되는 학습열이다

오늘 이들은 조국과 인민을 파는놈이 그 어느놈임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그를 타도 분쇄할 의기가 충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떳떳한 땅의 임자로서 조국의 민주발전과 완전독립을 위한 거찬 증산운동을 다종다양의 형식과 내용으로서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오늘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제반민주건설의 견실한 민주역군으로서의 궁지에 불타고 있으며 특히 토지개혁의 혜택으로서 전에없던 풍성한 생활을 영위하게된 복된 조건을 똑똑히 알고 있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그들의 투쟁적 구호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 농산물 다수확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라는 것이며, 조국의 절반땅인 남반부 농민들에게도 우리와 꼭 같은 풍성한 생활속에서 행복을 꼭 같이 나눌수 있게 하기 위해 망국노 리승만 괴뢰도당들을 뿌리채 소탕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직 그들이 땅의 영원한 主人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문맹에서 벗어나 자기를 정치적으로 훈련하며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참된 조국의 젊은 투사가 되기위한 꾸준한 자체정치교양사업을 전개하여 온데 기인된다고 본다

그러나 마을 초급단체 위원회의 정치교양사업에대한 사업조직은 마을 전체 맹원들이 요구하는바 그 수준에 서있지 못함을 말아니할수 없다

이제 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의 어초급단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부분적 결점들을 캐어낸다면

첫째로ㅡ맹원들의 의식수준과 강사의 강의제강이 일관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못하며

・둘째로ㅡ동맹학습제강을 집행하는데 있어 체계의 확립과 집도의 속도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계통적인 교양사업이 전개되지 못하며

세째로ㅡ초급단체 위원회에서 교양사업에 대한 문제는 총회나 기타 림시총회에서 집체적으로 연구분석하여 보지않고 총회와 학습회문제토의를 분리시키려는 부분적 현상이 존재하고있다

네째로ㅡ유능한 강사들이 부족한 까닭으로서 학습회때에는 구체적인 연구토론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적 경향이 남아있다

이상 몇가지 결점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로ㅡ강사들은 항상 동맹학습제강을 연구 분석할것이며

둘째로ㅡ맹원군중들의 리해정도와 소화여하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맹원군중들이 학습회에 참가하여 실로 자기의피와 살이 될만한 교양을 쌓을수있겠는가 하는것을 파악할것이며

세째로ㅡ새로이 제기되는 교양사업에대하여서는 초급단체적으로 긴급히 해결할데대한 방법과 면민청이라든가 군민청지도원에게 문의하여 옳은 방향에서 이를 추종시킬것이다

네째로 자체환경에 알맞는 강의제강을 강사들은 준비할것이며 생활속에서 이를개진하여 발전시킬수 있는 문제로서 취급하겠금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

풍성해가는 마을이다

실로 四년전과 오늘과는 근본적으로 생활이 전변되었다

땅에 임자가 되었다

문맹에서 벗어 났다

뿐만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자기네들의 땀을 흘릴줄아는 열성으로 충만되어 있다

일하는 여가를 타서 마을 청년들은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밤일 나아갈때도 그들은 책을 옆에 끼고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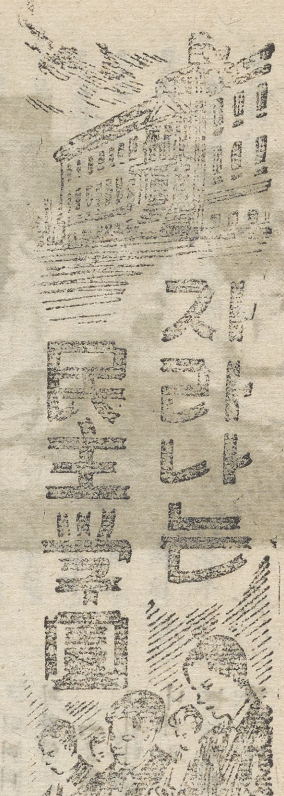
요짐은 밤이되면 민주선전실에 모여 八・一五경쟁 청초채취사업에서 얻은 반의 역할이라든가 개인 경쟁이야기를 하며 경험을 교환하고있으며 랑독회 오락회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반부 농민들에게도 땅을 주어야한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조국 남반부에서 미제를 물러가게 할것이며 그의 주구 리승만도당을 타도분쇄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념원이기에 조국전선 선언서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 중앙정부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이 부르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것이다

ㅡ끝ㅡ



자라나는 民主學園 (六)

평양제一녀자고급중학교 篇

정 숙

교정을 에워싼 아까시아나무 그늘아래서는 지금 피아노소리구느는 선률처럼 웃음꽃이 피어 白花의盛裝을 련상시키는 때진 女學生들의 즐거운 시간이 번어졌다 새학기를 기꺼이 맞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정녕 감격괴 새로운 결의ㅡ 그것으로 충만되어 있다

기자는 제一高女中 민청위원회를 찾았다 나란히 절린 초상화며 그를 둘러싼 가지가지 구호들이 유달리 정성스러웠다

이따금씩 열어제낀 窓門으로는 분홍색 가텐의 포기와 함께 바람이 스며든다

즐거운 班生活

다섯명 내지 여섯명씩으로써 구성된 반의역활은 실로 학교내 초급단체를 강화하는데있어서 기본고리로 되는것이다

「반에서는 항상 반원들을 굳게 결속하여 전체 반원으로 하여금 우수한 맹원으로 되게하며 또한 그러하기 위하여 높은 학업성과를 보장하는데 계획적 사업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반에서는 그날 학습한 전과목을 그날중으로 충분히 인식케하는 호상연구와 복습을 집체적으로 하고있으며 뿐만아니라 다섯 여섯명정도로 구성된 자기반내에서 한명의 락후한 학생도 산생시키지 않기 위해 반파 반사이의 경쟁적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반이라는것이 본교민청위원회산하 초급단체마다에 있는 민청반인 것이다

위선 매개 민청반에서는 본교민청위원회 결정과 초급단체총회 결정지시들을 자기반내에 구체화시키는 반계획을 一개월 二회씩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위한 힘찬 투쟁을 가강히 하고있다

일찌기 학생들에게 김일성수상께서 교시하신바와같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련마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애국적 민주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우리조국의 준비된 민족간부로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의 임무완수에 온갖 정력을 다하고있는 것이다

본교 민청부위원장 신우순복동무는 다음과같이 말한다

「반생활을 하는것이 더없는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험시기에 있어서 민청반은 누구하나 락오생을 낳지않게 하기위해 그 반원이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요 이와같은 반내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깐 그 우수한 동무들의 뒤를 모두가 따르게 됩니다」

×

오후 둘째시간이 끝난다음ㅡ 기자는 민청반원회의가 시작된 九교실로 들어갔다

아담한 교실이다

여섯동무가 빙 둘러앉아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동무가 다음과같이 지적한다

「오늘만 하여도 우리반에서 지각자가 한명 나왔습니다 우리반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왜 지각하였는가 그 리유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하여 그반은 민청초급단체의 총회결정을 철저하게 집행할뿐만 아니라 학교규률을 엄수하는데 있어서도 엄격한 규률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적 규률이며 고상한 생활모습이라고 다시한번 믿어진다

×

다음 十三교실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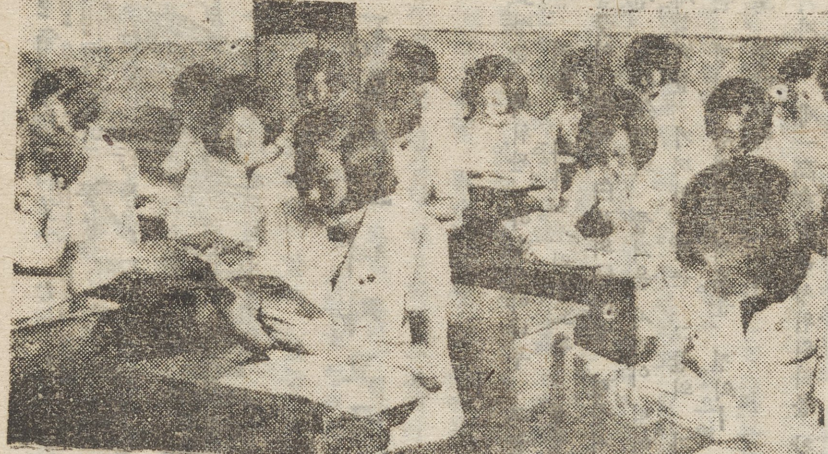
같은 반원회의이면서도 九교실과는 전연 정반대되는 풍경이다

반장동무의 말이 계속된다

「그렇기때문에 새학기에 들이와서도 우리반이 자랑할수있는 지난학기의 고귀한 경험을 되살리어 보다더 우수한 반이 되기에 우리는 꾸준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지난 학기말에 표창을 받은 班이리라 나는—생각하였다

「우리반에서 전체반원들이 四계단이상의 성적을 쟁취하게 된것도 또한 학교규률을 잘 지켜온것도 두말할것없이 초급단체총회 결정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맹원된 자각이 높았던 까닭입니다」



알고보면 이 班은 일곱명반원을 가진 우수한 모범반으로서 항상 일곱동무가 동일한 조직생활속에서 규률을 잘 지키며 학교에서 학습한 전체과목은 밤에 한집에 같이 모여서 전부 이를 머릿속에 간직하는 철저한 복습을 전개하는 班이다

여기는 제四교실— ×

어떤 반하나가 지금 간첩토의문제가 있다하여 소집되었다 한다

이 반에있는 리옥현동무의 오빠가 며칠전 영광스럽게도 조국보위의 대임을 띠고 영예로운 인민군대에 입대되어 래일아침이면 곧 출발이라한다 그러기때문에 위문품과 편지를 우리반에서는 매개반원이 만들것과 이를 전달하자는 것을 토의하고 있다

물론 반원 모두가 이에 대하여서는 대찬성이다

뿐만아니라 다른 반에다도 이를 반영시켜 호응을 얻자는 것이다

다른 반에서 열광적으로 호응을 할뿐만아니라 가정방문 연예회등도 조직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리옥현동무는 반회의에서 다음과같이 말한다

「물론 동무들의 성의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교적으로 조직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의 오빠를 환송하는 사업은 저의 반에다만 맡겨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새학기를 맞은 우리들은 전교적으로 어느 일요일을 다서 다른 많은 전사동무들을 찾아 위안사업을 한다든가 그의 가족원호사업을 조직하는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자는 그들의 반생활에서 아름다운 새시대의 정경들을 보았으며 또한 그들이 지향하는 새로운것—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준비된 미래의 기둥이 되기위해 학습과 교양사업과 동맹생활속에서 나날이 자라나는 면모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거워짐을 느꼈다

―

기쁨에 찬 써클 생활

본교에는 다음과같은 써클들이 있다

음악써클, 무용써클, 연구써클, 미술써클, 문학써클등으로 문화교양을쌓는 써클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술써클로서 사회과학써클, 수학써클, 생물학써클, 물리학써클—

등등이있다

이와같은 써클중에서도 문학예술써클부문의 써클은 학생들의 문학적 예술적의욕을 더욱 앙양시키며 그들의 즐겁고도 고상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으로 학생들을 교양높고 생활이 풍부한 간부로서 훈련주는데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학써클에서는 주기적으로되는 문학강연회를 조직하고 강사를 문학예술총동맹에서 초청하여 널리 학생들에게 문학예술 일반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있으며 학생자신들의 창작품들을 벽보등에 발표하여 그들의 창작의욕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속에서 얻은 고귀한 모습들을 작품화하여 이를 써클합평회에서 감상검토하는 사업을 수시로 가지고있다

다음으로 기자가 직접 음악써클실에 들어가보니 실로 설비가 완비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써클공연만을 주로하는것이 아니라 음악리론과 선진적 쏘련의 인민음악사등을 학습하고 있다

기타 미술 무용등 학습시간의 여가를 리용하여 써클 모두가 견전한 분위기속에서 명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오직 본교 민청위원회에서 써클사업지도에 대한 구체적 지도방침을 내세우고 이 사업을 추동한데 기인된다고 아니할수없다

특히 본교 써클중에서 가장 특색있는 써클들이 자연과학계통의 써클들이다

매일요일마다 자연과학써클원들은 산으로 강으로 나아가, 식물채집 또는 동물표본등을 만들어 수많은 종류의 것을 축적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八·一五해방 四주년기념 전람회에 많은 표본들을 제공하였다

희망에 넘친 새학기를 맞으며

부위원장 선우순복동무는 새학기를 맞는 학교민청단체의 새로운 과업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같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기위하여

1、강의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특히 학습규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지각 조퇴 결강등을 퇴치할것

2、복습사업과 예습사업을 추동하여 호상 협조적정신을 앙양시키며 집체토론회 노트검열 기타 각종 창발적사업을 조직할것이며 특히 민청 반사업을 더욱 강화할것

3、각종 써클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보충적학습을 높이며 지기소질과 취미있는 부문의 과학기술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함에 방조를 줄것

등을 당면과업으로 내걸고 김일성수상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원쑤와의 싸움에 용감하며 미래의 준비된 훌륭한 일군이 되기에 전력을 다할것을 굳게다지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가 되었다 ×

해는 이미 기울었는데 민청실 유리창틈으로는 씨원한 첫가을의 감촉을 느끼게하는 바람이 솔솔 새어들어온다

저녁노을이 트인 하늘에 한불 깔렸는가하면 교정을 덮고 이곳 창문에 붉게 물들었다

교정에서는 그칠줄 모르게 女學生들의 희망에 겨운 꽃웃음소리가 노을이 고운 하늘에 퍼어져오른다

반과 반사이의 배구시합이 한창이다

샛하얀 뽈은 무동 손에서 손으로 범쳐 하늘로 오르고 강당쪽에서는 록음에 무성한 나무숲을 거쳐 피아노소리가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새어나온다

기자는 여러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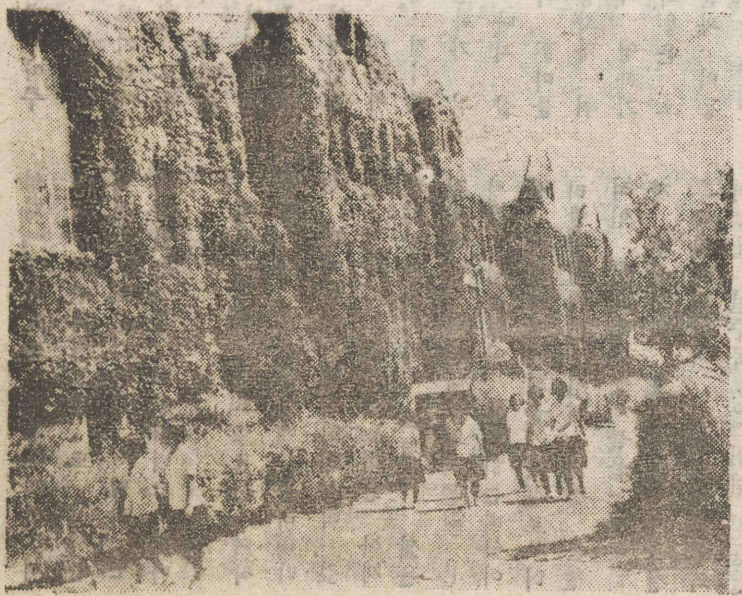
공화국 중앙정부의 올바른 교육시책밑에서 자유로이 학습하며 공부하고있는 그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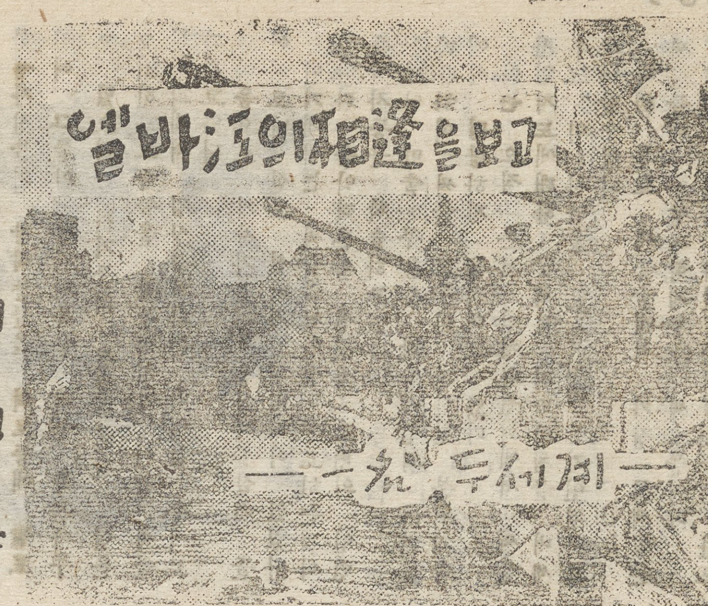
이곳 전체학생들은 자기들의 행복한 환경과 즐겁고 희망에 넘친 오늘의 처지에 대하여 다시금 공화국 중앙정부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에 대한 끓어넘치는 감사의 뜻을 금할수 없는것이나

기자는 그들의 광활한 앞길에 영광이 있음을 축복하면서 교문을 나섰다

창마다 노을이 곱게 물들었고 민주수도의 거리는 더욱 아름다웠다

一九四九·九·五





리영준

영화「엘바江의 相逢」은 一九四九年 모스필림의 작품이다

이작품의 연출자는 이미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곡예단」「희락천국」「볼가의 노래」등을 연출한 쏘련영화계의 저명한 연출가인 알렉싼드로브이다 씨나리오는 뚜루형제와 세이넘이 썼으며 촬영은 에기나와 몸브로쓰끼 음악은 쏘스따꼬위치가 담당하였다

이 영화는 一九四五년 五월 一일 팟쇼독일군을 격멸하고 알펜스따뜨市 엘바江의 동부지대를 점령한 쏘베트군대와 서부지대를 점령한 미국군대와의 상봉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량지대내에서 엘바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실제 사건들을 영화화한 것이다

연출가 알레싼드로브는 「량군대의 엘바江에서의 상봉은 쏘베트동맹과 미국의 군복을입은 순박한 사람들의 행복스러운 형제적인 상봉에서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이는 또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의 대표자들과 자본주의적인 세계의 대표자들과의 충돌이기도하다 두세계—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엘바강에서 상봉하였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과같이 영화「엘바강의 상봉」은 오늘의 두세계몰 조금도 거짓이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고 볼수있다 그것은 연출가가 자기말에서, 「이영화에서 리용된 모든 것들은 검증된 실제의 사건들이며 증거문건들이다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꾸며낸것이나 고안해낸것이 없다」라고 언명한데서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하여 더한층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영화가 취급하고있는 사실들이 단지 실지의 사건들이라고해서 흥미를 느낀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취급하고있는 내용은—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오늘의 우리조선의 현실과 비등한데서 우리는 두세계를 더욱 명확히 관찰할수 있으며 또 판단할수 있게한다 알펜스따뜨市의 엘바강은 오늘의 우리의 三八선과 비교하게된다

때문에 엘바江의 동부지대는 쏘련군이 주둔하고있었던 三八선이북과 대비할수있으며 엘바江의 서부지대는 미군이 아직까지 주둔하고있는 三八선이남과 대비할수있다

여기서 나는 구구히 오늘의 두세계를 해석하고자 하지않는다 오직 나는 우리가 이미 다 잘아는 판이한 두세계가 영화「엘바江의 상봉」에서 어떻게 표현되였으며 또 작자는 이것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리해하려고 한다

×

연출가 알렉싼드로브는 이작품을 약 백분동안에 흘러내리는 필림속에 형상화하는데 값은 연구와 많은 노력을 아끼지않았던것이다 그것은 짧은 필림속에 미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을 남김없이 표현하는데있어서 자기창작계획을 현실로부터 리탈시키지않으면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명백하게 진실하게 표현하였으며 전후독일에 있어서 인데리겐차들의 새로운 민주독일을 위한 활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데서 볼수있다

또 파시즘과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영웅한 쏘베트군대의 모습과 통일적 민주주의독일을 위한 투쟁에서 쏘베트인민들의 쏘베트적 휴매니즘의 명료한 표현과 새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쏘베트동맹의 평화옹호정책들이 가장 명백하게 표시된 그것이다

이것을 다시 종합한다면 세계평화와 민주를 대표한 쏘베트인민과 세계지배와 새전쟁을 부르짖는 미제국주의자와 전후독일을 대표한 여러 사회계층들이 이 필림에 반영되이 민주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것이다

이 영화의 첫머리에서 우리들은 쏘련군의 점령을 두려워 보잘것없는 배를 타고 동쪽강기슭을 떠나 엘바江을 건느려고 많은 나치스거물, 투기업자, 에스에스대, 장교 공장주들이 아우성을 치며 물에 빠지며 서로 자기목숨을 보진하려고 대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수 있다 한편으로는 용감한 쏘베트군대가 점령하여 들어온다

나치스트 스테따우의 비밀편락, 히틀러호 침몰, 쏘련군을 맞이하는 환호소리, 엘바江 서부지대에 미국군대가 들어온다 쏘련군을 맞이하는 기쁨을 참지못하여 배를 타고 혹은 헤엄쳐 건너오는 미군병사를 서로 포옹하며 키스하며 어쩔줄모르는 두나라 병사들— 이와같이 승리의 환호속에서 전개되는 장면들이 벌써 관중으로하여금 통쾌 초조 불안 감격등의 감정으로 이끌고 나간다 그러나 이 여러 장면들을 연출가 알렉싼드로브는 적당한 캇트로서 아주 스피—디한 장면전환으로써 전개시켰기 때문에 퍽 유니티—한 감을 주는것이다 그러면서 연출가 알렉싼드로브는 자기의 많은 작품에서 특이한 경향으로 나타나고있는 풍자적인 연출스타일을 버리지않고 이것을 더 한층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게하였다 그것은 이작품전체에서 찾아볼수있는 많은 대사(台詞)에서도 긍정할수 있으나 특히 미군경비사령관 겜스 힐이 쏘베트경비사령관 꾸지민을 처음 만났을때 딸라지폐에다 「미국통화는 아무데에도 통용된다 전세계에서 그것을 막을 장해물은 없다」라고 기입하였었으나 그후 자기눈으로 직접 쏘베트사람을 보고 또 그들에게서 많은것을 배운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금 기입하기를 「세계에서 딸라보다 더 강력한 진리가 있다는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바꾸어썼다 이것은 물론 평범한 미국인 힐 자체가 꾸지민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에 그의 사상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양받은데서 오는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오늘의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딸라의 교육을 실시하였기에 이와같이 딸라의 노예들이 되었던가를 알게하기 때문이다

또한가지 실례는 미륙군대위 뜸미의 행동에서 찾아볼수있다 뜸미는 알렉싼드로브자신이 말하듯이 미국교육체계에 의하여 바보가된 전형적인 양키—로 표현시켜 미국의 사회상을 풍자하였던것이다

연출가 알렉싼드로브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단지 풍자로써 비판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다 그들의 추악한 정체를 노골적으로 표시하였다

쏘베트구역내에서는 독일의 민주주의적 평화를 수립하기위한 온갖 대책들이 실현되고있다 즉 파시스트의 군수공장은 평화산업을 위한 공장으로 전환복구되며 새로운 민주주의절서를 수립하기위한 시장선거등 이와같이 쏘베트군대는 정치 경제 문화 각부문에 있어서 백방으로 독일인민들의 평화건설사업을 원조보장하여 주는 대신에 미군구역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미군사령관 마크 데르모트는 쏘련에대한 적대적인 행동과 나치스트의 재양성을 피하면서 재전쟁을 준비하기위한 수단을 리용할뿐아니라 월가의 주구로서 어디까지나 독일인민을 희생하면서라도 자기의 투기업을 만족시키려는 전형적인 미제국주의자이다 여기에는 인종차별이 심하다 독일인 통행금지 흑인들의 구타사건등 그야말로 암흑세계이다

이 판이한 두세계를 작자는 자기의 주관적인 각도에서 관찰 비판하는것이 아니고 제三자인 독일 광학기사이며 로교수이면서 아직 자기립장을 론른히 가지지못한 독일 인데리겐차의 대표적인물인 옷또 지또리히의 눈을 통하여 예리하게 관찰하여 비판하는것이다 이것은 가장 정당한 수법이며 또 옳게 표현되었다고 볼수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전후독일의 현실을 그리는데 있어서 민주주의독일의 건설부흥을 싫어하는 군국주의 나치스 독일을 꿈꾸는 히틀러광신자들의 도량을 미제국주의자들과 련결시키면서 동요하는 인데리겐차 옷또 지또리히 가정내부와 결부시킨데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작자가 현독일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인 계층분화를 명백히 표시하려고 의도한데 있으며 또 반영시켰던것이다 그러면서 작자는 옷또 지또리히로 하여금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성을 더한층 미워하게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독일을 민주주의적 통일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하여주고있는 위대한 쏘베트인민들에게 감사할줄아는 진보적 독일인테리겐챠로서 상징하였으며 또 원만하게 표현하였다고 볼수있다

다음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미국내에서 민주력량이 날로 장성하여감에따라 이것을 탄압하여보겠다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상을 보게되는 그것이다

미군소좌 젬스 힐이 쏘베트경비사령관 꾸지민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 민주청년으로서 새로운 립장에서 자기임무를 완수하게된다 그는 꾸지민에게서 미국신문기자로 변장한 녀자스파이 세르웃드가 쏘베트구역내에서 나치스괴수 스탕크를 자기 아버지라고 속여가지고 지도리히의 광학특허권을 도난하였다가 발각된 사실을 들었을때 젬스 힐은 놀래여 세르웃드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그랬다고 해서 젬스 힐은 군대에서 면직을 당하였을뿐만아니라 반미행동 조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처벌을 받게쯤된 이 사실을 하나놓고 보더라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미워하며 재전쟁을 얼마나 희구(希求)하고 있는가를 짐작할수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작품에서 제국주의는 패배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명백하게 진실하게 느끼는것이다 이것은 이작품이 보여주는 라와같이 정당한 결론이다

이상과같이 나는 영화「엘바江의 상봉」을 분석하면서 이 영화를 구성하는데서 나타난 몇가지문제를 기술적면에서 론하려고 한다

이 작품을 개괄적으로 론할때 씨나리오자체가 가지는 특이한점으로서는 기록적요소가 그 소재로서 풍부히 취급되어있다는것을 말할수있다

그 실례로서는 쏘베트구역내에서 공장복구사업 군수공장파괴 학교신설 음악단조직 수도원 수녀들에게 등용유(燈用油)로 기관총유 공급 반파시스트들의 석방등등 이와같이 많은 기록적장면들이 조금도 부자연스럽지않게 훌륭한 소재로써 련결되어 전체구상을 더욱 윤택스럽게 재현시켰다는것은 연출가 알렉싼드로브의 능숙한 솜씨라고 아니할수없다

특히 연출가가 촬영에있어서 복구되는 공장、가로、폐허가된 독일의 도시풍경등등 될수록 자연을 많이 리용한것은 이작품의 진실감을 더욱 높이고있다

다음 연기진에 있어서도 연출가의 의도와같이 옳게 선택되였으며 쏘베트구역 경비사령관 꾸지민의 역을 신인배우 웨다위도브는 젊은 볼쉐위끼로서 쓰딸린적 새세대의 대표자로서 자기역을 충실히 리행하였으며 그의 보조역으로서의 예고르낀의 역을 배우 빠•안드레예브(〃시베리야大地의曲〃에서의 자동차운전수役)는 쾌활한 명사로서 부드러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중요한 役으로서 독일 인테리겐챠 지또리히의 役을 담당한 리가「로씨야극장」의 배우 유•유로스끼는 영화연기에 있어서 탁월한재능을 발휘하였으며 미국 녀자스파이로 扮한 엘•오르로바도 관록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미군구역 경비사령관 젬스 힐의 役을 담당한 엠•나즈와노브의 연기도 무난한 편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 작품에 반영된 늦새짜의 음악을 비판하지않을수 없다 알렉싼드로브가 자세히 지적한바와 같이 한쪽 세계에서는 쏘베트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웅장하고 로씨야적인 선률로써 묘사되어 평화적인 정조와 감정으로써 표현되었으며 한쪽세계에서는 부패한 세기말적인 인간의 생활을 표현하는듯한 단말마적인 비명에 흡사한 미국음악이 흘러나온다 작가 알렉싼드로브는 이 음악을 통하여 미국인들이 즐기는 소위「부기•부기」땐스와 결부시켜 타락한 미국인들의 생활을 단적으로 표시한것이다

이상과같이 나는 영화「엘바江의 相逢」을 론하면서 이 작품은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과 문제를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一九四九•七•十二

× ×

「내 고 향」
관필役과 나

유원준



국립 영화촬영소 국 영화 제一회작품 「내고향」의 주인공 「관필」役을 내가 맡았을때 처음에는 당황하였고 겁이 앞섰고 또한편 뜻하지않는 기쁨에 어쩔줄을 몰랐던 것이다

영화의 젊은 주인공 「관필」은 어느 役이고 다 그렇겠지만 그리 쉬운 役은 아니다 극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머슴으로 자랐으며 커서는 지주를 반대하고 놈들의 류치장에서 어떤 혁명자의 감화와 교훈을 받아 용감하게 그곳을 탈출하여 김일성장군 빨찌산의 아들로서 강도 일본군대와의 직접전투 혹은 국내공작의 중대임무에 눈부신 활약을 거듭하다가 八•一五와 함께 김일성장군을 따라 입국하는것이 「관필」이 걸어온 길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지만 「관필」은 애국자의 전형적 인간이다

이처럼 중대한 역활을 형상화하는 과업이 나한테로 내렸다 어떻게 할것인가 무대연기자로서도 아직 어리고 한번도 카메라앞에 서 못본 내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것인가? 무엇보다도 내가 과연 씨나리오에 나와있는 「관필」이가 될수있을까? 그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그리고 그것을 인민에게 전달하여 공감을 일으키게하는 어렵고 중대한 사업! 예술창조를 무난히 극복할수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책임은 중대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내 눈앞에는 날로 발전하여가는 오늘의 조국의 모습이 보였다 내 귀에는 건설의 길로 매진하는 인민의 행진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그날 새삼스럽게 느껴진것은 물론 아니지만 내가 두주먹을 쥐고 생각에 잠겼을때 그것은 나의 가슴을 흔들어주는 새벽의 종소리와도 같았다 당황과 겁의 밤은 지나갔다 하자…… 해보자…… 자신심을 가지자…… 자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과업을 수행하자

정말 그래야 했다 나는 공부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마음속으로 조국과 인민앞에 맹세했다 이것은 공화국 공민만이 느낄수있는 기쁨이요 행복이였다

×

작품에있어서 가장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빨찌산 투쟁장면의 로케슌은 臨津에서 진행되였다 二月달이었다 해발 一六七七米의 고산지대에서 우리들의 투쟁은 전개되었다 우리 촬영을 개시하기전에 우리들은 그 당시의 빨찌산을 형상화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않으면 안되였다 빨찌산이 되어보자! 빨찌산의 감정을 뼈속깊이 느껴보자! 세계의 민족해방투쟁사에 빛나는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의 빨찌산이다 나는 가슴이 약동하였다 먼저 무엇보다도 생활이다 당시에 빨찌산과 똑같은 생활을 비록 짧은시간나마 그대로 해보고 사실의 백분지 一이라도 몸소 체험하는것이 중대하였다 눈보라치는 雪原에서 고목에 붙은 이끼와 이깔나무 아치를 깔고 그들 빨찌산들은 잠을 잤다 살을 여이는 강추위에서 눈을 녹여서 콩과 소금으로 식사를 지어서 그들 빨찌산들은 먹었다 밤이면 그들 촬영대와 동행한 박동무(그는 김장군 빨찌산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군대를 뭇찌른 용감한 한 대원이다)를 중심으로 우리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당시의 실제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 처음 느껴본 생활감정、일행도 나도 정말 즐거웠다 예술을 창조하기

전의 준비야말로 정말 즐거운 것이었다 지금은 「관필」역을 맡은 나는 한없는 기쁨속에 이 체험을 달게가졌다 나의 가슴에는 위대한 애국자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용솟음쳤다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 안해 어린것들을 생각하면서 태일은 조국의 원수 일본제국주의를 못찌르는 전투에 참가할 임무를 맡고, 고요히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들 빨찌산의 모습이 내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감격하였다 그처럼 수많은 애국자를 낳았으며 김장군의 령도하에 날로 발전하고있는 나의조국 조선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예술에 복무할수있는 이 눈부신 사실에 나는 감격하였다 눈속에서의 잠은 정말 포근하였다 눈을 녹여서 지은 빨찌산의 식사는 꿀맛이였다 나는 한시각 한시각 「관필」이 되어갔다 자신심이 생겼다

×

촬영이 개시되었다 나는 영화연기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영화는 형식상으로 연극과는 판이한 예술이다 연극은 창조과정이 일관하다 무대위에서는 대본에 나타난 이야기가 나타난 그대로의 순서로 되지만 영화는 그렇지않다 필요에 의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후에 찍고 태일의 이야기를 먼저 찍는다 실내ㅡ야외ㅡ실내……이렇게 찌나리오에 나타난 사실을 실내의 두캇트를 찍고 다음 중간장면인 야외의 한캇트를 찍을때도 있고 즐거움을 찍은 직후에 한달후에는 어떤 아주 다른 시츄에이순의 슬픔을 찍는



〈관필 役으로 분한 筆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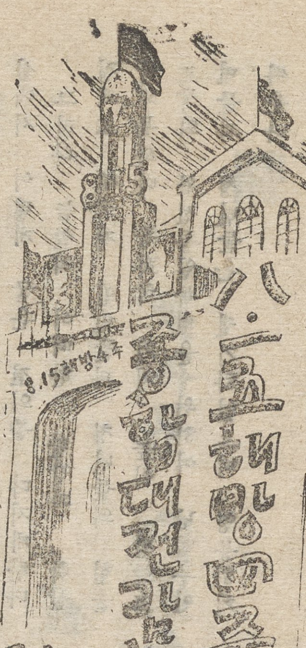
수도 있다 말하자면 영화촬영 방법의 불련락성이다 나는 국한한 캇트에서 그만 심각한 감정을 묘사하며 무대에서와 같이 크게 동작을 쓰게 된다 이것은 전체를 망각한 방법 즉 한캇트 한캇트가 축적되어서 크라이막쓰를 이루고 나중에는 전체가 구성되어가는 영화예술의 특수성을 몰랐던것에 기인된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다 연극과 영화와의 대사법(台詞法)은 완전히 다른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대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에는 적합하지못한 크고 힘찬 에로규손을 하였다 이것은 알면서도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고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 내앞에는 훌륭한 배우들이 있었다 주인규선생은 이렇게 가르쳐주었다 「심호흡을 하시오 자주 심호흡하고 어깨에 굳어진 쓸데없는 기운을 빼시오」 나는 그렇게 해 써봤다 과연 쉬웠다 감독인 강홍식선생은 자기가 쌓아온 영화연기의 체험을 자실을들이 이야기하면서 나의 연기를 지도하였다 직접 연기세째의 감정을 잘 알고있는 연출가가 얼마나 신인연기자에게 큰 힘이 되는가를 나는 재삼스럽게 느꼈다 심영선생은 찌나리오에서 「관필」에게 계급적 감화를 주며 그가 빨찌산에 들어갈 사상적인 계기를 주는 역활을 맡았는데 실제 촬영에서도 역시 나에게 좋은 지도를 주었다 나는 이렇게 선배들 따뜻한 애정속에서 「관필」을 형상화하였으며 또한 연기자로서의 나를 련마하였다 촬영은 순서대로 진행되어 갔다 나는 매일매일 기쁨속에서 공작하였다 처음 느꼈던 접은 사라지고 창조의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나는 유쾌하였다 비록 어린 나의 연기지만 향상정열을 잃지않고 불타는 의욕에서 나는 일을 하였다

정열과 의욕 이것이 없이는 예술은 발전할수가 없는것이다

×

촬영은 끝났다 영화 「내고향」은 완성되었다 세상에 공개되었다 나의 예술사업이 인민앞에서 총화를 짓고 결론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것인가? 어떻게 인민들에게 반영되여 어떠한 평가를 받을것인가? 연극을 할적에는 무대위에서 직접 군중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순간 순간에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영향의 가치를 그자리에서 느낄수가 있으나 영화에서는 그렇지않나 나도 객석의 그들과 더불어 같이하고 직접 나의 예술을 보면서 평가를 받을수도 있다 더군다나 영화 「내고향」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의를 생각할적에 내가 담당한 책임의 중대성을 다시한번 뼈속깊이 느끼지않을수가 없었다

나는 앞으로 더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것을 가슴속깊이 맹세한다



八·一五해방 四주년기념 종합대전람회 참관기

리 림

大同橋를 건너 선교리에 들어서는 길 원켠에 전람회 회관이 우뚝 위용을 자랑하며 높이 서있다

건평 一五〇〇坪을 차지하는 이 회관은 지난 六월 十九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불과 二개월도 못되는 단시일내에 이와같이 훌륭한 건물을 이루어놓았다

정문을 들어서면 우선 산업관을 구경하게 되고 이어 교통관 체신관 농림수산관 상업관 남조선인민투쟁관 민주관 시설관 조쏘친선관 미술관 해방투쟁관 조국보위관 등의 순서로 호화다채로운 광경이 차례로 나온다(十二관三五室)

실로 해방후 조선인민들이 이룩한 민주건설의 혁혁한 승리의 기록이 전시되었으며 또 우리조국을 통일적민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조선인민들이 쟁취한 거대한 승리를 시위하여있다

어느누구를 물론하고 구경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감격과 환희와 또 적에 대한 적개심과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게 한다

오늘도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렬을 지어 들어간다

이 많은 관객들 가운데에는 평양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는 농촌에서까지도 꼭두새벽 조반을 치르고 찾아온 사람들도있다

산업관에 들어서면 우선 정면에 조선인민의 해방의 구성인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와 공화국정부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초상화가 높이 걸려있고 그 인자하신 모습에 스스로 가슴이 넓어지는듯 상쾌한 기분으로 다음실에 들어간다

「야! 이것이 수풍땜이다」

앞으로 들어가던 한 청년이 그 위용에 감격된듯 냉큼 들어선다

괴연 수풍발전소 모형전경이 눈앞에 압저온다, 댐에서는 물이 살살 넘치고 모형발전기에서 발전된 전력이 많은 송전선을 거처 기계를 움직이고 전동이되는 광경을 볼때 전력은 우리산업건설에서 얼마나 커다란 원동력이되는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을 더욱 깊게한다

이어 금속공업실에 들어서면 육중한용광로와 해탄로 평로등 도형과 선철 강피동의 각종제품이 전시되어 산업발전의 토대로 되는 이 중공업이 우리의 손에 의하여 해방후 급속히 복구운영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인민경제발전의 커다란 자신심과 민음성을 가지게한다 다시 화학공업실에 들어서면 흥남비료공장의 장성된 생산량과 세계수준에 도달한 良質의 질소비료가 모형기에서 눈보라처럼 쏟아져 적은 비료산은 이룬다

이밖에도 아오지인조 석유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중요 생산직장의 모형과 각색도표가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어 해방후 四년동안에 북반부인민들이 쌓아올린 승리의 기록들을 일일이 깊은 감명속에 관람한다

다음으로 모형 기차와 전차 기선이 번거롭게 달리고 있는 교통관과 통신선의 모형을 전시한 체신관을 지나 해방후농촌경리가 급격히 향상발전한 면모를 일목료연히 보게하는 농림수산관에 들어섰다

먼저 눈에 띄우는것은 함남 함주군 주북면 부민리 마을의 해방전과 해방후를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으로 대비한 부민리마을의 발전된 실물모형이다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행복과 희망에 가슴 흐뭇하게한다 그리고 관개실 평남관개건설공사의 전모를 보여주는 웅장한 모형을 보며 잠업실 국농(國農)실을 거쳐 삼림실에 들어서면 마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서늘한 감을 느낀다

수산실에 들어서면 어로생산고의 장성도표를 보게되고 이밖에도 해방후 四년동안의 농림수산부문의 거대한 성과들을 일일이 관람하게된다

시설관에는 함남 룡흥강 제방공사의 「선과후」를 대비한 그림을 통하여 과거홍

수가 범람하면 황무지가 옥답으로 일변되어 년 一만七천석의 백미를 생산하게 된 기름진 룡흥강 무연한 앞벌을 눈앞에 보는듯하다

특히 흥미를 끌게하며 우리들의 창조적노력을 부르는 대평양시의 전망도가 놓여있다 一九六五년도의 평양시의 도시경영전망을 보면 전차선로가 엄청나게 확장되며 시주변도로를 달리는 무궤도 전차 및 공중케불카(모란봉에서 김일성대학까지)선로등이 시설되며 거리는 대확장되게 되어있다

남조선인민투쟁관에 들어서면 우리들의 가슴에 적에대한 적개심을 고도로 앙양시켜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 매국역적들이 동족상쟁과 내란도발을 책동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들을 도살하는 이루 형언할수없는 그들의 만행을 실지 사진전람을 통하여 여실히 보게된다

「저놈들을 빨리 소탕해야지!」

어느사람의 가슴마다 불타오르는 증오심에서 이렇게 굳은 결의를 다지게한다

그러나 놈들의 어떠한 탄압과 학살정책도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힘을 막지못한다 공화국 기치 높이 받들고 조국의 완전통일독립을 위하여 남반부인민들과 청년들은 궐기하였으며 영용하게 싸운다

남조선인민유격대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 사진들! 준엄한 산발을 넘나들며 앞으로 앞으로 원쑤들을 뭇찔러나가는 그 모습!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애국열이 가슴에 솟구치게한다 유격대원들이 피로써 쟁취한 광범한 해방지구를 보여주는 대모형도! 그들의 손이 닿는곳마다 인민위원회는 복구되며 공화국기는 가는곳마다 휘날리고있다

다음 민주관에는 지금도 기억이 새로운 바로 四년전 쏘베트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할때의 첫 포고문이 붙어있고 김일성장군의 二十개정강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의 찬란한 승리적 기록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일제의 압박 착취밑에서 해방된 우리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의 도표는 관람자들에게 더한층 기쁨에 찬 자기의 생활을 회상하며 전망하게한다

조쏘친선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크레믈리의 포각앞에 우리들은 한참 머물게된다 색전등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광채를 떨치는 크레믈리의 위관은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새세기를 창조한 위대한 쏘련을 상징하여주며 우리들의 앞길에 무한한 희망과 행복을 암시하기때문이다

또한 그와 나란히 선 모란봉 해방탑은 쏘련군대의 위대한 공훈과 함께 쏘련인민과의 견고한 친선과 우리조국의 무궁한 미래발전을 상징하여준다

쏘련군대와 쏘련인민들이 해방후四년동안 항상 우리조국의 민주발전과 경제 및 문화등 온갖 방면에서 승리를 고무하여주었으며 끊임없는 방조를 준데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뜻을 금치못하게한다

다음으로 해방투쟁관―일제시대의 놈들의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이관에 들어서니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가슴을 끓게하여 일제의 총검과 사형틀에서 애석하게 쓸어진 무수한 애국자들에 대한 추도의 정을 금할수 없다

거기 평양형무소의 사형장을 관람하던 젊은 동무들이

「지금도 저놈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지경이다」 라고 서로들 그런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선해방과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평양감옥 교수대에서 사형당한 애국자들의 명단일부와 사진이있고 그리고 놈들이 사용하던 소위 「비행기」 「물먹이기」 「가죽조끼」 등의 고문기구들이 진렬되어 있다

또한 이관에는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던 과정을 년대표로써 기록하여있으며 당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던 義兵들이 사용하던 각종 무기들도 진렬되어 있다

다음에는 김일성장군의 빨찌산투쟁선모를 전시한 장소에서 우리들의 발은 한참 멈췄다 김일성장군 빨찌산의 영웅적무장투쟁과 이에 당황한 일제의 발악상이 각종 사진과 기타 전시품들로써 여실히 드러내여져있다

저기 빨찌산부대의 전투통계표가 세세하게 게시되어 있어 김일성장군이 지휘한 빨찌산이 조국해방투쟁에서 남긴 혁혁한 공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조국해방투쟁관에서는 어느 누구할것없이 김일성장군과 그의 빨찌산부대 및 애국투사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되며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들과 젊은 새세대들이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된 처지를 생각할때 무한한 감격에 가슴 들끓는다

마지막으로 전람회는 조국보위관을 구경하게 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이며 최대 영예이다」 라고 씌

詩

한자루 白墨을 쥐고

趙靈出

한자루 백묵을 쥐고
나는 거리로 나섰나
살륙의 총소리 사무치는
어두운 이 남쪽의 거리를

나의 머리우엔 총총한 별들이
빛나고
나의 발밑엔 사랑하던 골목길
이 밟힌다

젊은 가슴에 詩를 지니고
自由를 노래하던 동무들이
여기서 끌려가고
여기서 피흘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곳을 지킨다
끝까지 이거리를 찾고야 말리라
이밤은 나의 차례
무기처럼
한자루 백묵을 쥐고 나섰다
詩보다 더 뜨거운 것을
노래보다 더 우렁찬 웨침을

벽 마다
전선 기둥마다
나는 쓰리라
쓰면서 앞으로 나가리라

―삼천만이여
조국통일 전선에 뭉쳐라
일어서라…………

北岳을 돌아보면
모든 山岳이 눈앞에 떠오른다
끝내는 이거리에도 찾아올
유격대 동무들이

그리운 형제들이여
이밤을 노래하라
목숨 보다 더 소중한 祖國의
영광을
총알이 퍼붓는 속이라도
우리는 즐겁게 앞으로 나가리니
어둠과 개와 테로와 학살의
執行者와
이 모든것의 조직자들을 뭇찌
르기 위하여
더 무서운 노도의 힘으로
더 억센 暴風의 힘으로
이거리에 일어설
아 이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여

나는 이렇게 례포를 전하노니
보라
읽으라
그리고 怒濤와같이 暴風과같이
이거리를 밀고 나가자

나의 백묵 이땅에 떨어지고
나의 팔이 떨어지고
나의 몸이 땅우에 쓸어지건
그대는
나의 눈동자에서 읽으라
祖國의 부름을

우리들은 니디서나 壁報를 쓴다
詩보다 더 뜨거운 것을
노래보다 더 우렁찬 웨침을

一九四九·八

어진 아―치를 거쳐 다음 장면으로 발을 옮기면 거기에는 우리 조국보위의 튼튼한 성벽인 조선인민군대의 탄생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사진들이 전시되었으며 이와함께 우리조국 북반부의 공장 철도 광산 도시 해안등지에서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비대원들의 씩씩한 모습을 볼때 한없이 그들을 동경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승리에대한 자신심을 더욱 굳게 한다

해방투쟁관과 조국보위관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고 회관을 나섰다

세시간 나머지에 걸쳐 구경한 여러가지 광경이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원 사람이 적고 시간만 있으면 종일이라도 볼 욕심이 난다 모두 나오는 사람마다 「아주 훌륭한 구경이군」 하며 자기들의 감격을 서로 말한다

정문앞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해는 벌써 중천에 와 회관은 한결 눈부시게 윤나는 것이다

―끝―

隨筆

人民軍隊와 꽃다발

崔明翊

八•一五 四주년을 맞이한 경축 일색의 평양— 역전 광장에서 폭죽(爆竹) 소리가 연발해 들리기 시작했다 맑게 개인 하늘로 높이 솟는 폭죽들은 두번 세번 다시 튀며 여러 갈래 금빛 불꽃들을 흩으린다 마치 불야성의 불빛을 꺼꾸로 비치운 신기루나 같이 한없이 푸르고 드높은 이 대낮의 창공은 한동안 때 아닌 성좌(星座)로 찬란해졌다 수십만 군중의 눈은 모두 하늘로 향했다 뒤이어 우렁찬 군악 소리가 군중의 시선을 다시 광장쪽으로 돌리게 했다

큰길 저편 구비진 모두리로부터 만세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저벅거리는 군화(軍靴) 소리! 인민군대의 선봉부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날 八•一五 四주년을 경축하는 인민대렬의 선봉으로서 인민군대의 행진이 시작된것이다 즉 우리 북반부 인민은 오늘 자기네의 자체로 이루어진 민주력량의 정예부대를 자랑스럽게 또 대견하게 앞장세우고 일대시위행진을 하는 것이다 넓은 거리 좌우에 도렬한 인민은 오색 테—프를 마주 잡았다 그런 거리 한가운데를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군관 전사는 그 오색테—프를 앞가슴과 어깨에 걸치며 전진한다

인민대렬중에서는 저자신 꽃다발 같이 치장한 젊은 녀성들이 인민군대에게 꽃다발을 안겨준다

한손에 쳡한 강철색이 번들거리는 정예한 무기를 잡은 전사들이 받아드는 꽃다발! 물이 오를대로 오른 푸른 잎사귀에 붉고 희고 노란 꽃송아리들이 화려한 꽃다발! 즉 정예롭게 무장한 인민의 아들들은 무기와 아울러 예쁜 꽃다발을 한아름씩 안고간다 꽃다발 같이 치례한 인민의 딸들이 누나들이 주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행진한다 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한 동무들은 상상으로라도 눈앞에 그려보라 참으로 황홀한 광경이었다

이런 광경은 인민의 리익과 권리를 수호하는 인민의 아들로 된 인민군대이길래 또 반동의 음모로 부터 평화를 옹호하는 인민군대이길래 또 인민과 평화를 위하여 반동을 소탕하는 인민군대이길래 있을수 있는 것이다 보라 우리인민군대는 인민이 준 정예한 무기와 꽃다발을 아울러 들었다 그들의 아버지 형 아저씨들은 자기네의 근로로써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고 어머니 누나 아주머니들은 오늘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준다

이날 행진하는 우리의 인민군대는 적에게는 상설같이 준렬한 무력이요 우리 인민에게는 평화의 생색이었다 이 행진은 우리 앞에 전개된 장엄 화려한 서사시의 한장면이었다。

자동소총、경기관총 중기관총 부대가 지나갔다 짙은 군복 군모에 적동색으로 단련된 그 모습은 산야를 제압하는 전사들이다 해병대가 나타났다 흰 모자 뒤에 휘날리는 두가닥 띠봉은 그들이 지키는 해양의 바람을 품겨 경쾌하다 기병대가 몰아온다 우리 앞에는 금시 전진이 만장해졌다。

그때 창천일각에서 폭음이 진동하며 눈부신 백금색 비행기의 한 편대가 상공에 날아들었다 군중의 만세와 환호는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의 눈은 아까 폭죽의 성좌를 보던 때와 같이 하늘을 향했다

…우리 아희놈은 아마 저기 한몫 끼웠을거야…

문득 등뒤에서 뉘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손으로 이마에는 채양을 하고 비행기를 처다보던 나는 그 말을 따라 돌아보았다

「아까 삐라 뿌리던 비행길 탔댔는데 알겠오?」

내 뒤의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묻는 말에

「아니」

하는 것은 성간 구려나룻에 더럭이 히끈히끈 보이는 중로인이었다 굵직한 모시 두루막에 좀 낡은 농립모를 썼는데 역시 하늘을 처다 보노라 재낀 머리에서 농립모가 벗어질세라 엄지와 장손가락으로 변누를 놓려 차양을 한 그 중로인의 손톱눈에는 누런 흙물이 들어있었다 보아하니 그와 가치 모여선 사람들도 다 농민이었다

「아니 우리 그놈은 네렇게 빠른 비행길 타느라구 그러드랬어 데 보더 좀 빠른가!」

하는 중로인은 농립모를 눌렀던 손으로 벌써 저만치 길 비행기 편대를 자랑스럽게 가리키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 비행기떼는 삐라를 뿌리노라 상공을 두루두루 맴돌던 것。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빨랐다

「그적은이가 아즈바니랑 우릴 내려다 봤으믄 수태 반가왔갔쉐다」

그 비행기 편대에 대고 깃발을 흔들던 한 젊은이가 말했다

「그 높은데서 대령게 빨리 날멘서야 누가 누군디 알기나 할라구」

하는 그 중로인은 이마에 그저 손차양을 대고 비행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긴 우리 그놈이 늘 그러드랬이 비행길 타구 떠돌적에 어데나 지나가는 동내랑 논밭에서랑 또 길가던 사람께정두 손을 흔들어줄제는 다 제집안 사람이나 고향 사람결이 반갑더라구…」

이런 그 중로인의 말을 들을수 있었던 옆의 사람들은 만세 부르기를 잠시 잊었던 것이다

「거 옳은 말인데」

「용쿠! 그 젊은 동무의 말이…」

이런 말들이 나오자 그 중로인을 에워싼 한둘레의 사람들의 만세 소리는 갑짜기 더 높아졌다

그동안 기계화부대가 나타났다 형형색색의 중화기들이 끝없이 지나간다 마침내 탕크부대가 나타났다 우리 발밑의 땅이 흔들린다 철우(鐵牛)라는 별명 그대로 노한 황소 같이 으르렁으르렁 영게 소리를 찌르며 달려온다 그 거창한 뿔인 포문은 당장 반동진영에 대고 철화(鐵火)를 뿜을 기세로 추켜세웠다

달리는 강철의 성색! 지축이 떨리는 그 위용에 우리의 가슴은 후련하고도 벅차진다 모두 눈을 크게 뜬 우리는 입까지 벌려져 한동안은 만세와 환호까지 잊었다 번개 치듯 돌아가는 무한궤도에서 다시 그 우람한 포탑으로、포탑위에는 나앉거나 상반신만을 내밀고 좌우에 때때히 도렬한 우리를 바라보는 병사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새 인민공화국기는 흔들리었다

「오빠!」

갑짜기 재진 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서있는 대열 맨 앞줄의 국영 ××직조공장의 민청깃발밑에서였다

「오빠!」

다시금 들린 그 새진 목소리와 함께 다채로운 꽃다발 한개가 공중을 날았다 그 깃을 본 우리의 깃발은 한순간 맞죽했다 공중을 날던 그 꽃다발은 금방 우리 앞을 달리는 탕크 포탑위에 나앉았던 한 젊은 병사의 손에 떨어졌나 불연듯 환성과 만세 소리가 터졌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 「오빠!」 소리를 들은 우리는 물론 멀리서 들었을리 없는 저편 진좌우의 사람들까지도 그저 포탑을 향해 던져진 꽃다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병사를 위해서 만세와 박수를 보냈다

포탑에 꽃다발을 싣고 달리는 탕크! 인민의 탕크는 한 누나가 던져보낸 꽃다발로 치장되었다 어째 그 누나 한사람만의 꽃다발이랴! 그것은 삼천만 인민의 꽃다발이다 달리라 인민의 탕크여 전진하라 인민의 군대여! 우리 앞의 반동을 깡그리 소탕할때까지 전진하라!

☆―詩―☆

勝利의 進軍

―八·一五해방四주년경축대회장 점묘―

白 仁 俊

一千 山岳이 한소리에 울리는 듯
一萬 大海가 한노래에 和唱하는듯

깃발 프랑카―트 물결쳐 밀려들고
향연의 廣場에 이르는
示威隊의 발소리 구령소리

八月의 창공에
인민의 흰 날개 구름을 가르고
瑞雲 령롱히 어리워질때
조선인민의 수령 김일성장군
단상에 높이 올라서
三천만인민에게
경축의 미소 너그러이 보낸다

×

군악은 울리어 울리어
「앞으로 갓!」
「받들어 총!」
저마다 두어깨 쫙 펴고
가슴 가득한 용맹과 충성
보란듯 네활개치며
무장한 인민의 아들 딸들
쭉 쭉 다리 뻗어
발맞춰오고 발맞춰오고……

「우로 봐!」
한결같이 빛나는 눈동자들이
壇上에 높이 계시는
首相을 우러러
「당신이 가르치시는 길로」
「당신이 부르시는 길로」
맹세 새로이
총가목에
팔다리에
힘을 더한다
필승의 힘을 더한다

×

탕크가 나간다
지축을 흔들며
탕크 조선인민의 탕크가 나간다
그 한가운데
우뚝이 서나가는 봉수
봉수는 지난날
이땅의 가난한 小作農
뉘보다 먼저
고생을 알고 자라나온 청년
그러나 지금 보라
조선인민군 복장도 어엿하게
차리었 부동자세도 늠늠히
기계화부대 탕크우에 우뚝 서서
人山人海
꽃다발로 덮은 평양의 대로를
가슴에 군공메달 번뜩이며
개선의 용사인듯 탕크몰아 나간다
몰록 南天을 노리다가

飄沫 주머되어
탕크소리보다 높게 웨치는 말
「요 쥐새끼같은 놈
요 구미호(九尾狐)같은 매국노
리승만놈!
人民이 나가는길을 가로막는 모
든 놈들을
떡포장갈이 단숨에 치워 버리리
라!」
탕크가 지나간다 탕크
서울 한복판까지 흔들 며다 지
축을 울리며
인민의 아들들에 환탕크부대가
나갑다

×

三두마 四두마
다섯필 여섯필로 짝지여
말들도 걸음 맞춘다
장총 맞춘다
황희의 꼬리 척 높이고
구폐나루 호기있게 나부끼며……
인민의 아들이 동우에 앉아
고삐도 가벼이 앞길 가로다녀
땅을 차며 발을 구르며
박격포 야포를 쥐고
고사포 기관포를 싣고



×

군악은 울리어 울리어
해는 중천에 빛나는데
아직도
땅을 구르며 발을 구르며
대오지어 나가는 인민군 대렬

민족만대의 영화는
여기 반석같노니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그대의 後孫들을 자랑하라
충무공 리순신 장군도 살아있거든
오늘 이 자리에 와
민족의 새 전통에 기뻐하라

오늘 이나라에 태어난
절세의 애국자 력사의 아들
인민의 수령 김일성장군 모시고
이땅의 후손들은
祖國의 靑史를 새로 꾸미노니
보라
五角별빛나는 공화국기
세계의 하늘 높이 펄럭거린다

×

누가 이 나라의 력사에
자유와 해방의 이 날을 가져왔느냐
누가 이나라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新生의 큰일을 열어 줬느냐
꽃다발이 나간다
꽃다발……

조선인민의 가슴에 안기어
해방탑을 향하는 꽃다발이 지나간다
평양성 부벽루
푸른 기왓장마자 깨어져나며
망국의 슬픔을 말하던 이땅에
북방의 의로운 군사 나타나
해방의 깃발 높이 세우고
민주 창조의 큰길 환히 밝히어 주었거니
꽃다발을 드리리라
민족의 꽃다발을……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교에서 가두에서
해방四년의 열매맺힌
조선인민의 꽃다발을 가슴가득히 안고
잊지못할 그 이름
쓰딸린으로 부르는 큰 거리를 지나
大同江 맑게 흐르는 모란봉 언덕
해방탑으로 향한다

×

一千 山岳이 한소리에 울리는 듯
一萬 大海가 한노래에 和唱하는듯
軍樂은 울리고 울리고……
아 끝난줄 모르는 人民의 대렬
멀지않아 조국통일의 그날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鐘路에서 南大門까지
서울 장안 그 넓은 大路도
오늘 이와같이
인민의 대렬로 발맞춰나갈
그날의 기쁨과 감격도 가득히

해 기울도록
인민의 물결은 멎지않는다
勝利에로 놓여있는
祖國統一의 大路를
오늘 우리는 한결같이 나가노니
장백산 높고 낮은 山언덕 강
기슭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피흘려 쓸어진
선렬들
락동강 한강기슭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싸우다 피흘려 쓸어진
同志들
그대들도 오늘은
승리를 웨치며
우리들의 진군에 환호해 일어
서라
우리는 이제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로써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하리라
더 크나큰 민족의 歡送을
南山 北岳 밑
이나라 서울 長安에 차히
피리라





(二)

2

나는 젊어보이는 얼굴에 회색빛갈 머리를한 이부인에 대하여 집에서 작문을 쓰고싶었다 그러나 어떻게 써야할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바샤아저씨도 다를바 없었나 그러나 아저씨는 나를 도와주려고 몹씨 애를 썼다

「학교에서 작문을 가르쳐 주더냐」하고 아저씨는 물었다

「네」

「무엇을 가르쳐주더냐」

「혼자 생각해 쓰게 됐어요」

아저씨는 탁상우에 팔굽을 고이고 나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마세요 바샤아저씨 쓰게 되겠죠 아저씨는 늘 걱정만 하고 계신걸요」

「걱정 안할수있니 네가 공부하는지 내가 공부하는지 모르겠는걸」

「둘다 공부하지요」

「둘다 공부해」

「그럼요 아저씨도 공부하고 있는걸 알아요 내 교과서며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들을 아저씨는 모주리 읽고 있는걸 밖에 나가실때는 가지고 나가시기까지 하지 않아요」

「그건 심심푸리지 공부는 아니야 내가 공부할 시절은 지났어 전쟁이 못하게 했지 너는 다르지 너의 앞길을 방해할일이야 있을수 없지」

「그런데 왜 갑짜기 그런 말을 하세요」하고 나는 물었다

바샤아저씨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도 꼼짝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 나는 일부러 아저씨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전쟁동안에 잊어버린것을 아저씨는 또 심중히 생각한다는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에 잠기어 있을때에는 아저씨의 눈을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이를때면 아저씨의눈은 조금씩 검어지고 점점 커지며 눈속 깊이 잠기어있던 그무엇이 훌적 나타나 아저씨의 눈은 보기만 해도 비통해진다 점점 검어지더라도 아저씨의 눈에서는 밝고도 무거운 빛이 흘로나오는것 같았다

나는 아저씨가 생각에 잠기어 있는것을 알아채지 못한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누구든 또다시 내앞길을 방해할것 같지는 않은걸요」

「방해되지않으려면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이야」라고 바샤아저씨는 말했으나 다시 입술을 꿰어맨듯 꼭 다물고 얼굴도 꼼짝 안했다

나는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하려 망서렸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끝맺는다면 아저씨는 얼굴을 꼼짝 않고 그 무서운 눈으로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터이니 그럴수는 없었다 그런 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 그래 나는 아저씨가 거칠은 생각을 하지않도록 무척 생각하고 힘미치는 데까지 해보았으나 아저씨를 위로할만한 말머리들이 머리속에서는 빙빙돌아쳐도 정작 말을 하려고하면 나오지않았다

나의 경애하여 마지않는 바샤아저씨! 찌프린상을 할것이 아니고 미소를 띄우고 웃으며 춤을 춰야 할만한일들을 아저씨는 벌써 해놓지 않았는가 내가 학교 책상에 걸터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저씨덕분인 것이다 평화로이 책상에 마주앉아 책을 볼수있게 된것도 아저씨가 손에 토—미총을 쥐고 독일로 독일로 진격하여준 까닭이다 응당 기뻐해야 할만한 일들을 아저씨는 남부끄럽지않게 해놓았다 아저씨가 잃은것을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출세하게되면 나는 아저씨에게 아저씨가 부러운것이 없도록 해드릴 생각이다 그리고 또다시 불행한 날이 닥쳐온다 치더라도 대담하게 나는 이에 도전하겠다 걱정할것은 없다 나의몸은 아주 튼튼하다

나무그루가 굉장히 크고 반질 반질 하더라도 나무꼭대기에 나는 기어 올라갈수 있게되었다 나무가지우에서 몸을 휘—휘—저어 이나무가지에서 저나무가지에로 건너갈수있다 十五米는 단숨에 뛰어갈수 있다 이산림의 변두리에서 한복판 차디찬 샘물이 있는데까지 二十米는 넘는다 아직은 이샘까지 숨을 돌리지 않고 줄창 뛰어갈수는 없다

그러나 단숨에 뛰어갈수있는때가 올것이다 독서하는데서 또한 힘을 많이 얻어야 할것이다 책은 완전히 알아야한다 나는 열여섯살이므로 결국 우리학급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러나 보로다 스미르노브가 경험하지못한 일들을 나는 경험했다 내힘을 유효하게 쓸때가 있으리라는것도 나는 잘알고 있다 헤르 우름은 어떤지 살아 있으면서 로씨야사람은 자기가 없이는 지탕해나갈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도 잘안다 나는 그러기에 아저씨를 위하여 튼튼해야만된다 바샤아저씨! 아저씨는 자기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훌륭한 례를 보여줬다 내가 이런 례를 모른다면 아저씨는 용서안할것이다

「바샤아저씨 잘됐어요 쓸걸 생각해내죠」하고 나는 말했다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쓰면 어때」하고 바샤아저씨는 물었다

「그래요 걱정마세요 좀 생각해볼테니」

「좋을대로 하렴 네가 바란다면 한 이야기거리를 하나 말해주진」

「어떤 이야기거린데요」

아저씨는 잠간동안 물끄럼히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앉았다

「이런 사건을 쓰면 어떨까 일종 안개속이 아니면 꿈속에서 보게될수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안개속에서 또렷하게 보이니까」

바샤아저씨는 다시 말을 끊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인데요」하고 나는 물었다

「처음에 큰 오막살이집 방안은 그런단말이다 벽에 지대놓은 몇개의 책장외에는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큰방 그리고 방안에는 녀자들이 가득차있지 왜 녀자들이 방안에 가득차있느냐고? 그것은 말할수 없지 그러나 너는 알아낼것이다 녀자들은 추리며 옷가방을 가지고 벽에 기대어놓은 책상위에 걸터 앉아있다 그지없이 불상해 보인다 어떤녀자들은 울고있다」라고 바샤아저씨는 다음과같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녀자들은 방안에 쓰러진 한사람을 그쳐여 들여온다 그를 문곁에다 내려놓는다 병정은 피를 많이 흘려 쇠약해저서 대로는 의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이 병정은 아직도 볼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되가는지 안다 옆방에서 독일사람이 하나 나오자 미소를 띄워가며 이렇게 말하는것을 병정은 본다

「자 미인 여러분 한바탕 유쾌히 떠들어대고 놀지 않을라오! 당신들의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사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때에 슬퍼함은 옳지않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독일내지에 이주해 거기서 중요한일에 종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을 새로 조직하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당신들을 친절해서 이주시켜 주는걸 자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자랑해야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녀자여러분에게 말하는것은 이까닭입니다 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봅시다 자 어떻소」

그는 좌우을 향하여 미소를 띄워가며 이렇게 말하고는 녀자들 한사람 한사람 있는데 번갈아 가서 마루목판을 손가락질한다

「어서」

그러나 녀자들은 허틀어진채로 벽에 기대어 앉아 독일사람이 무엇때문에 그러는진지 모르는척한다 독일사람은 녀자들한테 바싹 다아서서 소매를 잡아당기며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되풀이해말하면서 가죽신을 신은 발로 몇자욱춤을 춰보인다

「이리와 어서 로씨야 춤을 춥시다 어떻게 추던지 호—라! 라」

녀자들은 웃지도 않았다 독일사람은 부하병졸들한테 돌아섰다 그러자 미소는 흔적도없이 사라지고 무언지 날카롭게 소리질렀나 부하병졸들은 당장에 부상병을 일으켜세웠으나 상관에게 대답할사이도 없게 독일사람은 이렇게 명령했다

「니ー텔마헨（譯者註 비어죽인다는뜻）곧 죽여버렷」

이때 바로 녀자한사람이 갑짜기 이렇게말했다

「오 안되요 저 사람은 예술가예요 전쟁 전에 이곳 극단에서 자주 출연했어요」

부상자는 이녀자를 바라보았고 또 이녀자를 알수가있었다 무대위의 그에게 꽃다발을 던져준 일이며 꽃다발을 던진 그녀인의 웃음가득 풍긴 얼굴을 기억한다 녀인의 눈이 그와 마주치자 갑짜기 얼굴이 발개지며 어쩔줄 모르던 일이며 이당황한 기색이 또한 그의 가슴속 깊이 뒤흔들어 놓은 그무엇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연극이 끝난뒤 이녀인을 찾아 극장안을 헤매었던것이며 지방사람속에서 혹시나 하고 이녀인을 찾아보려고 애썼던 일이며 전쟁이 일어난 탓으로 이녀인을 찾던것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사질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녀인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도 어찌할수가 없었다 피가 어깨상처에서 줄기차게 쏟아져나와 옆구리며 잔등에 흘러내려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눈앞이 까ー만것이 어물거려 보이지 않게한다 병정들은 부상병을 데리고 나가려고 붙잡았다 그러나 녀자는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지마세요 이것봐요 다치면 안되요 부상한걸 아시지 않아요 독일 장교님 죽이면 안되요 죽이지 마세요 네 당신은 인간이 아니예요?」

독일장교는 녀인한테 인사를 꿈벅하고 이렇게 말했다

「미인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무지요 그 사람은 적입니다」

「아니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겨우 서있지 않아요 보면서도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오」

장교는 병정들에게 부상병을 데리고 나가 죽이도록 명령한다

녀인은 병정들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한결 더 높은 소리로 떠들었다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되요 제발 혼자 내버려두세요 독일장교님 그렇게 몰인정하시지는 않을테지요 그이는 예술가지 정말 병정은 아니예요 무용가예요 굉장한 무용가예요 당신이 필요로 하고있는ー그런데 당신은 그 이를 죽이려고 하지않어요、

독일사람은 마음을 돌려 병정들에게 포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물러가도록 명령했다 권총을 뽑아들고

「무용가라고 그렇지 멋있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춤을 잘 추는가 춰보여야지」

「부상하고 있는걸요 먼저 치료해야지요」

「그건 지루해서 기다릴수 없어 지금 당장 춤을 추도록해 귀중한 목숨을 살릴랴거든」

독일사람은 권총을 부상자에게 겨누었다

「어서 붉은군대동무」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를 위안해 주기를 바라는거야」하고 미끈히 수염을 깎은 붉으스레한 얼굴에 미소까지 띄어가며 말했다

그러나 독일병정들은 이 부상자를 어찌 몹씨 굴었던지 눈은 다시 겁스러지고 다리가 꾸불어지며 마루에 털석 넘어졌다 독일사람은 부상자 가슴에다 랭정히 권총을 들여대고 「안될걸 무용가로는 덜됐어」

녀인은 다시 미친듯이 날뛰었다 녀인는 앞으로 내닫려가 장교의손을 붙잡고 정신이 착란하듯이 소리쳤다

「쏘지말아요 제발 쏘지마세요 무용가라는걸 제가 보증해요 무용가가 틀림없어요 저런 팔로야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네……제발 빕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그의 대신 출까요」

「저사람 대신에 춤을추겠어 아무렴 그거 참좋은걸 어서 먼점 춰」

녀인은 잠간 몸이 비틀거린다 녀인은 확실히 놀랬다 장교는 마루위 부상자에게 권총을 흘려댄다 녀자는 춤추기 시작한다

독일사람은 二ー三분동안 녀인이 춤추는 것을 보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건 훌륭한데 재미있어 패 재간이 있는걸 참 반하게 하거든 어서 춰 춤을 고만두면 곧 저사람을 쏠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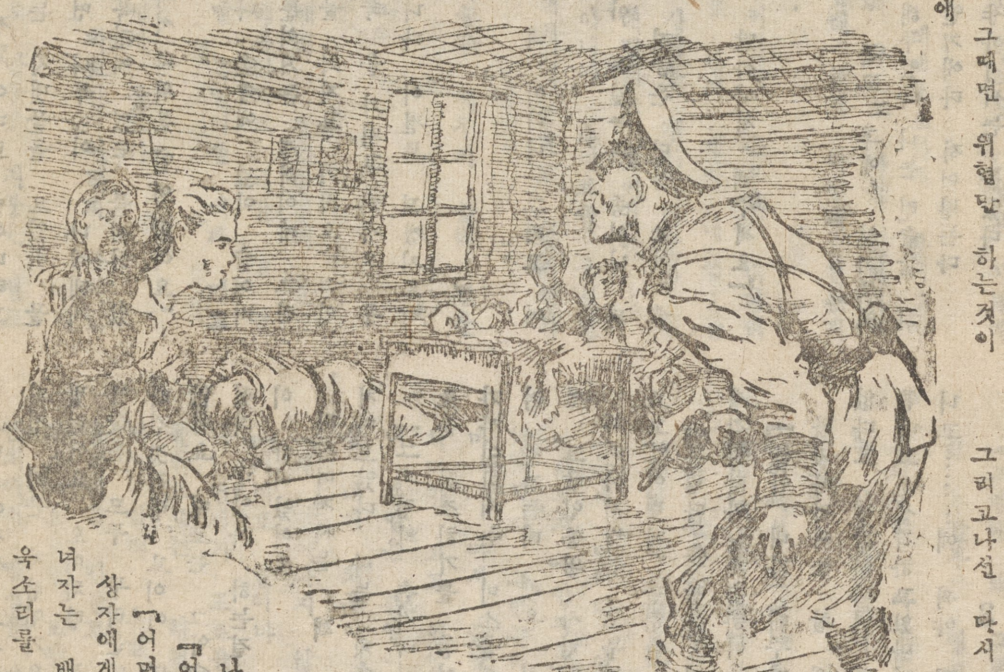
자기가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녀인에게 똑똑히 알리려고 잠시라도 춤을 멈추면 안되며 그때면 위협만 하는것이 아니고 실지로 쏘겠다는 뜻이 부상자에게 권총을 넌짓이 들여댄다

그러자 녀인은 점점 빨리 춤추며 방안을 물레질듯 뱅뱅돈다 녀인의 겁정눈은 커저가고 공포에 떨려 둥굴해 간다

이때부텀 녀자는 마루짱위 사나이에게 주의가 쏠리도록 만든다 누가 가만히 부상자의 머리밑에다 부굴부굴한 꾸레미를 밀어 넣는다 이런뒤부터 부상자는 그의 앞에있는 녀인의 온몸을 본다

그는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고자 물끄럼히 쳐다본다 녀인은 앞에서 춤추고있다 불상하게도 어녀엔은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딴 방도가 없으므로 그를 살리려고 춤추고 있는것이다 마루에 드러누운채 그는 가까이 닥아왔다가는 뒤로 어렴풋이 물러가고하는 녀인의 눈을본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물어보는것 같으나 도무지 알수가 없다 독일사람은 녀인이 춤을 멈추는것을 기다리며 권총을 손에 쥔채 결에 서있다 녀인이 춤을 멈출것 같이 보이지않자 조용히 이 광경을 보고있는 다른 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어째 힘께 추지 않는거야 그렇게 풀이 죽어서야 당신들 제모운 자유로써야 녀자로설 옳지 않은걸」



그는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자기방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곧 녀인은 마루방위 어 사나이한테 달려가 허리를 좀 수구려고 의식을 돌렸는가 알려고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러고나선 다시 물러가 그대로 춤을 계속한다 몸은 벌써 피로할대로 피로했다 확확 달아났지만 볼은 빨개지고 머리수건이 목에 흘러내리자 금색빛갈의 반지르르한 긴게 따드러운 두개의 머리타리가 머리수건에서 빠져나와 등장에서 너울거린다

녀인은 사나이의 눈속에 번쩍이는 한줄기의 생명이 어리어 있음을 알았다 녀인은 부엌으로 나가는 옆문에 머리를 가만히 조은다 머리를 한두번 흔들여 몇번 돌리더니 부상자에게 문었는데로 눈짓을한다 녀인은 자그만치 다섯번이나 되풀이한다 그러나 그는 움직일수가 없다 이 모든것을 보고 알기는하지만 그는 너무나 쇠약했으며 피는 웃서고리에서 새어나와 마루짱위에 간단없이 줄줄 흐른다

바로 이때 부엌에서 문이 열리며 부인이 하나 이방으로 들어온다

「어머니」하고 춤추던 녀자는 속삭거린다

「어머니 저 사람을 구해줘요」하면서 녀자는 부상자에게로 눈짓을 한다

녀자는 배가고파 헐떡거린다 그러나 독일사람의 발자욱소리를 듣자 더빨리 방안을 돌았다 여기서 다른녀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었다 그들도 일어서 춤을 추기 시작하며 노래까지 불러 떠들석 댄다 마루위에 있는 부상자를 완전히 가리웠다 독일사람은 너펄거리는 치마자락사이로 부상자를 굽어봐야 되었다 부상자가 그대로 있다는것을 다시 알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미소를 띄워 고개를 끄덕거리

면서 권총을 가죽집에 도로 집어넣고 자기방으로 돌아간다 그가 나갈때 요란스런 소리는 더욱 높아져간다

손에다 땀을 쥐고 이녀인을 보고있던 부인은 부상자를 잡은 팔짝으로 달아나게한다 그래 부인은 어깨에다 열신 붕대를 감아주고 이렇게 말한다「달아나 아사람 정말 어디로 달아나라고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저 골짝에 흐르는 시냇물을 보았어 물줄기를 위로 따라올라가란 말이야 그러면 나무숲이 나질테지만 그냥 물줄기를 따라 나무 숲속 한복판에 있는 물샘터 있는데까지 올라가야되 독일전선을 뚫고 혼자서 싸워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들을 만날게야 그러나 숲속에 잠이 숨어버텔걸세 그런데 숲속에는 샘이 단하나 뿐이거든 샘터이며 그리고 물이 나질것이 틀림없어 자 이가방을 가지고 가시오 그안에는 빠다—하고 빵이 좀 들어있고 장죽총을 가지고 가시오 무기대신에 당신에게 드리는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걸로 되겠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몸 편안히」

「당신의 따님은 어떻게 하실티입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당신은 내딸을 망치게 했소 이사람아 독일놈의 종이나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건질터이지 지금은 당장 쏘아 죽일라고 할거야」

「그러면 따님도 가게 해주세요 같이 달아나게 해주세요」

「자…어서 가시오 어물어물대지마시오」

이녀자에 대한 바샤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후에 일기책에 써 넣으려고 종이 쪼박에다 기록까지 해두었다 나는 련습을 하기위해서 한가한때는 여러가지 일들을 일기에다 적어넣는다

「그래 이런 화제면 되겠지」하고 바샤아저씨는 끝었다

「바샤아저씨 내 의견같에선 이 이야기에는 정말이 똑똑히 나타나 있지않어요 무엇인지 빠져있는걸요 이야기는 모두 끝말이 있어야 해요」

「너 그렇게 생각하니」하고는 생각에 잠겨 방 한구석을 쳐다보고있다 나는 또다시 아저씨의 눈이 커지고 빛발이 비칠것을 두려워 아저씨의 사나운 상념을 없이 하려고 생각이 떠오르는대로 이렇게 말했다

「바샤아저씨 그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깨가 두툼하고 툭퍼진 키큰 사람인가요 머리는 반지르르하게 빗고 뽀마—드를 발렸어요 오이처럼 두리두리 길쭉한 꼴사나운 얼굴이 아니예요 이술은 모두 두터운데 위입술이 아래입술 량쪽에 움푹 들어가 배긴것처럼 묘이이 더군다나 위입술은 더 두터워 보이게 하지 않어요 때로는 그입술이 부인네들이 물건사려 다니는 돌가방을 폈다 닫았다 하는걸 련상시키지 않어요 그사람은 상급 대위급이 아니었어요

바샤아저씨는 책 돌아서더니 一二분동안 물끄럽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해 이렇게 말했다

「그사람의 손가락 매디에는 반창고(絆創膏)를 발렸지요 포로를 취조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인가 보지요

가까이와서는 미소를띄우고 곧잘 말하다가도 불시에 사람을 후려 갈기는데 맞은 사람은 방울 휘 날리가군 하지요 그는 힘이 센 고급인종의 사람이되야만 이렇게 후려갈길수 있다고 말하지요」

바샤아저씨는 도무지 말하지 않고있다 놀란듯 나를 뚫어지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렇다 똑같은 마오에서 너를 찾은걸 잊었댔구나」그는 한참 생각하다가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다

「옳아 내가 대주지 않더라도 너는 무엇이든 찾어내 쓸것이야」

바샤아저씨는 참 재미있는 분이다 이전에 그걸 암시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니 참 그러나 아저씨는 내가 학교작문에 이걸 쓴다고 생각하고있다면 잘못이다 이런건 학교 작문에 쓸것이 아니고……에 써야 할것이다

3

여전히 나는 저 백발이기는 하나 얼굴이 젊어보이는 그부인에 대하여 써야만 되겠다 전쟁에 이부인은 남편과 아들을 죽이고 딸마저 독일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없으나 이부인을

지금와서 생각하고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나를 제처놓고는 이백발의 부인을 영예롭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부인은 수풀속에서 나를 끄집어 내온 날아침 나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이가 물거든 내손자라고 말해라 베레조브카에 찾어갔다 지금 집에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해 응 그리고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야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글세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묻지않고 커다란 손으로 내머리를 덤석 움켜쥘뿐이었다 내머리를 뒤로 번적 제처 내 얼굴을 들여다 보고 좌우로 흔들며 웃었다 그사람은 전혀 더문이 없는 소리를 나에게 물어보고는 저절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유태인이 아닌가 아니야 유태인은 아니야 스라브족 유색변종이로군 고대몽고족지손(支孫)이야 머리가 둥굴고 광대뼈가 넓은 품이。어서 따라와」

교실복판에 마구재비로 한데 높이 쌓아놓은 책무지 앞에 발을 멈추자 그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걸 다쳐서는 안되 업새버릴거니까」

「저건 교과서예요」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 전부 一九一七년이후 로씨야에서 발간한건데 문명과는 관련이 없는 무가치한거다 너는 행복하게도 때를 잘 만났지 서구문화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말 독일어를 네깨 가르쳐 줄테다」

나는 머리가 히석히석한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 다른집들은 다—타버렸는데 학교만 어떻게 남어있어요」

「불길이 타오르지 못했단다 벽은 돌로 만들고 지붕은 철로 만든걸 알지않어 이때서 겨우 화재를 면했지」

「다른 사람들은 어데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레조브카에 가고 딴사람들은 골짜기에다 움집을 짓고 있지 나는 학교관리인이었지 그래 지금 이곳에 남이있누거다 독일사람은 이곳에 자기본부를 두었단다 애야 일이 어찌되가는 셈인지 모르겠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해 그러지 않으면 경칠테니」

「그런데 왜 그렇게 눈이 벌겋고 눈아래가 퉁퉁 부어있어요 늘 부들부들 떨고 있나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일없을 테지 그 사람앞에서는 쥐죽은 듯이 가만있어야해 때오기를 기다리거든 이러는게 좋아」

「어째서 그러나요」

「큰일 났어 물어보지말어라 받아 물어보지 말어 오늘도 그 사람은 권총을 잡었어」

「무엇 때문에요」

「글세 말이다 언제나 하듯이 권총에다 손을 대고는 이렇게 말하겠지「안되 그건 천천히하고 마루부텀 닦어」나는 마루를 닦었단다 그랬는데도 또 권총에 손을대겠지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을 다시 돌렸는지 내목숨을 좀더 살려 준다는듯이 나를 쳐다만 보고 있었단다 이래서 하루 하루 무사히 살아가느라니 큰일은 큰일이야 이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는지 제발 결단을 내려 처분이나 했으면 오작이나 좋으련만」

「왜 달아나지 않으세요」

「어디로 말이냐 애 그사람들이 가만이 나아 두지는 않는구나 언제가 포로를 구해준뒤부터 나를 감시하고 있지 나는 움물밖으로는 한걸음도 더 나가지못해 움에서 감자만 가져다 먹고 살지 오늘 저기에다 잔뒤리 쇠줄을 세번이나 돌려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어 너는 봤지 이것은 군의 전초점(前哨点)으로할 모양이야 빨찌산들이 어던지는 모르겠으나 이근처에서 말성을 일쿠고 있는 모양같애 그러나 나는 쇠줄방뒤 독일놈들 가운데서 죽고말테지 제발 독일놈이 나를 쏘아 처단했으면 좋겠어 판결을 취소도 않고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단말이다」

「무슨 판결이길래요」

「포로때문이지 독일놈이 그때 이렇게 말했단다「독일의 적을 도망케한 사실을 확인하고 너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권총을 들여대고 한참 겨누다가 이번에는 머리 다음에 배 가슴을 차례차례로 겨누겠지 나는 원통매이 풀어지고 눈앞이 아찔아찔 현기증이 났다 독일놈은 갑짜기 권총을 집어넣고는 이렇게 말했다

「—면점 이 방안을 깨끗하게 해 책상을 밖으로 내가고 창문을 닦어 뒤에 총살할테야 그러나 조심해야 되 어지는 데는 살지못할테니까 기분이 날때면 언제든지 총살할테야 내 병졸들도 너를 총살해 버릴수 있어 그렇게 허가해줬지 독일의 적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없단 말이야 아름다운 따님도 공범자로 적당히 형벌을 받게 되겠지 이일이 탈로되기전에 독일에 보낸건 유감이야 거기서도 잘 알게 될테니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되겠지 딸이 살아있다고는 생각치 말어 당분간 나가도 괜찮이」

나는 밖으로 나왔으나 어찔어찔한것이 기절할것만 같았단다 아름다운 맑은 하늘에서 태양은 따뜻하게 내려 쪼여서도 내몸은 얼음장 같이 굳어졌었다 나는 몰길려 갔단다 병정하나가 나를 향해 소총을 광광대고 쏴대겠지 정말 간장이 뒤집어진것만 같이 어찌 놀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놈은 껄껄대고 웃고 서 있더란 말이다 일부로 나를 놀래게 하려고 옆에다 대고 헛방을 쐈단다 다른녀석이 또 나를 겨누고 있겠지 병정놈들은 내가 포로를 도망치게한 탓으로 포로를 볼 작이야 하게됐지 그래 내한테 그 분풀이를 할 작정이었지 웃물을 들여다 봤으나 내몸동아리는 알아볼수가 없었고—내머리만 눈처럼 희었단다」

이것이 바로 거기서 어떤일이 생겼는지 알도록 이부인에 대해서 쉽지 작문을 써야할 내용이다

근친이라꼬는 다 잃고 있을때의 부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샤아저씨는 이부인이 아저씨 대문에 고생한 사실을 모를것이며 금후로도 내가 가르쳐 드리지 않을터이므로 이사실을 모르게될것이다

이부인이 쇠줄망 뒤에서 받은 고민이라든지 언제 심창에 탄환이 맞을지 늘 마음을 조리고 떨고 있던 이 불상한 부인에 대하여 알고있지만 당분간은 말치않고 그대로 잔직하련다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쇠약해졌으며 핏기없는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나한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단 한가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속삭였는가도 당분간은 말하지않겠다 부인은 나한테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다

「그저 침묵을 지켜야해 받아 응 참고 가만있어야해 때가오기를 기다리거든 모든 일을 당연한것으로 생각해야해 한가지 부탁할일이있는데— 지하실에 감춰논 책들을 잘 간수해야되 천행으로 그애가 살아 있게되면 책이 어데있는가고 물어볼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겠니 응 책은 그애한테는 생명만치 귀중하단다

그들은 돌아올것이야 그런것이 지금까지 누가 로씨야를 정복했단 말인가 로씨야는 정복할수는없지 로씨야는 단지 일개국가만인 것이 아니고 전체세계이기도 하단말이야」

공포에 떨어 졸어든 이 쪼만한부인이 놀랍게도 한번은 용기를 내어 독일사람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는것도 당분간은 비밀히 해둬야되겠다

「이 악마야 너는 이곳에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이 아니야 로씨야 사람들을 전멸하려고 왔지 어서 당장 지금 쏴」

랭정하게 억양이없는 목소리로 독일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소리도 귀속에 쟁쟁하나 당분간은 말치않고 귀담아 두리라

「아니 당장은 쏘지 않을테다 될수만 있으면 래일 총살하지 내가 채용한 형벌의 방식이 이렇게 유효한 효과를 걷운것은 만족한 일이야 동료들 한테도 이렇게 형벌을 주라고 꼭 권하여야겠군 어서 가」

이 모든일들을 나는 당분간 말하지않으련다 아무렇든 나는 아직 사실그대로 표현할 능력이없다 골짝에 사는 사람들이

이부인을 파묻으려고 가지러 왔을때 이독일놈이 나보고 웃은 팔이라든지—이런일도 내가 충분히 표현할수있는 력량이 생길 다른 기회에 말하기로 하자 가방이처럼 생긴 이에다 웃음을 가득 풍기어 가지고 말한 그의 모양을 랭정하게 묘사하는것도 지금 나에게는 힘에 겨우는 일이다

「자 이젊은 친구야 우리는 마귀같은 로파를 처치해 버렸지 너도 한숨 덜었어 그렇지 않어」

나는 늘 하듯이 조금도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가 히석히석한 이부인이 나한테 일러준 충고를 잊지않았다 그러자 독일놈은 또 이렇게 말했다

「너는 여게 남어 있어도 좋다 곧 훌륭한 학교에다 들여놓테다 그래 독일어는 얼마나 배웠어 응 마지막 과정을 공부했니」

나는 가만이 있었다 반백의 할머니가 일러준 충고를 잘 의고 있으므로 이것이 늘 내가 대답하는 방식이었다 독일놈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의 교과서는 어디 있어 짜켈 속에있어 무엇 교과서가 아니지 않어 또 로씨야 책이야 다라스불바 고—골저 이게 무어야」

「이건 一九一七년전에 인쇄했어요」 나는 불이 나케 대답했다

독일사람은 또 미소를 띄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애 로씨야말은 저우 남어 있을것이라고 말하지 않었어 로씨야말을 썩 잘하는 전문가만 남겨두면 되 우리직업상 로씨야말이 당분간 필요할뿐이야 그런데 네가 필요한건 독일어다 너는 독일천지에서 살터이니까 네한테 이걸 몇번 말했어 로씨야책은 안되단말이야 아전 알어야해 알겠어」

그는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 옆골을 두번 앞상을 한번 후려갈겼다 잘 넘어지지 않는것을 보자 내가 앉고있는 걸상을 발로 찼다 나는 걸상과 함께 동구라 떨어졌다

「너는 나이도 어리지만 참 바보야 너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건지 모르거던」하고 다음날아침 마찰을한후 넓은 가슴패기의 털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말했다

「고도로 문명한 나라의 한사람이며 중요한 지위에있는 내가 너와 툭 털어놓고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거다 전혀 태도를달리하여 말할수도 있지 그러나 타쳐을 우리들의 세상을 생각하기에 가정교사처럼 친절히 이야기하는거다 그런데 너는 이걸 몰라주는구나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로씨야책을 읽지 말라는 것도 듣지 않는단 말이다 국가나 국민으로볼때 쏘베트로씨야란 대체 무언가 말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전 실지로 알수가 있는거다 로씨야말은 또 무언가 말이다 가까운 장래에 로씨야말은 불상하게도 단지 력사적 유물로 되고 말것이야」

그는 다리를 고이고 앉아 이렇게 말하는것이었다 그의 기름진 배에는 빨갛 주름살이 두개나 보이는데 손곳으로 이걸 쩐러 밟으면 참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곳으로 깊이 찌르면 거기서 무엇이 쏟아져 나올까 날이선 장추칼로 주름살을 가로 내리쨌다면— 그때는 어떻게될까 부풀어오른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면 이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들어보면 어떨까 아무가치없는 로씨야국민이라고 찌져떨때처럼 점잖은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리라고는 상상되지 않는다 로씨야인민이 발명해서 세계에 기여한건 무이야 가축신하고 농민들의 옷감인 조포 이것외는 아무것도 없지하고 네놈이 잘쓰는 이런말은 결단코 하지않을것이다 몽둥이를 집어들고 놈의 말끝마다 한개씩 머리를 후려갈긴다고해도 나쁜생각이야 아닐테지 놈의 말한마디에 몽둥이로 머리를 한번씩 후려갈겨— 칠석하고 이럴때 놈이 어떤상을 하나 보고싶은걸 아니 더 좋은건 수류탄이지 가장 효과있는건 수류탄이야 수류탄이면 갈기갈기 찢어버릴텐데… 수류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이놈의 수류탄이 없단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으나 내마음 먹은것을 함부로 발언할수는 없었다 나에게 일러준 머리 흰 부인의 말을 다시 회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름대워는 불숙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슴패기의 털를 만지던 것도 고민두고 의자에서 일어나 놀란상으로 자기 얼굴을 내 얼굴에다 밧싹 들여댔다 그가 내눈에서 무얼 알아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내귀가 찌어지도록 소리높이 고함쳤던것이다

「나가 당장 없어져 에이 누가 밖에 없어 무—렐 상등병! 이리와! 이걸로 때려 없어치워! 이집에 한발자욱도 들여나서는 안돼 못된녀석 같은이 내눈앞에 얼린거리기만해봐 그자리에서 쫙 죽일테다」

빨끈 성이 난데다 두께비 입을 어쩌도 사납게 다물었던지 나는 바삐 이집을 빠져나왔다 그리자 병정들이 나를 쇠줄망한 밖으로 내던졌었다 전쟁이 끝날때까지 나는 골짝에있는 사람들 있는데가서 그곳 움집에서 살았다 —계속—

녀름에 이나는 그는 「다른 그사람들과 갈지 않으니까」자기 마음에 든다고 말하였다 그가 이나의 마음에 들었기때문에 바로 그때문에 그를 다른 사람들 갈지 않다고 여겼던지?… 四월 六일 활동사진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서로 고백하였다 이 일월(日月)은 그들의 머리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었다

끼쎈시의 거리를 헤매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들은 아직 어린애들이었다 미쌰는 눈을 서로 들여다보는 작란을 생각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오래 들여다보는가 하는 내기를 하였다 이나는 일기장에다가 「처음에는 눈이 몹시 아프고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하소연하였다

다음 그들은 읽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두사람은 다 드제크 론돈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였다 이나는 말젠 이덴이 좋다고하며 루피를 비난하였다 五월一일의 아회도 회상하였다 그날저녁에 그들은 재수가 좋아서 나란히 앉아 있게 되었으며 집에 돌아올때에는 이미 동전이 환하였다……… 다음에 그들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나는 자기가 군사시간(軍事時間)에 작란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저 말이지 나는 어떻게 웃었던지, 크게는 웃지 않았어 그런데 레나가 내 옆구리를 툭 찌르겠지 그래서 내가 그만 그애 등을 살작 때려주었지 그랬더니 그만 세르게이 이와노워치가 「꼰쓰딴지노와!」하고 큰 소리를 치시겠지 다음에 이나는 자기가 작문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제목은―「〃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중에서 누가 제일 나의 마음에 들며 어째서 드는가?」였다 미쌰는 「누구야?」하고 물어보았다 이나는 서슴치 않고 「물론 나따쌰지」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또 앞날에 대하여― 十년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공상하였다 이나는 「마야꼬브쓰키는 천번 만번 옳거던 인생은 아름답고 또 살기도 좋고」하고 반복하였다

이날 저녁에 이 두사람은 유쾌하고도 불안하였다 그들이 닥쳐올 폭풍우에 대하여서 생각하였는지 누가 알까? 벌써 가을에 나는 이 「불안하고 암담하고 명랑치못한 시기에 내가 이일기장을 쓰기 시작한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래일은 누가 어떻게 될지? 살기가 무섭구나……」라고썼다 이 일기를 시작하기 얼마전에 이나는 레오니드―안드레예브의 「七인의 교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적이 있었다

이나는 책을 읽고나서 누구와 이야기나 한듯이 생각하였다 「피할수 없는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것은―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내자신을 그들의 립장과 바꾸어 놓고 생각하여 보았으나 나는 그것을 이겨낼수없을것 같다……」 언젠가 그는 웃으면서 자기가 치과의사한테 갔는데 자기는 아픈것을 참을수 없는것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내가 미치는것 같았어……」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 이야기를하고 나서 그는 다시 엄숙한 어조로 「죽음, 이것은 인간의 생활에 에 있어서 커다란사변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말을 듣자 미쌰는 갑짜기 파포노브의 옛날 시를 회상하였다

「그 옛날 사랑하던 님의 기억도
희망도 세월도 모두 사라지누나
잠이 깬 자연의 얼음인양
녹아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리」

이 시구의 쓰라림을 여누르려고서인지 미쌰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여줄까? 말 하오 모두 하여줄게― 가능한것도 불가능한것도」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이나는 그 후에 이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우리들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 빈정대기를 좋아하는 미쌰는 비꼬음을 잊어버리고, 왜 나는 울줄 모를까? 나는 너무도 행복하여 막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五월 전쟁이 시작되기 一개월전 일이었다 六월 二二일 모로또브의 연설이 있은 이후에 이나는 자기 일기에다가 「내가 이 연설을 들을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던가! 너무도 흥분되어 나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 나올것만 같았다… 그때 내가 여기 한 자리에 가만이 앉아 배겨낼수 있을까? 아니다! 조국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하고 썼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리야·에렌불그 作

강정희 譯

「쓰메나」 제七호에는 녀자 공청원인 딸지산까ー이나 꼰쓰딴지노와가 공부한 끼쎈시 중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씌어져있다 이 처녀영웅이 공부하던 학교와 살던 거리는 지금 이 처녀영웅의 섬으로 부르게 되었다 인제 우리들은 이 끼쎈시(市)에서 자랐으며 공부한 처녀영웅에 대하여 작가 이·에렌불그가 쓴 단편을 소개한다

☆

명랑한 봄날이었다 아직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끼쎈시(市)는 고요하였다 끼쎈은 적고 조용한 도시였다 이도시에는 정원으로 에워싸인 목조건물들이 많았고 그리고 낡은 조그마한 교회당들과 큰 시장이 있었다 四一년도의 봄은 기묘하였다 五월八일에 끼쎈시에 눈이 내렸음인지 그때야 겨우 정원들은 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이날 저녁에 도시는 특히 봄거리같이 보였다 그것은 텅 빈 거리로 돌아다니는 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는지? 이나 꼰쓰딴지노와는 제九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나를 미인이라고는 할수없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모름지기 사람을 끄는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성격에서 오는 힘과 조화되는 녀성다움이었는지 혹은 비상히 민첩한 한편 침울하며 따라서 마음에 고상한데가 있기때문에 매력이 있었는지도 알수없었다 때로는 부끄럽게 가련하게 또 때로는 엄숙함에 가까우리만치 딱딱한 그의 얼굴의 표정은 시시로 변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민첩하고 눈은 명랑하였다 몇달만 지나면 그는 十七세가 되리라 그에게는 아직도 어린애다운 곳이 많았다

그는 때로는 그저 웃음이 북바치는 것을 억제할수 없었고 작란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운명」이나 혹은 「부플가―우까즈가」 놀음을 놀기를 좋아하였으나 그러나 오락 기분이 사라진 뒤에 이나는 어른 같았다 그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독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였다 그는 예술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고대조각과 레브란드 레르몬또브와 하이네 보르크와 마야꼬브쓰끼의 작품에 열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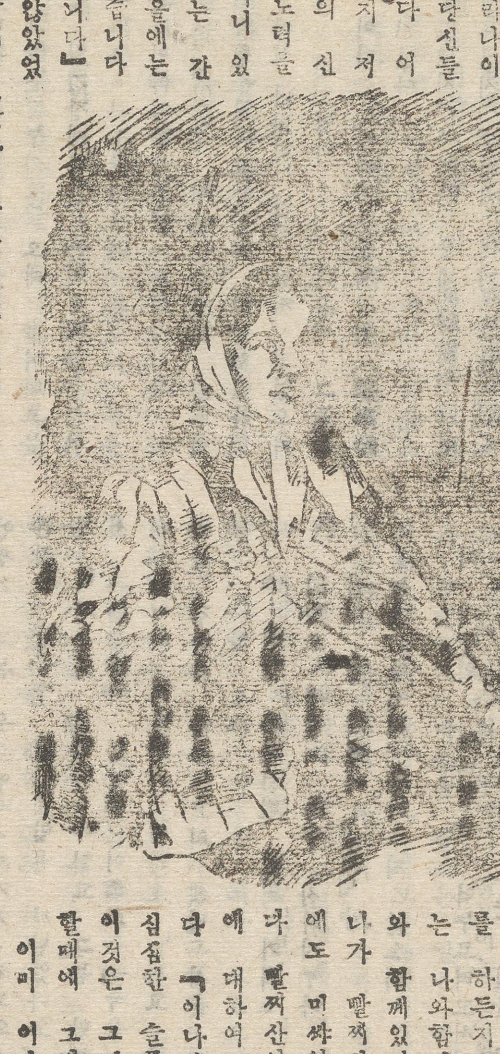
그는 그의 재주가 뚜렷이 엿보이는 시와 일기(日記)를 썼다 그가 누구에게 마음을 쏠리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왔다가도 가고마는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엘이라는 청년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어머니는―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의 모습에 깃들인 그 리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의 약점을 죄다 보았으며 그의 나쁜점을 속속드리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것을… 그의 부족점까지도 사랑한다」 다음에는 H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에 대하여 이나는 일기장에 「무엇보다도 먼저 일평생을 두고 친우처럼 지냈으면 한다 그와 더부러 모든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것을 알고 싶다」라고썼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나가 이봄날 저녁에 끼쎈 거리를 같이 걷고 있는 미쌰 우싸꼬브를 그의 첫사랑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미쌰는 제十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는 좀 억센 머리칼과 그리고 의지와 커다란 감수성을 엿볼수있는 재짱한 눈을 지닌 비웃는 듯한 표정을 띈 완강한 청년이었다 미쌰도 역시 이나처럼 독서를 즐겼고 시를 썼다 그와 알게된 초기에 이나는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미쌰도 역시 이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 이나는 「심지어 공기초차 이상하게 달라진것 같다 어서 전선으로 나갔으면!」하였다 미쌰는 이나는 전선으로 가버렸다 그는 四十一년十一월에 부상을 당하였다 이나는 먼 모로또보시에 가있었다 그는 미쌰에게 편지를 썼으나 답이 없었다 이나는 신년을 쓸쓸히 맞이하였다 딴스도 하기 싫고 웃기도 싫었다 二월四일에 그는 끼씨시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버지는 「미쌰•우쌰코브는……상처때문에……」하고 말하였다 미쌰는 신년을 맞이하는날밤 시계가 열두시를 치기 十분전에 죽었다

二월 十일에 이나는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구역군사위원부에 제출하였다 「저는 저를 붉은군대 출정군인들의 대렬에 보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나의 커다란 소원을 당신들이 실천하여 주실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파업이든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신용에 보답하기 위하여 있는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는 얼마 아니 있으면 단 十八세가 됩니다 저는 간호부강습소를 졸업하였으며 가을에는 내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격도 능합니다」

이나는 자기의 첫 사랑을 잊지않았었다 「나는 지난밤에 미쌰를 꿈에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꿈이었다 나는 그에게 무수히 키쓰하였다 그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해도 무척 기뻤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젊고 참으로 고운 눈을 들여다 보면서 「사랑하는 미쌰! 정말 이게 꿈일까?」하고 물어보았더니 「꿈이다」하고 그가 대답하던 그말이 아직까지도 나의 가슴속에 사무처있다」라고 썼다

때로 이나는 자기자신을 원망하였다 「아마 자연이 나에게 이렇듯 끓어오르는 심장을 주고는 나하고 롱하는 모양이지」



그러나 이 끓어오르는 심장은 충실한것이었다 이나는 자기 사랑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에선 이것이 — 사랑이 — 가장 우수한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감정이 발로 바로 가장 우수한 것인가봐 이러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날아가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잊혀지지를 않을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十七세 처녀의 첫사랑을 연약한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나의 감정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었다

이나는 자기 일기에 「다시 롱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인지 나의 마음속 깊고 깊은곳에 그가 살고 있으며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아무리 웃어도 그는 나와함께 있으며 나의 사랑도 나와 함께있다」라고 썼다 그 후에 이나가 빨찌산부대에서 싸우고 있을때에도 미쌰의 모습은 그를 따라다녔다 빨찌산인 베•이•폴바치는 이나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나의 적렬한 기쁨은 갑자기 심각한 슬픔으로 변하는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첫사랑을 생각할때에 그렇게 되는것이었다」

이미 이나 꼰쓰딴지노와도 미쌰 우샤코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것은 잊혀지지를 않는것이며 또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조용한 꺼셀시의 거리를 배회하는 처녀와 청년의 눈앞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두 젊은이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있다

고대 사람들은 영웅들을 묘사할때에 그들에게 신(神)의 출신과 요술적(妖術的)소질을 부여하였다 안떼이는 뽀세이돈의 아들이었다 그는 땅에 몸을 대오로써 힘을 얻는 것이었다

제우쓰의 아들인 게라크레쓰는 초자연적인 힘의 소유자였다 바다의 녀신은 자기의 아들인 아히료의 몸을 상처를 받지않는 몸으로 만들기위하여 쓰띠크쓰에 집어넣었다가 냈다 이러한 영웅들은 찬양할수는 있었지만 모방할수는 없었다 인간이 어찌 천국에 사는 사람들과 경쟁할수있으랴? 중세기의 영웅들도 옛말에나 나오는 사람들과같아졌다 사람들은 그 영웅들을 찬양하였으나 그러나 보통사람은 로씨야 장수(將帥)의 강철—장검과 로란드의 뿔은 자기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우리 쏘베트영웅들은 하늘에서 떨어진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신(神)들이 무장시킨것이 아니라 총명한 사람들과 좋은 책자가 그들을 무장시킨것이다 이들의 영웅적 공적은 어떤 처녀에게도 어떤 청년에게도 모범이 될수있는 것이다

조용한 꺼셀시의 역시 조용한 거리에는 이나 꼰쓰딴지노와가 자라난 조그마한 나무로 지은 집이 서있다 그의 부모인 알랙싼드르 빠브로위채와 웨라 와씨리예브나는 교원이였다 이나가 어렸을때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나에게 지식과 책에 대한 열정을 붕어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꺼셀시를 방문하였을때 이나가 거처하고 있던 방을 가보았다 벽에는 마야꼬브쓰기의 사진이 걸려 있고 시렁위에는 책이 많이 얹혀있고 꽃이 있었다 집옆에는 정원이 있었다

이나는 터발자채를 좋아하였고 개와 고양이도 좋아 하였다

이나의 유년 시대와 소년시대는 이른 아침의 따뜻한 해빛으로 꿰뚫으고 있었다

이나의 장성엔 가정의 역활이 컸다 걱정 근심이 없이 그가 부모의 슬하에서 살고 있을때에 그는 정말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도 모르리라 공기의 귀중함을 알려면 깊은 탄광속에 들어가봐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폭풍우가 닥쳐왔을때에야 이나는 자기를 가정과 련결시키는 실오리가 얼마나 튼튼하다는것을 리해하였다

一九四一년 가을에 이나의 아버지 알랙싼드르 빠브로위치는 동원되였고 웨라 와씨리예브나는 두딸 자식인 이나와 레나를 데리고 몰로또브시로 소개하여갔다

그때 꺼셀시로 독일놈들이 밀려 들어 오는 때였다 바로 이나의 동생 레나가 열세살때였다 모쓰크바 부근에서 독일놈들이 패하였다는 보도를 몰로또브시에서 듣고 이나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애하는 아버지! 참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였는가를 아버지는 상상하시지 못하질것입니다…… 아버지만 우리와함께 계신다면 만사는 다 좋을것같습니다

아버지 어서 편지를 보내주시오 우리들은 매일같이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녀군다나 우리의 편지는 아버지 있는데로 잘가지않으니까 어머니는 인제 맥이 풀려가 시작합니다」

이나는 벌써 겨울에 군사위원부에 청원서를 들였다 그는 회답을 기다리는동안에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시험도 쳤다 이나는 성급히 때로는 락심하여가면서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전쟁은 방관하고 있을수 없었다 겨우 답을 받았다 이나는 一九四二년에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것을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끄셀시를 떠났다 떠난후에 그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나의 부모님 용서하여주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안하여서 나의 이 행동은 참으로 나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것이 차라리 나았어요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어저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불상히 여기지를 마십시오 내가 일평생을두고 소원하던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나는—빨찌산까지 되었다」

이나는 부모에게 편지를 쓸때마다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애를썼다 그는 자기가 잘있으며 또 얼마후에는 끄셀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편지에다 쓰군하였다 그는 한 편지에 다음과같이 자기의 마음속을 실토하였다 「지금 나는 집안에 단 혼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갑짜기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늘상 웅 인제는 집에서는 아침을 자시겠구나 웅 지금은 아버지가 일하러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셨구나 웅 인제는 잘 차비들하시겠구나 하고 집안식구를 참으로 똑똑히 눈으로보는듯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런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인제 얼마아니되면 서로 만날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도 썼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모든것을 참으로 똑똑히—똑똑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도 아버지도 레노치까도● 그런데 어떤 날 밤에는 이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내 침대에 앉아 계신듯이 내침대옆에와서 앉아계시는것같이 갑짝스레 그렇게 상상되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때에는 참으로 좋고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여집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텅 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언제나 사랑하였다는것을 어머니가 좀 알으셨으면! 나는 떼를쓰고 말을 안듣고 말대답질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부모님은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것보다는 귀중하였던 것입니다」

이나는 자기 아버지가 빨찌산부대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버지에게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나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그렇지않아도 어머님은 괴로우신데……축하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집에서 오는 편지를 흥분하지않고는 읽을수 없습니다 나는 가장 곤난한 전투의 환경속에서도 울어본적이 없었으나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는 내가 다시 끼쩐시대의 계집애처럼 막 울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一九四二년 九월一일에 이나는 자기 아버지와 만났다

알렉세이 빠보로위치의 말에 의하면 그가 이나를 만났을때에 이나는 자기팔에 썩살이 왜 생겼다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독일놈들의 고문을 당하여 그렇게 된것을 숨기려고 애를썼다 아버지와 만났을때에 아버지가 「계집애」라고부르니깐 이나는 「아버지 나는 인제 계집애가 아니애요 나는 제이 까리닌 빨찌산려단의 정찰원이애요」하고 반박하듯 말하였다 그러나 정찰원은 아직도 계집애였다 그는 아버지의 협낭속에 단과자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기쁨을 숨기지 못하였다 바루 이날에 이나는 웨라 와씨리예브나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나의 친애하는 어머니! 나의 조그마한 나의 사랑하는 태양! 오늘은 비상한 날입니다 나는 우리의 모일 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레노치까가 혼자 남아있는것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또 九월 二七일 편지에는 「아버지와 나는 무사하며 몸이 건강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려단에 계십니다 우리는 전투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놈들과 나란이 있는 적의 후방 여기에서도 나는 전선밖에 떠나면데 나의 사랑하는 친애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어머니가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어머니가계시는 생각만하여도 마음이 훈훈하여지고 그리고 좀 슬퍼집니다」

레나는 이나보다 네살이 아래였다 동생한테 쓰는 편지에는 어머니다운 걱정심이 나타나있다 「어머니 레노치까더러 나를 잊지말고 나에게 편지를 자주 쓰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라고 전하여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후에 말을 듣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깐 말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쟁취하여야할 행복을 소소한 여지로써 흐리게 할필요는 없으니깐 말입니다 나는 내가 어리석고 말을 잘안듣는 떼쟁이였던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나는 자기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썼다 「레노치까 나의 사랑하는 레노치까야! 몇시간 후에 나는 나를 보내는 그곳으로 간단다 너는 우리 쏘베트 땅과 자기의 가정에 남아 있을것이다 레노치까야 너는 우리가 다 잘이 편안히 잘살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려나간다는것을 잊지말아다우……

아버지와는 참으로 화목하게 지낸다 영 말다툼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 말과 아버지 같이 않단다 너는 말이다 아무말도 말고 집에 가만이 앉아 있거라 보아하니 너는 편지마다 내가 무렵다고 쓰며구나 네가 싸워야 할때도 있을것이다 앞에는 별별일이 다 있는것이다」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레노치까는 공청에 들었다고 편지하였어요 축하하고 키쓰를 보냅니다 그런데 "꽤너일찌기"했지요 공부를 시원치 못하게해요 할사이가 없어요"하고 경솔히 나한테 쓴것이 대단히 듣기에 불쾌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애 그러면 공청원이 아니였을때에는 공부를 잘 하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하여도 관계치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무엇하려고 공청에 들었는가요? 공청증은—전 그렇게 소홀한것이 아닙니다 그 공청증을 위하여 사람들은 생명을 바치는데 그애는 무슨 작란감이나 얻은것같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조용한 끼셀시의 조그마한 목조집에선 이전과 다름없이 지노보의 일가가 살고 있다 이집안도 인제는 조용하여졌다 이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고 레나는 모쓰크바에 가서 공부한다 집안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공허하지는 않다 「큰것은—사라지지 않는 법이다」라고 이나는 언제인가 쓴 적이 있었다 부모에게대한 이나의 사랑은 조용한 집안에 짜젤의 선생들인 부모의 가슴속에 대학생 레나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부모에게 대한 동생에게 대한 젊은 처녀의 사랑에는 특별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노상 누구나 다 리해할수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써 이나는 자기를 크고 열렬하고 강하고 또 감동적인 인간으로 보여주었다 때로는 이처녀의 심장은 로동 섬참보다 좀 큰것같이 생각된다……

학생시대에 이나는 불온한 처녀는 아니였다 재능으로 보든지 잠고 풍부한 감정으로 보든지 비범한 그는 과거의 영웅들이 흔히 숙명적으로 느끼나싶이 느끼던 그러한 고독감을 느껴본적은 없었다

—차호에 계속—



新刊評

적장군학서클詩集 "로동자의 노래"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재반 민주개혁의 승리적 성과와 함께 우리의 민족문화도 날로 인민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자라나고 있다

그 실례로서 우리는 이 써클詩集 "로동자의 노래"한 권으로서도 능히 말할수 있다 이 詩集에 수록된 시人들은 모두가 다 처음으로 대하는 이름들이며 해방후 처음으로 시를 쓰게된 젊은 로동자시人들이다

그들은 모두 해방후 처음으로 로 인민의 손에 돌아온 공장에서 로동법령의 따뜻한 혜택을 받으며 젊은 주인으로된 기쁨을 오로지 건설과 증산으로 보답하고있는 로동자들이다

해방전에는 시를 짓는것은 고사하고 읽을수도 없었으며 도한 시가 무엇인지 알수도 없었던 그들이 오늘은 자기의 로력의 여여를 얻어 기쁨과 행복에 찬 자기의 새생활에서 시를 지으며 창작을 하고있는 사실은 또한 그들의 문화와 생활이 얼마나 향상되였는가를 여실히 말해준다

이 시集에 엮은 三十八편의 시 전부가 모두 불꽃튀는 자기들의 창조적로동에서 빚어나온 진실한 주제들이다

이제 이 시集속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들을 몇편 들어본다면 「선로동찬가」「오늘의 행복」「섬탄장에서」「용해공의 노래」「검열석강군 오신날」「三號막장」「기계당무자」「조선이여」「내 다시금 군은 이수로」「은인」등이다

그전날 누나들도
집속에서 일터에서
눈물로 세월지우던 때 지던기여
오늘은 이것을 거름삼아
너도 나도 증산경쟁에
……(중략)
오오 동무야
우리 다가치 강철같은 결의
를 다지고
뜨거운 정열으로 이날을 노
래하자
(『로동찬가』에서
홍남화학공장 한 시 년)

이시는 로동법령 실시 二주년을 노래한 시다 해방전의 처참한 생활을 회상하며 로동법령이 실시된 행복을 시삼스리 이 느끼며 서로 증산의 결의를 다지는 시로서 아직 표현상 어색한데는 있으나 작자의 진실한 시작태도와 발전할수있는 소질을 평가하게 되는것이다

말씀마다 애국정열이
폭포수처럼 줄기쳐 내리고
나의 적은 가슴속에도
장강으로 구비치고
(『오늘의 행복』에서
홍남제련 박찬규)

이 시는 하루의 작업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김장군의 보고가 실려있는 신문을 읽으며 그 한구절 한구절에서 장군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는듯 새국면에 가슴 뛰놈이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다지는 고사한 감정을 노래한 시다

장군은 우리위에
태양같이, 빛나시기에
따사롭고 밝은 그빛 받들이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나도
당신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간직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노래불러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히 그렸다

다음으로 「선탄장에서」라는 시에는

으릉 으릉……
권양기 감아당기는 소리
또 나오나부다
탄차 끌려올라오는 소리
털털 털털……
……(중략)
한덩이 버랴 쉬일세라
한알 티끌 놓칠세라
이석탄 한아울 화수의 마음
이여—

고르고 다듬고 매만져
윤기 새카만 보물은
소복 소복……

하고 일의 고단함도 모르고 즐겨 일하는 선탄장의 명랑한 분위기가 그대로 그려져 있다 계속하여

내것 내나라것
고르고 다듬는 정성
그이와 함께
머—ㄹ리 가까이
부르고 대답하며
조국에 바치는한갈래 마음과 마음

하고 노래불렀으며 이시는 비교적 어느시보다 능숙한 작자의 手法을 볼수있으나 더 압축하고 다듬었으면 좋은 시가 되었을것이다

다음 「용해공의 노래」에서는

무쇠팔뚝 번쩍 들어 삽자루 쥐고
가렬로 아궁이에 석탄을 퍼 넣으면
와르르 내여뿜는 一二천도 불길
내 몸과 땀을 조국에 바쳤거니
어찌 매연에 그스름을 상관하랴
기름때 묻음을 더럽다 하랴
일영 고함치며
三十톤 구렝이 머리위로 날려간다
녀적한 어금이에
二톤 철판을 집어물고
오늘도 불가마에
열두번째 쇳덩어리 날아가는 길이나
용광로 밀바닥은 천길 불바다
선철을 녹여도 이글이글 녹는다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젊은 용해공을 노래하여 그의 믿음직한 모습과 불꽃 이는 씩씩한 작업장광경이 여실히 들여다 보인다 이 작자는 어느 누구보담 시상(시想)이 풍부하며 선이 굵고 박력이 있는시를 쓴다 「조선이여!」라는 시에서도 어려운 主題를 무난히 다듬었으며 그 소질이 엿보이는것이다

다음 「김일성장군 오신날」에서는

나는 걸어가면서도 또 누워서도 생각 한다
그날의 감격을……
……중략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듯
간곡하신 훈시의 마디마디
골수에 사무쳐
구리빛 팔뚝마다
맹세의 핏줄이 뛰고

하고 황해제철 해탄로 복구시에 래림하셨던 김일성장군의 말씀과 그날의 감격을 언제나 잊지않고 그 영예를 지키기위하여 굳은 맹세를 다지는 실감이 나는 시다.

오늘도 장군이 서셨던
그날 그 해탄로 앞에
나는 가슴속 고이고이
샘솟는 희망과 행복을 안고
몇번이고 장군의 이름을 외었다.

이렇게 계속하여 자기의 행복을 솔직하게 노래한것이다 좀 산만한 구절들은 추고했으면 좋은시가 되리라

선풍기 우르릉
맑은바람 씨원한데
키려는 탄누지 위엔
삽과삽 번개치듯 날리고
흐르는땀 주먹으로 씻어 제끼며
또 한차 내 몰아라
(〃三坑막장〃에서 아오지탄광 문영일)

기계주위를 한바퀴 돌아
차근차근 살피며 기름은 잘 도는가
색손발프 덴리벨리발프에 귀를 기울여
딴소리나 없는가하고 진찰한다
(〃기계당무자〃에서 홍남비료 김의부)

이 두편의 시도 별로 무리가 없이 잘 다듬었다 특히후者의 시에 있어서 기계당무자가 사랑하는 기계를 점검 하는것을 의사가 진찰하듯이 비자한 표현들은 솔직하며 좋은 표현이다

내가 저녁때 공장에서
휘파람 불며 돌아올때
가로수 그늘에서 손풍금 울리던 너
훌쩍 달려나와 손목을 쥐고
……중략
안드레이
너는 볼가의 물결처럼 뛰고는 조국애로
팟쇼 독일을 물리친 용사
안드레이 너는
찌비리 벌판
휘몰아치는 눈보라의 기세로
왜적을 쳐부신 우리의 은인
(〃내 다시금 굳은 악수로〃에서 용성기계제작소 원상준)

이제 그대에게 하고싶은 말은

(詩)

영 예

조선인민군전사 김 승 걸

들에 곡식은 무르익고
산과 물 아름다운 三千里 이강토에
대대로 살아온 우리
억울하였던 설흔여섯해
떼저민 노예의 멍에도
벗어 버린지 數年!

내닫는 인민의 행진
조국통일을 웨치는 거대한 소리
날로 높아가는
네돐맞이 해방의 아침이로구나

구리빛 팔뚝에 총을 메고
승리의 깃발 휘날리며
앞으로 내닫는 모습들
오직 삶의 영광을 지닐 우리만에
오직 김장군 모시는 우리만이 가지는
보람큰 영예이로구나

우리는
인민과 더부러 숨쉬고
우리는
김장군의 빨찌산 전통 받들고 나섰으니
우리는 인민과 더부러
천만멸 싸워 이기고도 남으리

싸우는 이나라 절반땅—
우리는 쏘아본다— 남녁 하늘을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의 신음소리
그러나 일어서 원수를 겨눈
젊은 무장대 동무들의 뜨거운 숨결

여어!
동지들아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노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발걸음 맞추어 초소에로
초소에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맹세하노니
그날
남쪽 하늘가에 깃발을 휘날리리라
五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를
조국민주통일의 깃발을

이마마다 빛나는 영예로운 땀방울
금강석보다 고귀한 땀방울이여
훈련에서 行軍에서
어려운 때마다 〃김장군〃 이름 외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구호소리도
드높아라

쌓이고 쌓였던만
기적이 저산을 울리면
그대들은 떠나가려니
다만 몇마디 이야기 하마
(〃은인〃에서 성진제강 서대렬)

이 두편의 시는 모두가 조쏘친선을 주제로한 시다 어디 한마디의 거짓도 없고 티끌도 없는 자기의 감정 그대로의 표현이다 다소 어색한데는 있지만 후자에 있어서 쏘련군 환송의 역두에서 갑짜기 할말은 많고 시간이 없어 서로 정들어 그러는 장면은 아주 훌륭한 묘사이다

이와같이 해방후 처음으로 인민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인제는 자기들의 생활감정을 능히 풍부한 사상성이 있는 시로써 또는 창작으로써 형상화할수 있게 된 사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와같이 주권이 인민의 손에 돌아온 조건하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앞으로 많은 젊은 시인들이 나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시집을 읽고 느낀 전반적 결함의 몇가지를 든다면

첫째로 한 시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어 모든 구절들은 또 그 하나의 감정을 위하여 통일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산만한 감을 주게되는 것은 그렇지못한데 기인되는것이다

시란 이러한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반면에 시를 너무 소홀히 생각해도 안된것이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자체 발전이 없고 오히려 후퇴할 우려가 있는것

(詩)

나도 나섰다

조선인민군전사 황 주 환

영예의 결원에
함성소리 높이 깃발 휘날린다
조국의 아들
보위의 선두으로 가는 이 자랑!
조국의 부름에
두려없이 나선
이몸
장갑열차와같이
동무들과 더부러 전진하리니
안해여 이날의 감격그대로
당신도 후방에서 힘껏 싸워주오
늙은 어머니도
영예의 길을 떠나는 나에게
뜨거운 손길을 잡아준다

이는 마지막
피한방울까지라도
조국을 인민을 위하라는 뜻
이 모든것이
힘이 되어 싸우리라
사랑하는 어머니여 안해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여
우리의 맹세는
오직 한뜻
조국통일 완성을!
우리 서로 잊지말자
이 숭고한 길을
민청동무들의
환송의 노래소리 울려
열차는 위대한뜻을 품고
조국의길로
역센 걸음을 달린다
이 길에
나도 나섰다

이다

둘째로 習作에 있어서 선배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다소 모방하며 수업할수 있으나 그것은 결국 자기 작품이 아니기때문에 발표하는것을 삼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集속에는 부분적 작품들이 모방한 그대로인 구절로써 발표되어있다 이것은 자체발전에 큰 장해가된다 그러나 하나의 자기시를 쓰려면 많은 선배들의 작품을 읽어야한다

세째 시는 소설도 아니며 설명문도 아니다 그러나 간혹 시는 자기의 어떤 간직되였거나 감동된 감정을 그대로 형상화하면 그만인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즉 필요성이 없는 구절들을 그대로 넣으며 있어야할 구절들을 때며 또는 설명하려고하는 경향들인것이다

이상 간단히 이 시집을 통하여 느낀 몇가지의 우점들과 부분적 결점들을 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젊은 시人들이 나오며 훌륭한 작품이 나올것을 믿는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엄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전사……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전사……

위' 례를 보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엄이라고 한 단문이 틀린 것이요, 죽음이라고 함이 옳은 것이다。다시금 다음의 례를 보기로 하자。

'동지가 쓸어진 죽엄을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돌격하는 애국투사의 모습을 보라!

전선에 나아가는 용사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싸워야 전승을 거둘 수 있다。

……값있게 죽은 죽음이다

죽는 찰나가 죽음이요, 죽은 뒤에는 죽엄이다。

제30제 "새'놀앟다"냐 "새'노랗다"냐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된 것은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이를테면;

(1) "앟, 엏(얗, 옇)다"

감앟다	검엏다 (黑)
깜앟다	껌엏다
놀앟다	눌엏다
밝앟다	벍엏다
빩앟다	뻙엏다
팔앟다	펄엏다
갊앟다	덞엏다
동글앟다	둥글엏다
싸늘앟다	써늘엏다
보앟다	부엏다
뽀앟다	뿌엏다
하앟다	허엏다

(2) "업, 압(읍)다"

간지업다 (痒)	웃읍다 (可笑)
부들업다 (柔)	보들압다 (柔)
믿업다 (信)	
시끌업다 (騷)	
어질업다 (亂)	
징글업다 [illegible]	
미끌업다 (滑)	

(3) "없다"

부질없다 (漫然)	시름없다 (愁貌)
상없다 (悖常)	

위' 례 (1) 중에서 색소로 된 말이 열날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낱은 더 眞, 深이 될 수 있는 빛갈에 다음과 같은 접두사가 붙어서 강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적는다。이를테면;

새깜앟다 (眞黑)	시껌엏다 (深黑)
새'놀앟다 (眞黃)	시'눌엏다 (深黃)
새빩앟다 (眞赤)	시뻙엏다 (深赤)
새팔앟다 (眞靑)	시펄엏다 (深靑)
새'말앟다 (眞淸)	시'멀엏다 (淸深)
새뽀앟다 (眞濁)	시뿌엏다 (深濁)
새하앟다 (眞白)	시허엏다 (深白)

이밖에 그믐밤의 어두움을 나타내는 말로 —방속이나, 岩穴에도 —캄캄하다와 컴컴하다의 眞, 深을 나타낼 때에 쓰는 말이 있다。

이를테면;

새캄앟다 (眞暗) 시컴엏다 (深暗)

제31제 "말지"냐 "마지"냐

변격용언에 있어서—

어간의 끝 "ㄹ"가 "ㄴ, ㅂ, 시, 오" 위에서 주는 것은 준대로 적는다。이를테면;

(1) "ㄴ"위에서

말다 (禁)	마나	마니	만
놀다 (遊)	노나	노니	논

(2) "ㅂ"위에서

맙니다	맙디다	맙시다
놉니다	놉디다	놉시다

(3) "시"우에서

마시오	마시다
노시오	노시다

(4) "오"위에서

마오	마오니
노오	노오니

그러나, "ㄷ, ㄹ, ㅅ, ㅈ" 위에서는 주는 일이 있지마는 안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되 미래형의 "ㄹ"위에서는 도무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이를테면;

(1) "ㄷ, ㄹ, ㅅ, ㅈ"위에서

말다	말도록	말더라	말든지
말라	말려고	말려	
말소	말세		
말자	말지		

(2) 미래형 "ㄹ"위에서

말 때	말찌라도	말수록

(2)의 례는 말 어간에 "ㄹ, ㄹ찌라도, ㄹ수록"의 어미가 붙어서 된 말인데 어미를 뽑아낸 나머지가 "마"만이 남으니 미래형 "ㄹ"위에서는 어간의 "ㄹ"가 준 현상이다。그리고 (1) 례의 맨 끝에 말지가 본제의 핵심이다。흔히 주는 일이 있지마는 바로 안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마지"로 발음하는 일이 있지마는 "말지"로 발음하며 표기할 것으로 원칙을 삼으니 "말지"로 적어야 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본래의 굳어진 버릇대로 "ㄹ"가 줄어진 것으로 인정한다。이를테면

……환영하여 마지 않는다。
……감격하여 마지 않는다。
만강의 사의를 표하여 마지 않는다。
내가 시키니까, 마지 못해 간다。
선생님의 명령에 마지 못해 좇는다。

—던가— 〃던〃에 반문하는 말
—던지— 과거 표시의 던에 의문형인 〃지〃
가 합하여 된 말, 이를테면;

이제 누가 왔다 갔던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제25채 〃휫바람〃이냐 〃휘파람〃이냐

휫바람이거나 휘파람이거나는 죄다 〃휘〃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두 말 사이에서 된소리 나는 것은 방언이요. 〃ㅎ〃소리가 박음어진 것은 표준말이다。이와 같이 〃ㅎ〃음에 관한 것을 몇가지 추리여 그 례를들면;

(1) 子音 위에서 〃ㅎ〃의 영향으로 그 자음이 격음화되는 경우;

ㄱ) 두 낱의 말이 합하여 합성어로 될 적에 아래'말의 두음이 〃ㄱ, ㄷ, ㅂ, ㅈ〃인 경우 아무 까닭이 없이〃ㅎ〃소리의 영향을 받아 〃ㅋ, ㅌ. ㅍ, ㅊ〃로 소리나는 경우에는 그 어원을 밝히여 적지 아니한다。

이를테면;

(1)	결코	머리카락
	하마터면	하여튼
	휘파람	살코기
	마파람	
(2)	암컷	수컷
	암캐	수캐
	암탉	수탉
	암펌	수펌

(ㄴ) 명사에 〃하다〃가 붙어 동사로 전성한 어간 밑에 〃ㄱ, ㄷ, ㅈ〃를 두음으로 삼는 어미토가 올 적에 어간의 끝 〃하〃의 〃ㅏ〃가 줄어, 남은 〃ㅎ〃의 영향으로 격음으로 소리가 날지라도 죄다 그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이를테면;

본 말	준 말	발 음
지원하고자	지원ㅎ고자	[지원코자]
발'전하게	발'전ㅎ게	[발'전케]
발포하더라	발포ㅎ더라	[발포터라]
결'정하도록	결'정ㅎ도록	[결'정토록]
구명하지	구명ㅎ지	[구명치]

但 〃못하지 않다〃는 재래의 버릇에 의하여 〃못지 않다〃로 준대로 적는다。

(2) 母音위에서 〃ㅎ〃이 탈락하는 경우;

〃ㅎ〃은 후두마찰음이고, 모음은 후두진동음이므로 〃ㅎ〃와 모음이 합음할 때 두음에서는 재음가를 발할 수 있으나, 두음밖의 자리에서는 재음가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함이 예사이다。

(ㄱ) 어휘의 두음절 사이에서 〃ㅎ〃이 탈락된 경우;

예'말	현철'자
안해	아내 (妻)
아해, 아히	아이 (兒)
산해	사내 (男)

(ㄴ) 용언이 활용할 적에 어간의 끝 음절 〃ㅎ〃받침이 〃ㄱ, ㄷ, ㅈ〃를 두음으로 삼은 어미를 만나서 격음화되고, 모음어미를 만나면 〃ㅎ〃이 묵음된다。 이를테면;

좋다 (好)	[조타]	좋아	[조아]
끊다 (絕)	[끈타]	끊어	[끄너]
끓다 (沸)	[끌타]	끓어	[끄러]

(ㄷ) 부사거나 형용사가 동사와 어미토가 합치여 한낱 句文化 된 것은 준대로 올 수도있다。 이를테면;

어찌하여 > 어찌해 > 어째
이리하여 > 이리해 > 이래
그리하여 > 그리해 > 그래
저리하여 > 저리해 > 저래
같하여 > 같해 > 같애
굳하여 > 구태여

제26채 〃못자라다〃와 〃모자라다〃

못자라다는 발육상태가 불량한 것을 일컬음이고, 모자라다는 부족(不足)을 말함인데, 못자라다와 모자라다의 각각 자라다의 전자는 성장을 말함이요, 후자는 충족을 말함이다。그런데 〃못〃과 〃모〃는 죄다 부사격 관형사이며, 그 원형은 각각 〃못〃에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부족의 모자라다는 원형의〃ㅅ〃가 탈락한 것으로, 못자라다 (발육불량)와 스스로 구별하게 되었던 것 같다。이것은 마치 불족(不足)을 부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를테면;

(ㄱ) 한'자어에 있어서 〃不〃자의 다음에 〃ㄷ. ㅈ〃를 두음으로 삼은 음이 올 적에는 〃不〃의 〃ㄹ〃가 탈락하여 〃부〃로 읽는다。이를테면

(1)	부득불(不得不)	부당 (不當)
	부동산(不動産)	부덕 (不德)
(2)	부적당(不適當)	부족 (不足)
	부지불식(不知不識)	부정 (不正)

(ㄴ) 두 낱의 말이 합하여 합성어가 될적에 중간에서 그 〃ㄹ〃소리가 줄어지는 경우에 준대로 적는다。이를테면

겨우내 (過冬)	다달이 (每月)
따님 (令愛)	마되 (斗升)
마소 (牛馬)	무자위 (唧筒)
미닫이 (推窓)	바느질 (針工)
부나비 (火蛾)	부넘기 (火踰口)
부삽 (火鍤)	부손 (火匙)
싸전 (米廛)	소나무 (松樹)
여닫이 (開閉窓)	차돌 (石英)
차조 (糯粟)	화살 (弓矢)
이부자리 (衾)	수저 (匙箸)

제27채 〃시오〃와 〃시요〃

〃시오〃는 〃오〃라는 어미에 〃시〃라는 존경사가 붙은 말이요, 〃시요〃는 〃요〃라는 지정형 토에 〃시〃라는 존경사가 붙은 말로서 이 두낱 말이 서로 각립한 말이다 이를테면 :

(1) 〃시오〃로 쓸 경우

가오 (行)	가시오
보오 (見)	보시오
사오 (買)	사시오
오오 (來)	오시오
기다리오 (待)	기다리시오

다위로 얼마든지 례를 들 수 있는데 〃가오〃로 적으면 〃가오〃로 발음되나 〃가시오〃로 적으면 〃가시요〃로 발음되는듯하다고 하여서 〃가시요〃로 적으면 형태주의적 철'자법에 어긋나는 것이다。〃가시오〃로 적고 〃가시요〃로 발음되는 까닭은 음성학적으로 말하면 〃시〃의 〃ㅣ〃가 반모음적 연구개 마찰음이므로 다음에 오는 모음〃오〃에는 자음적 구실을 놀기때문에 〃가시요〃로 들린다。

(2) 〃지요〃로 쓸 경우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시요
아버지요	아버지시요
어머니요	어머니시요

(2)의 경우에 용례를 보아 훤히 알 수 있는 일,자이다。

제28채 〃에〃 〃에게〃와 〃께〃

〃에〃나 〃에게〃는 죄다 방위격 토인데 같은 방위격 토이면서도 그 쓰이는 모가 달라서 자칫하면 그릇 쓰기 쉽다。〃에〃는 무감 대상에 쓰이고 〃에게〃는 유감 대상에 쓰이는 토이다。이를테면 :

언니가 학교에 갔다
책을 책상 위에 놓으라
결'정서에 동의한다
김동무는 교육과에 다니여 왔습니까?
학생들에게 발표하였다
어린이에게 먼저 주오
개에게나 줄 수 있는 먹이 (食料) 요
아버지께 올리시오
어른께 먼저 올리시오
선생님께 갖다 보이시오

〃께〃는 〃에게〃의 준말로서 존경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제29채 〃죽음〃과 〃죽엄〃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 〃웃 옷〃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과 〃음, 엄, 암〃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은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이를테면 :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長)	깊이 (深)	높이 (高)
땀받이 (汗衫)	다듬이	맞이 (迎)
미닫이 (推窓)	벌이 (勞得)	먹이 (食料)
벼훑이 (稻扱機)	살림살이 (生活)	손잡이 (手把)
쇠붙이 (鐵屬)	풀이 (解)	해돋이 (日出)
해넘이 (日沒)	품앗이 (助力)	

(2)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同, 共)	굳이 (固)	길이 (永)
깊이 (深)	높이 (高)	많이 (多)
실없이 (不實)	적이 (少)	좋이 (好)
짓궂이 (放膽)		

(3) 〃웃, 옷〃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붉웃붉웃 (点紅)	푸릇푸릇 (点碧)
불룩불룩 (凸凹)	검웃검웃 (点黑)

(4) 〃음, 엄, 암〃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步)	묶음 (束)	믿음 (信仰)
엮음 (編)	울음 (啼)	웃음 (笑)
잊음 (忘)	졸음 (睡)	품갚음 (報勞)
죽음 (死)	설음 (悲)	얼음 (氷)
죽엄 (屍)	무덤 (墳)	

막암 (決算)

위'례에 나타난 바와같이 〃죽음 (死)〃과 〃죽엄 (屍)〃이 다른 것은 한'자를 보아서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동물이 목숨 끊어지는 그 찰나의 과정을 말함이요, 죽엄은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물체—곧 시체가 죽엄이다。이를테면

×죽엄으로 써 사우겠다
죽음으로 써 사우겠다
×죽엄을 무릅쓰고………

◀청 년 생 활▶

—제2권 제10호—

— 주요 목차 예고 —

화 보 —조조 친선—

권두언 위대한 쏘련은 세계평화의 성새이다……

◈ 중앙위원회 제4차 결정 집행에서 얻은 기본적 성과들과 경험……

◈ 동맹 강연사업과 군중선동사업……

☆ 조국을 수호하는 인민의 무장력은 튼튼하다……

☆ 남반부 인민무장 유격대는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박 지

□ 10월혁명은 인류력사의 새페지를 열어놓았다……유 성 훈

⊡ 조쏘친선과 쏘베트 문화순간은 우리민족 문화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된다……김 현

☆ 인민무장투쟁실기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동맹생활란……국제청년생활란……

현지보고 ○ 아오지 인조 석유공장……

○ 그들은 영원한 땅의 主人이다……

巴里青年의 모습……한 설 야

쏘련청년에대한 나의印象……리 기 영

기술교양란…… 취미과학란……

⊙ 白頭山 探勝記……박 태 훈

참고자료 위대한 조국전쟁에대하여……김 승 화

과 학 미츄린학설이란 무엇인가……

좌담회 (평양시 고급 전문 대학 민청위원장련석)

수 필·시……(김남천、김려수、리호남)

소 설 學生日記에서 (3)……태 숙 역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다(下)

「소 년 단」

—제1권 제4호—

— 주요 목차 예고 —

화 보 —새학년을 맞이한 소년단원들— —조쏘 친선—

머릿말 영원한 친선……

시 사 남반부 소년들의 생활과 투쟁……한 재 덕

지도기사 ○ 소년단 생활에 있어서 분단위원장 위원들의 역할……정 육 파

○ 선학조직은 어떻게 할것인가……소 년 부

소년단생활 ○ 소년단 방송국 (五山중학교 소년단 라디오 써클)……기 자

○ 신의주 방직공장 소년단 무용써클……기 자

○ 알바니야 삐오네르 동맹……도 홍 순 역

❋ 붉은기와 그의 적은 부분……송 고 천 역

❋ 위대한 명절……리 배 형

(과학) 가을의 자연계……식물이야기……(2회)……

실험교실……(2회)……

교실 작문교실 (3회)……송 창 일

사회발전 이야기 (4회)……유 추 록

문예 쏘련동화 부는 지수 (刺繡)……정률 서역

동요。동시。가요。

우리작품란 —현상 모집—

교마지식

공작실 공작법에 대하여 (2회)……탁운주

1949년 9월 10일 인쇄
1949년 9월 15일 발행

「청년생활」 제 2 권 제 9 호

값 35 원

편집겸 발행인 김 련 호

평양 특별시 중앙리 20

발행겸 인쇄소 청 년 생 활 사

7—18873 전화 5712.37 9 15,000 부발행

조선어문통속강좌

틀리기쉬운말테

박 종 주

—제 四 회—

제21제 "함으로"와 "하므로"

"함으로"와 "하므로"는 각각 다른 말이다。

"함으로"는 어간"하"에 어미 "ㅁ"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에 "으로"라는 토가 붙은 것이니,

이를테면;

인민경제 계획을 초과달성함 (=한것) 으로 5·1절을 기념하자。

독서함 (=한것) 으로 실력을 향상한다。

국토를 완정함 (=한것) 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이와 같은 말들과—

"하므로"는 "하기때문에"와 꼭 같은 뜻으로서 어간 "하"에 어미 "므로"가 붙은 것이니, 이를테면;

계획량을 초과달성하였으므로 (하였기때문에 5·1절 기념은 더욱 빛났다。

독서하므로 (하기때문에) 실력이 향상된다,

국토를 완정하므로 (하기때문에) 조국은 통일된다。

이와 같은 말들을 비교하여 보면 "으로"와 "므로"가 쓰일 경우가 저절로 알리여진다。

제22제 "으로서"와 "으로써"

"으로서"와 "으로써"는 각각 다른 말이다。"으로서"는 명사 밑에 붙는 토이고, "으로써"는 위 말과 아래 말을 접속하는 접속형이다。이를테면;

노력으로서 (이되여가지고) 식량증산을 못하면 안 된다。

人전원이 친동함으로써 (가지고) 결정되였다와 례를 비교해 보면 저절로 알 바다。

제23제 "단은"과 "마는"

"만은"은 명사 밑에 붙어 단독의 뜻을 나타내는 "만"이라는 도움토와, 각각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은"이라는 도움토와를 거듭하여 쓰는 말이요, "마는"은 말의 한 마디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그 상반되는 다른 말을 하기 위하여 그앞의' 마디 끝에 붙이는 경우에만 쓰는 이음토이다。이를테면;

다른 동무들은 다 갑니다마는, 김 동무만은 못갑니다。

언제든지 되면 일입니다마는 오늘만은 안 되겠습니다。

제24제 "든지"와 "던지"

"든지"는 불구속형토인데 무엇이나 가리지 않는 뜻으로 받침이 없는 말 밑에 쓴다。이를테면;

개든지 소든지 닥치는대로……

종이든지 노(紙繩)든지 가지여 오라

"든지"는 또한 불구속형 어미로서·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으로 쓰인다。

이를테면;

되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든지"가 줄어서 "든"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이를테면;

개든 소든……

되든 말든……

"더라" "더라도", "더니", "던지", "던가" "더면" 따위들은 상상적 과거형 어미로서, 이를테면;

—더라— 지난 일을 생각하여 베풀어 끝맺는 어미

—더라도— "아도" "어도"보다 더 가정(假定)으로 쓰는 어미

—더니— 어간에 붙이여 한개의 결과를 표시하는 말

—던— 지난 일을 회상하는 어간에 붙어 그 아래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미

1948年度 [illegible] 作品
總天然色 藝術映画

學者 미추린



씨나리오……아. 도브젠꼬
연 출
촬 영……르. 꼬-아또브
主 演……게. 벨로브

생물학을 새로운 기초 위에 확립시킨 위대한 쏘련의 과학자이며 애국자인 미추린의 一생을 그린 총천연색 예술영화!

艦長의 過誤



씨나리오…엠. 고도브
연 출…아. 화인쯔메르
촬 영… 엠. 마기드
주 연…엠 죄독브

공명심에 불타는 함장의 과오로부터 생기는 사건을 둘러싸고 쏘련해군들의 용감하고도 전형적인 애국주의 사상을 보여주는 海洋映画!